2 0 2 2

# 전 라 북 도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최 종 보 고 서

전라북도의회
Jeollabuk-do Provincial Assembly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

제 · 출 · 문

**전라북도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전라북도 종교 문화유산 활용 관광 활성화 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지식을 공유하는 기업 **주식회사 놀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의 결과물이므로 전라북도의회의 공식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무단 전재 ·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 목 차


##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1. 연구 배경 ····· 3
   1.2. 연구 목적 ····· 4
2. 연구 내용 및 방법 ····· 6
   2.1. 연구 내용 ····· 6
   2.2. 연구 방법 ····· 7
3.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검토 ····· 8
   3.1. 이론적 논의 ····· 8
   3.2. 선행연구검토 ····· 14

## Ⅱ. 정책 환경과 사례 분석

1. 종교 관광 여건과 정책 동향 ····· 21
   1.1. 종교관광 여건과 잠재력 ····· 21
   1.2. 종교관광 정책 현황 ····· 24
2. 종교 관광 참고 사례 ····· 29
   2.1. 분석 사례 ····· 29
   2.2. 시사점 ····· 60

Ⅲ. 전라북도 종교 문화유산과 관광 여건 분석 ····· 63

1. 전라북도 종교 문화유산 현황과 관광 자원 ····· 65

1.1. 전라북도 종교 문화유산 현황 ····· 65

1.2. 전라북도 문화관광 자원 현황 ····· 91

1.3. 전라북도 종교 단체와 방문객 현황 ····· 99

2.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 활용 및 관광정책 현황 ····· 102

2.1. 전북의 종교문화유산 관련 조례 ····· 102

2.2. 전북의 종교문화유산 활용 관광정책 ····· 104

2.3. 전북의 종교문화유산 활용 사업 ····· 110

Ⅳ. 종교 문화유산 활용 관광 활성화 방안 ····· 127

1. 정책 방향 설정 ····· 129

1.1. 정책 환경 분석과 전략 설정 ····· 129

1.2. 전라북도 종교 관광 비전 체계 ····· 137

2. 종교 문화유산 활용 관광 자원화 방안 ····· 140

2.1. 종교 성지화 및 체험기반 조성 ····· 140

2.2. 종교 유산 간 연계 관광 진흥 ····· 162

3. 전략별 추진과제 총괄표 ····· 183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185**

1. 연구 요약 ····· 187

1.1. 정책 환경과 여건 분석 ····· 187

1.2. 종교 문화유산 활용 관광활성화 방안 ····· 189

1.3. 활성화 방안의 기대효과 ····· 192

2. 정책 제언 ····· 193

2.1. 사업의 실행 체계 ····· 193

2.2.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 ····· 195

# 표 목차

〈표 1〉 종교투어리즘 성장 증가 요인들 ····· 10
〈표 2〉 종교투어리즘 상품 범위 ····· 10
〈표 3〉 성지순례여행의 정의 ····· 11
〈표 4〉 영성관광의 7가지 차원 ····· 13
〈표 5〉 연도별 추천 웰니스 관광지(힐링/명상 부문) 신규 선정 현황 ····· 26
〈표 6〉 템플스테이 대표 체험 프로그램 ····· 39
〈표 7〉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유형 ····· 40
〈표 8〉 전북지역 템플스테이 예약 가능 사찰 ····· 40
〈표 9〉 유형별 종교 문화유산 현황 ····· 73
〈표 10〉 2019전라북도 시군별 인구 현황 ····· 92
〈표 11〉 2019전라북도 전통사찰 현황 ····· 95
〈표 12〉 전라북도 문화재 현황 ····· 96
〈표 13〉 전라북도 종교별 문화재 현황 ····· 96
〈표 14〉 전라북도 관광숙박시설 현황 ····· 97
〈표 15〉 전라북도 관광숙박시설 현황(관광편의시설 등) ····· 97
〈표 16〉 전라북도 시군별 축제현황 ····· 98
〈표 17〉 2006년 전라북도 5대 종교단체 현황 ····· 99
〈표 18〉 전주시 5대 종교단체 현황 ····· 100
〈표 19〉 부안군 5대 종교단체 현황 ····· 100
〈표 20〉 임실군 5대 종교단체 현황 ····· 100
〈표 21〉 2017~2021 전라북도 종교 관련 관광지 방문객 현황 ····· 101
〈표 22〉 전북의 종교문화유산 관련 조례 ····· 102
〈표 23〉 전북의 종교문화시설 건립 현황 ····· 110
〈표 24〉 시군별 이웃종교 탐방길 정비 추진 내역 ····· 113
〈표 25〉 이웃종교 탐방길 코스 현황 ····· 113

〈표 26〉 템플스테이 운영 현황 ····· 115
〈표 27〉 템플스테이 예산지원 내역 ····· 116
〈표 28〉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 117
〈표 29〉 종교문화유산 관련 사업 현황 ····· 120
〈표 30〉 향교 및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국비 지원 현황(2020-2021) ····· 124
〈표 31〉 코로나19 이전 전라북도 수학여행단 유치 현황 ····· 177
〈표 32〉 종교 문화유산 활용 관광 활성화 전략과 사업(안) 총괄표 ····· 191
〈표 33〉 사업 추진주체 및 역할 분담 ····· 194
〈표 34〉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성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 내용 ·· 196

# 그림목차

〈그림 1〉 우리나라 종교 인구 현황 ····· 21
〈그림 2〉 종교 및 순례관광의 단계별 구상(안) ····· 25
〈그림 3〉 시코쿠 순례길과 사찰 ····· 29
〈그림 4〉 시코쿠 순례 형태 ····· 29
〈그림 5〉 시코쿠 순례 복장과 물품 ····· 31
〈그림 6〉 신안 순례자의 길 ····· 32
〈그림 7〉 서울 순례길 1코스 ····· 33
〈그림 8〉 서울 순례길 2코스 ····· 34
〈그림 9〉 서울 순례길 3코스 ····· 34
〈그림 10〉 티베트 카일라스 산의 순례길 ····· 35
〈그림 11〉 스페인 카미노 데 산티아고 ····· 37
〈그림 12〉 와카야마 구마노고도 순례길 ····· 38
〈그림 13〉 국내 수도원 스테이(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 41

〈그림 14〉 옴뷔 시설과 프로그램 ····· 43
〈그림 15〉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성지순례 풍경 ····· 44
〈그림 16〉 예루살렘 성지 순례 ····· 45
〈그림 17〉 튀르키예 성지 순례 ····· 46
〈그림 18〉 나가사키 카톡릭 성지 순례 ····· 47
〈그림 19〉 이탈리아 아시시 성지 순례 ····· 48
〈그림 20〉 연등회 ····· 49
〈그림 21〉 한국기독교영화제 ····· 50
〈그림 22〉 람만 ····· 51
〈그림 23〉 메르세 축제 ····· 52
〈그림 24〉 팀카트 축제 ····· 53
〈그림 25〉 산 페르민 축제 ····· 54
〈그림 26〉 산 페르민 축제 ····· 55
〈그림 27〉 홀리랜드 ····· 56
〈그림 28〉 동방문화원 ····· 57
〈그림 29〉 세계종교박물관 ····· 58
〈그림 30〉 유교문화박물관 ····· 59
〈그림 31〉 전북의 대내적 입지 ····· 91
〈그림 32〉 전라북도 예산규모 ····· 93
〈그림 33〉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 ····· 93
〈그림 34〉 전라북도 재정자립지표 ····· 93
〈그림 35〉 전라북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95
〈그림 36〉 2020~2021년 전라북도 문화관광축제 ····· 98
〈그림 37〉 고창유교문화체험관 ····· 111
〈그림 38〉 천주교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 111
〈그림 39〉 완주 송광사 ····· 116
〈그림 40〉 김제 금산사 ····· 116

〈그림 41〉 부안 내소사 ····· 116
〈그림 42〉 고창 선운사 ····· 116
〈그림 43〉 2022 세계종교문화축제 개요 ····· 123
〈그림 44〉 김제 종교문화해설사 양성교육 ····· 123
〈그림 45〉 전주 연등문화축제 ····· 125
〈그림 46〉 전통산사문화재활용 '달빛음악회' ····· 126
〈그림 47〉 2019년 선운문화제 부도헌다례 ····· 126
〈그림 48〉 전북 종교문화유산 활용 정책 환경 여건 분석 ····· 132
〈그림 49〉 전북 종교문화유산 활용 관광활성화 전략 방향 ····· 136
〈그림 50〉 비전 및 전략과제 ····· 139
〈그림 51〉 전킨 선교사 가족 ····· 140
〈그림 52〉 전킨과 함께 활동한 드루 의료선교사가 1896년 구입한 선교선 ····· 140
〈그림 53〉 군산 교회 최초 예배처소로 사용된 전킨의 집 ····· 140
〈그림 54〉 전킨 선교사의 부인 레이번 선교사와 주일학교 여학생반 학생들 ····· 140
〈그림 55〉 군산 선교역사관 위치도 ····· 141
〈그림 56〉 무성서원 ····· 142
〈그림 57〉 무성서원 내삼문 전면 ····· 142
〈그림 58〉 무성서원 명륜당 편액 ····· 142
〈그림 59〉 무성서원 명륜당 전면 ····· 142
〈그림 60〉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위치도 ····· 143
〈그림 61〉 천호성지 특화관광명소 위치도 ····· 144
〈그림 62〉 남양성모성지 전경 ····· 145
〈그림 63〉 남양성모성지 ····· 145
〈그림 64〉 천주교 최초 순교유적지 ····· 146
〈그림 65〉 솔뫼성지 ····· 148
〈그림 66〉 라제통문 주변 관광힐링공간 위치도 ····· 149
〈그림 67〉 만덕산 성지 조감도 ····· 151

〈그림 68〉 순창향교 전통문화단지 위치도 ····· 154
〈그림 69〉 안동시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 155
〈그림 70〉 부안 백산성 위치도 ····· 156
〈그림 71〉 동학·천도교 순례길 위치도 ····· 159
〈그림 72〉 전북 불가사의 순례여행 ····· 160
〈그림 73〉 전주시 치유순례 프로그램 코스(안) ····· 163
〈그림 74〉 개신교 종교문화자원 ····· 164
〈그림 75〉 불교 종교문화자원 ····· 164
〈그림 76〉 천주교 종교문화자원 ····· 165
〈그림 77〉 원불교, 유교, 천도교 종교문화자원 ····· 165
〈그림 78〉 4대 종교체험 다이로운 익산여행 포스터 ····· 167
〈그림 79〉 6대종교 건축유산 탐방코스 ····· 170
〈그림 80〉 6대종교 주요 건축물 ····· 171
〈그림 81〉 4대 종교성지 ····· 173
〈그림 82〉 빅데이터 기반 여행지 추천 ····· 176
〈그림 83〉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 176
〈그림 84〉 광양 기독교선교 100주년 기념관 ····· 182
〈그림 85〉 서천 산막골 성지 ····· 182
〈그림 86〉 세부 과제의 종교별, 지역별 분포 ····· 190
〈그림 87〉 전라북도 종교관광 사업 주체별 역할 ····· 194

# Ⅰ 서 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1 연구 배경

### ❑ 무한한 미래가치를 지닌 종교문화유산의 중요성 확산

- 종교는 인류 정신문화의 근간이자, 인류 역사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으며, 그 발자국이 바로 종교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음. 한국에는 무수히 많은 종교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으며,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종교건축은 12%를 차지함(윤선자, 2005)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종교의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인류무형유산 가운데 상당수가 종교의례에 해당됨(종묘제례, 강릉단오제, 영산재, 제주칠머리영등굿, 연등회 등)

- 문화원형 발굴 및 활용 분야에 종교적 소재 및 주제는 매우 중요한 핵심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으며, 종교 유산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정책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전북 단위에서 종교문화관광의 로드맵을 구상하는 정책 연구는 부족함

  - 문화체육관광부, 2008, 종교문화원형 발굴 및 활용방안
  - 경남발전연구원, 2009, 종교관광과 경남의 정책과제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종교문화원형 활용 콘텐츠 성공사례 조사 연구
  - 경기개발연구원, 2011, 안성 미리내성지 관광자원화 사업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영성문화자원의 관광융복합 잠재력에 관한 연구
  - 충북발전연구원, 2014, 충북도내 종교문화콘텐츠의 관광자원화 전략: 천주교 관련 문화관광 사업 발굴
  - 문화체육관광부, 2020. 종교문화관광자원 활용방안 연구

### ❑ 종교관광의 증가에 따라 전북에 산재하는 종교자원의 활용가치 제고

- 세계종교관광협회(The World Religious Travel Association)에 따르면 종교관광은 연간 180억불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이며 여행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관광산업 분야임(박의서 2011). 전 세계 종교관광자는 총 관광자의 3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종교관광자는 관광횟수 기준으로 6,500만 명에 달함 (Kim, 2009)

- 정부의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에 따르면, 종교 및 순례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구축, 종교 유산, 종교 기능을 활용한 순례, 명상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종교 자원 활용한 문화축제 이벤트 발굴 등의 과제를 개발하고자 함
- 전라북도에는 무수한 종교자원, 종교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음. 사찰의 경우, 전국에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 중 종교 관련 문화재는 20%에 이름. 하지만 여전히 '보존' 중심의 정책에 그쳐 있고, 종교유산의 활용 및 관광자원화가 미흡함
- 건강, 명상, 힐링, 치유 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종교관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종교매력물·성지·종교이벤트 등의 다양한 종교 체험뿐만 아니라 다변화된 종교관광자의 니즈에 부합된 관광정책 발굴이 필요함

### ❑ 다종교 한국사회에서 종교간 평화적 공존과 상생 도모

- 한국인의 종교성향은 개방적·적극적. 조선 후기 및 근대기 천주교와 개신교가 전래될 때 많은 박해와 수난 속에서도 서양종교는 민중 속으로 빠르게 확산됨
- 한국은 불교·기독교·원불교·유교·천주교·천도교·무속신앙·신흥종교 등이 공존하는 다종교 사회로 한국 종교 인구는 약 2,500만 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렇게 한국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 사회라 할 수 있음
-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의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교 갈등 완화 및 종교간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종교관광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1.2 연구 목적

### ❑ 전북 유·무형 종교자원의 문화유산적 가치 발굴 및 개발

- 한국의 지정문화재 가운데 종교관련 문화재는 매우 많음. 유·불교와 같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닌 자원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높은 개방성으로 천주교·기독교 등의 외래종교, 천도교 등의 민족종교 등 다양한 종교문화유산 자원이 산재하고 있음
- 종교 관련 유형자원의 경우 불교-유교-천주교-개신교-원불교-민족종교-천도교와 수운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유형자원은 대부분 시설 관련 자원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길·

의례·행사·체험·휴식 형태의 자원은 빈약한 실정임(문화체육관광부, 2020)

- 종교문화유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유형자원을 무형자원,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엮어내는 작업이 중요함
- 또한 대중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유·무형 종교문화유산을 발굴·개발하여 종교유산의 미래 가치를 확산시키고, 전북 문화관광 활성화의 토양을 구축하고자 함

### ❑ 전북 종교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정책 비전 및 방향 도출

-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교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관광활동이 수행·실천되는 영역은 지역적 단위임
- 전북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관광은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역사유적관광의 하나에 편입되어 있었으며, 순례길·축제 등의 자원화는 종단 및 종교 관계자의 각개약진을 통해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음
- 전북 종교자원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살리고, 전북의 종교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비전 및 방향이 담긴 도 단위의 중장기 로드맵을 계획해야 함

### ❑ 종교문화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과제 제시

- 상위법 및 정부의 정책적 흐름,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북 종교문화관광의 정책 방향을 설정, 전략별 목표에 맞춰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과제 제시
- 종교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추진체계, 협업체계 등 정책운영상의 대안 도출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1 연구 내용

### ❑ 정부의 종교관광 정책 흐름 및 활성화 사례 분석

- 종교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종교관광은 「문화재보호법」,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22~2026),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 등 관련 법률 및 법정 기본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정부 정책을 검토하고, 전북 종교관광의 정책적 좌표를 설정하는 데 참조
- 중앙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종교문화유산 활용 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종교유산의 관광자원화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 함의점을 도출
- 종교문화유산의 가치와 이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중점 분석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중점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 전라북도 종교문화자원 활용 현황 분석

- 인문관광자원 및 종교인구, 종교관광자원 방문객, 주변 여건 등 종교문화유산 현황 조사
- 각종 관광통계, 문화통계자료에 기반한 1차 자료, 언론 기사 검색을 통해 종교문화자원 현황 및 실태 파악
- 전북도 및 시·군에서 추진 중인 종교문화유산 관련 조례, 순례프로그램, 종교축제, 종교시설탐방 등 관련 사업 내용 분석

### ❑ 전라북도 종교자원의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방안 제시

- 국내외 관광과 종교 문화유산 관련 트렌드, 중앙정부 정책 동향, 전북 지역 여건, 전북 종교관광 SWOT 분석과 대응전략 방향을 등을 토대로 전북 종교유산 자원화 및 활성화의 미션, 비전, 목표, 전략 등의 정책 방향 제시
- 종교유산 및 기존 관광지와의 접근성·편리성·연계성을 연결, 전라북도 종교관광 활성화 추진 방안 제안. 종단별(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문화시설, 종교성

지 등 종교유산과 주변 자원과의 연계를 고려한 인프라 구축, 관광프로그램, 관광상품, 네트워크 구축 등의 구체적인 관광자원화 방안 제시

-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의 수행성·실현가능성을 높임

## 2.2 연구 방법

### ❑ 학술 및 정책 관련 문헌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각 지자체 등에서 발간한 종교문화원형 활용 및 종교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방안 정책자료집을 참조하여 정부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선진사례 파악
- 종교문화유산 활용, 종교관광에 관한 학위논문, 소논문, 연구보고서 등의 검토

### ❑ 전북도 및 지자체 단위의 기초 자료 검토

- 14개 시·군 종교 관련 지정문화재, 비지정 문화유산, 종교문화행사 및 관광축제, 지자체 지원 사업 등 지자체의 종교문화유산 활용 실태 파악
- 지자체의 종교문화유산 활용의 특성 파악, 종교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 ❑ 종단·종교 관계자 자문 통해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활성화 방안 강구

-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종교 관련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각 종교 관계자의 의견 및 자문 청취(세계종교평화협의회, 천도교전주교구 등)

# 3.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검토

## 3.1 이론적 논의

### 가. 종교문화자원 관련 개념적 정의

#### ❑ 종교문화원형

- ‘원형’이라 함은 근원성, 계보성, 유일성을 기반으로 함. 이에 반해 ‘전형’은 동일한 원리가 반복 적용되면서 내부적인 변화를 인정함. 전형은 형태를 창출하는 원리에 중심을 둠. 무형문화전형은 반복적으로 실현되면서 본질적인 면과 상징적인 면을 드러내는 원리임. 이러한 원리가 바탕이 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음(김진형 2021:47-48).
- 문화원형에는 두 의미가 뒤섞여 있음. 하나는 문화콘텐츠로 재구성되기 이전의 원천자료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문화의 독자성(originality)을 지닌 전형적인 문화자원이라는 의미. 특정한 형식을 통해 문화적 현실로 구현된다는 차원에서는 ‘원형문화’이지만, 원형문화가 문화콘텐츠로 활용되는 원천자료로서 가치를 가진다는 차원에서는 ‘문화원형’이 되는 것임(박종천 2011: 460-461). 다시 말해 종교문화원형은 종교적 원형문화가 문화콘텐츠로 재구성되고 활용되는 단계에서 문화원형의 지위를 얻음.
- 종교문화유산연구소(2008)는 종교문화원형 개념을 “종교의 교리(사상)와 실천(의례)을 유무형의 문화적 형식을 통해 표현하는 문화콘텐츠로서, 종교적 정체성과 역사적 고유성, 원형적 문화가치를 지닌 것으로 설정하고 있음.
- 이윤선(2008)은 무형문화재제도가 민족문화원형이라는 국가적 이데올로기 창출을 기반으로 하였지만 일정한 보존과 보호의 기능을 해왔듯, 최근 문화원형담론은 문화경제주의라는 국가의 산업적 전략을 기반으로 창출되면서 소재주의적 의미로 이해되고 있음을 비판함. 이러한 소재주의적 관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삶의 본질에 천착하는 원형으로서의 의미를 회복할 것을 강조함
- 본 연구 역시 관광활성화 자원(소재)으로서만 종교문화원형을 바라보지 않고 종교문화원형을 통해 급속히 전개된 근대 자본주의의 문제를 성찰하고, 삶의 의미, 깨달음, 생태와 평화로서의 문화원형 가치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 종교문화유산

- 현재 대한민국은 문화재와 문화유산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나, 문화재는 사라질 수 있는 과거의 문화적 산물로서의 정적인 개념인 반면, 문화유산은 현 시대에 기억의 선택, 사람들과의 협의, 사회적 과정으로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음(이현경 외 2019: 23). 국내 문화재정책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도에 맞춰 '문화유산'으로 접근하는 추세임

- 무형문화유산은 전통성과 현대성의 공존, 포괄성, 대표성, 공동체성을 특징으로 하는데(문화재청 2003: 14-15), 종교문화유산 역시 과거의 박제되고 정적인 문화재가 아닌, 현대사회와 연결되며 역동적 가치를 지닌 산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인이나 종교단체의 배타적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적 공유자산이자, 한국인의 정신적 가치,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종교적 신비감과 영적 감동을 줄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접근해야 함

## 나. 종교 문화유산 활용 관련 개념적 정의

### ❑ 종교관광, 종교투어리즘

- 지적 갈등,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를 해소하기 위한 틈새시장이자, 특수목적관광(Special Interest Tourism. SIT)으로서의 종교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특수목적관광은 일반목적관광으로부터 변화되는 관광형태를 일컫는데, 종교투어리즘은 단순관람형이나 휴식형에서 벗어나 특별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관광으로 볼 수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20: 7-10)

- 종교관광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목적에 의해 동기부여된 여행을 말함. 여행동기에 따라 종교적 신성함을 추구할 경우 순례로, 극단적 신성함이 아닌 신앙과 세속 지식에 바탕한 관광을 종교관광으로 구분(Peace, 1991)

- 그리핀과 라즈(Griffin & Raj, 2017)는 종교투어리즘의 성장 요인을 다음과 같이 14가지로 제시. 그리고 종교투어리즘 범위를 전통적 순례에서 세속적 순례에 이르기까지 12가지로 제시함. 오늘날 관광자는 신성과 세속의 경계를 넘나들뿐만 아니라, 순례·치유·휴가·지적탐구·사회적 가치 실현 등 다양한 여행 동기를 추구하기 위해 종교 관련 유적지를 찾고 있으므로 종교 및 영성 기반의 모든 여행을 종교관광으로 정의함

〈표 1〉 종교투어리즘 성장 증가 요인들

| 요인들 | 내용 |
|---|---|
| 진정성(Authenticity) 찾기 | • 세부내용 진정한 경험을 찾는 소비자 추세: 종교·순례지 관련 영적·문화적 전통 몰입 |
| 다양한 상품 제공 | • 다양한 투어리스트 상품 출현: 국가관광위원회 및 관광제공업체의 전통적 관광 시즌 연장 추진 |
| 여행사(Travel Agents) 수 증가 | • 더 많은 여행사: 종교투어리즘, 순례 및 교회투어 제공 |
| 저렴한 항공 | • 저렴해진 항공, 경쟁적인 가격의 장거리 항공(특히 유럽인의 경우) |
| 국내 여행의 인기 강화 | • 테러 위협을 피해 자국 여행을 더 많이 선택 |
| 독특함(Unusual) 찾기 | • 여행에서 더 독특한 휴일이나 더 많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글로벌 문화 |
| 개인적인 믿음 | • 개인적 믿음과 영성의 확인 방법으로 여겨지는 종교여행 |
| 문화 보존 | • 종교와 영성이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 |
| 짧은 휴식의 성장 | • 짧고 빈번한 휴식의 증가에 따른 작업과 여가 패턴의 변화 |
| 미디어 | • 세계의 위대한 순례지와 종교 시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는 미디어 |
| 수익 흐름(Revenue Streams) 찾기 | • 종교적, 건축적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수익을 창출해야 할 필요 |
| 지속가능한 추세(Sustainable Derive) | • 보다 지속가능한 관광 제품을 개발하려는 글로벌 트렌드 |
| 시장확대 | • 세계 관광시장의 전반적인 확장 |
| 인터넷 | • 확대된 인터넷과 온라인 예약 및 스마트 기술 및 소셜 미디어의 사용 |

출처: Griffin & Raj, 2017, p.iii

〈표 2〉 종교투어리즘 상품 범위

| 상품범위 | 내용 |
|---|---|
| 전통적 순례 | • '순례'라는 단어는 참가자가 종교적 헌신의 행위로서 어떤 성지 여행에 참여하고 있음을 암시 |
| 종교투어리즘 | • 종교적인 관광명소를 방문하기(그것들이 성스럽기 때문) |
| 교회투어리즘 | • 종교적이 아닌 문화적·역사적·건축적 이유로 종교시설 방문 |
| 종교행사 | • 종교적으로 동기화된 활동을 포함. 일부는 매년 발생하지만 많은 이벤트는 특정한 유적지/위치가 아니며 정기적으로 다른 위치에서 개최됨 |
| 선교사 및 자원봉사 | • 이 형태의 여행 참여는 대체로 교회나 자선단체를 위한 자발적인 작업 |
| 묵상(retreat, 피정) | • 수도원 방문과 게스트 숙박 등 (묵상은 신과 [재]연결하기 위한 명상이나 기도의 내적 활동) |
| 학생/청소년활동 | • 나들이에서 주거용 캠프까지. 종종 영적 가르침과 개인적 발전뿐 아니라 재미와 모험 수반 |
| 신앙기반 크루즈 | • 레크레이션 크루즈 관광(바다, 강·호수 기반)은 다양한 문화·역사·종교, 자연경관 및 기타 투어리스트 시설의 방문과 결합. 이 부분은 종교 투어리즘 시장에서 빠르게 확대된 변화임. |
| 종교적 경로 | • 종교 산책로/경로는 미리 정의된 경로를 따라 목적을 갖고 여행하는 전통에서부터 호의를 구하고 부정행위의 용서 또는 다른 종교적 동기로 진화하면서 더 중요해짐 |
| 레저/펠로우쉽휴가/휴양지 | • 신앙 기반의 교제/관심 그룹과 비종교적 성격의 활동에 참여. 활동은 연극, 모험, 하이킹, 교육 또는 당일 사교 여행 등 다양하며, 참가자는 청소년 그룹부터 모든 상상 가능한 조합임 |
| 영적 순례 | • 영적 성장의 의도를 갖고 평소 환경 밖의 장소를 방문하기 (영적 성장의 의도가 종교적일 수 있지만, 비종교적 의도와 성스럽거나 경험 의도 포함) |

| 상품범위 | 내용 |
|---|---|
| 세속적 순례 | • 영웅의 무덤, 환경적/인간적 비극 장소, 전쟁 장소, 조상의 고향 등의 방문이 순례로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름. 그러나 의도적 또는 실수로 규범을 넘어 개인의 신념체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하고 변화적 경험을 포함한 여행은 점차 세속적 순례로 인식됨. |

출처: Griffin & Raj, 2017, p.iv

## ❑ 성지순례, 성지순례여행, 성지순례관광

- Turner & Turner(1978)에 의하면, 성지순례는 사람들이 그들의 구조화된 역할과 상태인 일상세계로부터 그들이 평범하고 일반적인 인간성의 종교축제를 통하여 반조직적이거나 혼돈/무질서(communitas)의 세계로 들어가는 신성한 장소로의 이동을 의미

- Turner & Turner(1978)는 순례자는 반쯤은 관광객이고, 반쯤은 순례자라고 함. Pfaffenberger(1983)는 순례와 관광의 분류는 문화적으로 생성된 언어의 상징, 순례에 대한 신념 그리고 관광자에 대한 휴양 혹은 본성에 대한 이해에 달려있다고 함. Graburn(1983)은 관광을 즐거움의 표면과 연결시키고 관광을 개인이 일하는 세계로부터 놀이하는 장소로 탈출하는 성스러운 여정으로 묘사. Smith(1992)는 순례와 관광을 구별하는 방법의 하나로 관광의 세 가지 기본요소를 자유재량소득, 레저시간, 그리고 사회적 인정이라고 함

- 성지순례여행(pilgrimage tourism)은 종교관광 하위 개념으로 사용. Pain(2006)에 의하면, 성지(聖地)는 성인의 유품이나 신체의 일부인 유골이 존재하는 장소, 성스러운 의미를 지닌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의례의 봉헌을 통해 성스럽게 만들어진 장소, 영적 감동을 주기 위해 건설된 건축물이나 정원, 영적 의미가 부여된 장소, 본래 성스러운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고 믿어지는 장소

- 성지순례여행이란 역사와 유서가 깊은 성지를 믿음으로 방문하는 문화관광의 한 형태로서, 사전적 의미로는 '순례자 또는 성지 참배자가 성지를 방문하여 신앙행동을 보이는 여행'을 뜻함(김흥식·이나래 2011) 이러한 성지순례여행은 종교적 문화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현상 중 하나이며, 세계 주요 종교는 이러한 현상을 신앙생활 또는 종교활동의 일부로 여기고 있음(Collins-Kreiner & Kliot, 2000)

**〈표 3〉 성지순례여행의 정의**

| 연구자 | 정의 |
|---|---|
| Hudman & Jackson (1992) | • 신의 명령을 수행하거나 혹은 신에 대한 헌신을 하거나 개인과 가족의 보상을 얻기 위하여 성전 혹은 거룩한 장소로 가는 여행 |

| 연구자 | 정의 |
|---|---|
| Barber(1993) | • 외적으로는 성지참배를 내적으로는 신앙심의 고취와 내면세계의 이해 등 종교적 이유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 |
| Fish & Fish(1993) | • 특정종교에 대한 믿음을 가진 순례자들이 해당 종교의 성지나 사원 등을 방문하는 여정 |
| Vukonic(1996) | • 정화, 구원, 치료 등의 목적으로 거룩한 곳을 방문하는 것이며 신자들이 신선에 의하여 거룩하게 된 장소를 여행하는 것 |
| Oursel(1998) | •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 생활, 습관, 가족 등을 떠나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어떤 거룩한 땅을 찾는 자발적이고 사심 없는 행동 |
| 도경록(2000) | • 종교적인 목적에 의해 동기 부여된 여행 |
| 권종현 · 정익준(2007) | • 성경의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며 성지에서 예배를 통하여 복을 빌며 신앙심의 제고를 위하여 하는 여행 |
| 김흥식 · 이나래(2011) | • 역사와 유서가 깊은 성지를 믿음으로 방문하는 문화관광의 한 형태로 사전적 의미로는 순례자 또는 성지 참배자가 성지를 방문하여 신앙행동을 보이는 여행 |

출처: 이양림·김영미, 2018, p.160

## ❑ 영성관광

- 산업화 이전에는 영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장소는 종교와 관련된 장소로만 한정이 되어 있었고, 영적인 경험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변찬복 2013). 하지만 현대인들은 종교적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영성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 갖춰져 있고, 비종교인이라도 영적인 경험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이윤정 2019)

- 영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연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삶의 영역,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성에 주목함(이윤정 2021: 106-110)

- 영성관광(spiritual tourism)이라 칭할만한 관광들은 종교관광, 성지순례, 힐링관광, 웰니스관광 등이며, 국내 대표적인 영성관광의 사례로 템플스테이가 있음(이윤정 윗글: 106). Norman(2011)에 따르면 영성관광자들은 의도를 가지고 영적인 행위에 참여하거나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영성관광에 참여. Cheer et al(2017)은 영성관광의 동기를 세속적인 동기(웰니스와 힐링, 자아성장, 자아탐색, 사회화, 여정, 여가)와 종교적인 동기(종교 의식, 의식화된 관행, 특별한 행사, 사회화, 정체성, 문화적 관행)로 구분. 이윤정(2021)은 Cheer et al은 영성관광의 외연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

- Abdul Halim et al(2021)은 최근 영성지능모델을 통해 영성관광의 차원의 7가지 차원으로 규명한 바 있음. 영성관광에서 핵심은 초월성과 삶의 목적/의미에 있으며(고영건·김진영 2012), 이 두 가지 구성요소로 영성관광을 정의한다면 영성관광객들의 행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임(이윤정 2021: 116)

**〈표 4〉 영성관광의 7가지 차원**

| | 영성관광의 차원 |
|---|---|
| 제1차원 | • 삶의 목적/의미 (Meaning/Purpose in life) |
| 제2차원 | • 자각(Consciousness) |
| 제3차원 | • 초월성(Transcendence) |
| 제4차원 | • 영적 자원(Spiritual resources) |
| 제5차원 | •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
| 제6차원 | • 성찰 – 영혼정화(Reflection- Soul purification) |
| 제7차원 | • 장애물에 대한 영적인 대처능력(Spiritual coping with obstacles) |

출처: Abdul Halim et al, 2021, p.128

## ❑ 웰니스 관광

- 웰니스(Wellness)는 육체와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well-being, 참살이)에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결합한 합성어임.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지식경제부가 웰니스를 “건강한 활동을 위한 인간의 상태, 행위, 노력으로, 육체적·정신적·감성적·사회적·지적 영역에서 최적의 상태를 추구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함(한국관광공사, 2018)[1)]

- 사회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심신의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자연을 기반으로 심신을 치유하고 안정시켜 주는 웰니스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음

  -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부족 등으로 인해 우울증, 만성피로, 불면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을 겪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으로 만성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건강 지향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

- 웰니스 관광은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관광을 통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를 의미함(한국관광공사, 2018)

  - 웰니스 관광은 여행을 통해 생명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질병의 징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전반적인 웰빙 패러다임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한국관광공사, 2018)

- 종교문화는 웰니스 관광과 관련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한 대표적인 자원으로 볼 수 있음. 불교의 템플스테이는 대표적인 종교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성장하였으며, 대중적으로도 인지도와 인기가 높음

1) 한국관광공사, 2018,「웰니스관광 클러스터 모델 개발 연구」

## 3.2 선행연구검토

### 가. 종교문화유산 연구

#### ❑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가치 탐색 연구

- 윤선자, 2005,「근대문화유산과 종교건물」
  - 근대종교건물 현황 및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근대종교건물을 살피고, 종교건물의 근대문화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한 연구
- 이재수, 2017,「인류무형문화유산 분야 종교의례 등재 현황과 연등회 등재의 과제」
  - 유네스코 종교의례 등재 현황과 특징,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의의를 살핀 후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
- 강봉석, 2022,「종교문화유산보존법제에 대한 검토」
  - 국내 종교문화유산보호는 주로 불교 및 유교에 국한되어 있음. 개신교, 기독교, 원불교 등의 종교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함. 독일의 종교문화유산보호법제에 착안, 한국 종교문화유산보호법제에 필요한 사안을 다룸
- 조민영, 2022,「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입법론」
  - 종교문화유산법제화를 위해서는 현안중심의 실제적 입법이어야 하며, 입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종교문화유산 보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함. 제명, 법체계상의 지위, 입법안 개관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안함

#### ❑ 종교문화유산 활용 방안 연구

- 한국종교문화유산연구소, 2008,『종교문화원형 발굴 및 활용방안』
  - 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민족종교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원형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종교문화원형 발굴 및 정리,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임. 이 외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소개하고, 통합적 종교문화원형을 제안하고 있음
  - 이를 위해 1단계 기반 조성 사업, 2단계는 세부 콘텐츠화 추진 사업, 3단계는 킬러콘텐츠 도출 및 콘텐츠 종합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한국종교문화유산연구소, 2010,『종교문화원형 활용 콘텐츠 성공사례 조사 연구』

- 국내외 종교문화콘텐츠 성공 사례에 대한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개념적 지표 개발. 지표에 적합한 이론적 틀 정립

- 남양성모성지 십자가의 길(한국. 가톨릭 성지문화원형활용), 오색원(일본. 복합형 종교공원), 동방문화원(중국. 종교문화 테마공원), 이미지오브싱가포르(싱가포르. 다문화사회 화합형 종교문화박물관), 세계종교박물관(대만. 포용형 종교박물관), 홀리랜드(미국. 종교테마파크) 사례 검토

○ 동국대산학협력단(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2010,『전통문화 성지 순례코스 개발 연구: 한국정토신앙 48사찰을 중심으로』

- 한국정토신앙을 소재로 정토신앙 순례코스를 개발하여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상품 창출을 목적으로 함. 총 48곳의 사찰을 선정, 성지순례코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한국교회사연구소, 2012,『한국 천주교 문화유산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 한국 천주교 문화유산 실태 파악과 활용방안 탐구를 통해 신자, 일반 대중, 외국인 순례객·관광객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함. 해외 및 국내 천주교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례를 살핀 후 서울 소재 천주교 문화유산 활용방안을 제시함

○ 김진형, 2021,「종교문화콘텐츠의 전형과 인류가치적 계승방안: 전북 세계종교문화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 전북 세계종교문화축제 현재적 전형을 정립하고 그 문제점을 진단한 뒤, 문제극복을 위한 미래적 전형을 확립하기 위해 종교적 화합을 목표로, 공동으로 주도하며, 인류가치 반영된 기념일 지정, 다종교 융합콘텐츠  실현, 종파 구분없는 성지 순례 등을 제안함

○ 문화체육관광부, 2021,『종교문화관광자원 활용방안연구』

- 종교문화관광 개념 및 성립요소, 종교투어리즘 유형을 살펴본 후 지역별·종교별·종류별 종교문화자원 현황을 정리,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종교문화관광자원 활용 가능성을 제언

○ 김해시, 2017,『가야불교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문헌연구 용역 보고서』

- 가야불교와 문화에 관한 원전 및 사료를 훑어본 후 김해 불교자원 현황을 개괄하여 가야불교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이민휘, 2020,『전주지역 종교문화유산 활용방안 연구: 천주교와 개신교를 중심으로』

- 전주지역 천주교, 개신교 문화유산 가치와 특징을 밝히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한 연구. 천주교의 경우 전주 외곽 산간지역의 교우촌 관련 유산, 처형지, 근대 서양 건출물을, 개신교의 경우 선교기지 문화유산, 근대 학교·병원 건축물, 서양 선교사 사택이 있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답사코스 개발, 축제 개최, 교과서 제작, 청소년해설사 양성 등을 제안

## 나. 종교관광 연구

### ❑ 종교관광 개념 및 특성 연구

- Park, Eui-Suh, 2011,「Policy Direction and Successful Cases of Korean Religious Tourism」
  - 종교관광 시장규모의 급성장으로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는 종교관광 현황과 정책을 제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한국종교관광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지 서술
- 송현동·김경한, 2011,「한국 종교관광의 특성과 과제」
  - 한국 종교관광은 순례와 관광의 경계가 모호하며 일반인 대상의 종교문화체험관광, 명상관광, 관주도 종교관광상품 개발이 주류를 이룸. 관 주도 개발은 종교간, 지자체, 지역과의 갈등을 유발함. 종교인, 비종교인을 포함해 종교관광 참여자들의 동기와 경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요구
- 이윤정, 2021,「영성관광 개념화에 대한 재고」
  - 국내 관광학계에 영성관광 연구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영성관광의 재개념화를 시도하면서, 국내 영성관광의 사례로 템플스테이 분석. 템플스테이는 현재 종교관광, 불교문화체험관광으로 논의가 되지만 영성관광의 한 유형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

### ❑ 종교관광자 관광행태 및 만족도 연구

- 조영신, 2008,「IPA를 적용한 종교관광 선택속성 탐색」
  - 종교관광 선택 요인에 동반자, 연령, 학력, 직업 등에 따라 차이가 뚜렷하므로 인구통계학적 시장세분화를 통해 맞춤 홍보와 매출촉진 방안을 강구해야 함. 다양한 종교의 성지와 종교행사를 발굴·홍보하는 적극적인 종교관광 마케팅이 필요함
- 김경희, 2009,「기독교 성지순례 참가동기 및 매력속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특수한 주제관광, 관광매력지의 하나로 기독교 성지를 바라보고, 참가자의 관여도에 따라 성지순례 참가동기 및 성지매력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한 연구
- 오정근, 2013,「종교관광의 참가동기 및 매력속성과 참가자만족 간 영향관계: 기독교 성지순례를 중심으로」

- 기독교성지 방문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신앙적 체험이 참가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권봉헌, 2016,「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관광학의 개념 및 성지순례관광에 관한 연구」

- 관광학적 관점에서 성지순례관광의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 기독교적 순례관광이란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했던, 메시아의 행적을 현장에서 믿음으로 증거하고, 그 제자가 메시아 뜻을 받들어 행했던 곳에서의 역사의 사실들을 찾아 확인하는 행위. 신앙인에게는 그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고, 비신앙인들에게도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동기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이일주·고주희·이수호, 2016,「관광활동특성에 따른 여행산업의 종교관광 상품개발 기본 연구」

- 여행업을 토대로 전문적인 종교관광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여행업의 종교관광 활성화와 체계화를 위한 종교관광 상품개발을 관광활동 특성에 따라 상업화할 것을 제안

○ 최병석·최종률, 2018,「종교관광 참가동기와 만족도의 인과관계 및 차이 연구」

- 서울·인천 지역의 1년 이내 종교관광 경험자를 대상으로 종교관광 참가동기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연구. 신앙심제고, 성지(유적) 견학이 높으면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 해당 종교의 신앙을 높이는 성지, 성인, 기도소 등의 장소, 종교행사 참여 시간 고려한 여행상품 개발 필요

○ 이양림·김영미, 2018,「구성주의적 근거이론을 통한 성지순례자의 관광동기: 기독교 성지순례자를 대상으로 종교관광 상품개발 기본 연구」

- 최근 3년 이내 이스라엘 성지순례여행을 다녀온 32명을 대상으로 성지순례여행 동기를 이해하려는 연구임. 성지순례여행 동기를 사회적 탐구, 종교체험, 믿음체험으로 구분. 사회적 탐구는 일상탈출, 교육, 신기성, 사회관계 촉진. 종교체험은 성스러운 분위기 경험, 다른 문화경험, 영적 위안 추구. 믿음체험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함, 일생의 성취감, 영성 체험

○ 백규리·이계희, 2021,「종교관광 경험이 여행자의 만족과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성지순례를 중심으로」

- 종교관광경험이 영적·감성적 연결, 정신적 고양, 새로움 발견, 휴식 및 평안감, 상호작용 및 소속감 등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 종교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정병웅, 1997,「사찰관광개발을 통한 종교관광활성화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사찰은 관광자원으로 여러 기능을 가지며 훌륭한 관광매력물이므로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주장
- 경남발전연구원, 2008,『종교관광과 경남의 정책과제』
  - 경남 종교관광 활성화를 위한 7가지 대안 제시. 1)종교관광에 대한 긍정적 시각 조성 2)종교인의 종교관광과 일반인의 종교관광 활동 차이점 규명 연구 수행 3)종교본연의 신성함 보전을 통한 종교관광개발 4)차별적 콘텐츠 발굴 및 활동적 프로그램 연출 5)표적시장 세분화를 통한 마케팅 방안 수립 6)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품개발로 관광객 소비촉진 유도 6)종교간 화합 증진을 위한 종교관광지 연계 강화 등
- 최영기·양영관, 2010,「종교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례 연구: 천호성지를 중심으로」
  - 한국의 대표적 종교성지인 천호성지를 체류형 종교체험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전략 제시. 1)성지문화체험 휴양명소 2)천호성지 매력요인 발굴 및 차별성 강화 3)천호성지 원형 및 가치보전
- 송현동, 2017,「전주한옥마을과 종교: 종교관광콘텐츠를 중심으로」
  - 전주한옥마을을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한국종교문화순례길 개발, 종교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 종합종교박물관 건립 등을 제안
- 김진영, 2018,「증산 순례길 제언」
  - 증산 순례길을 대순진리회만의 전유물로 보지 않고, 정신 치유이자, 걷는 동안 영혼 속의 고통에 자아를 개방하는 점진적 과정으로 보고 길을 걸어볼 것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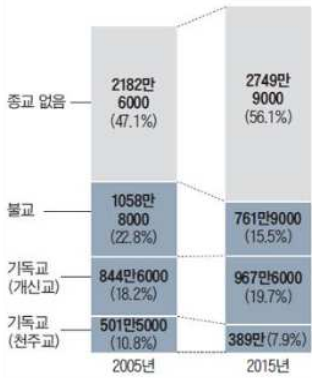
# Ⅱ 정책 환경과 사례 분석

# 1. 종교 관광 여건과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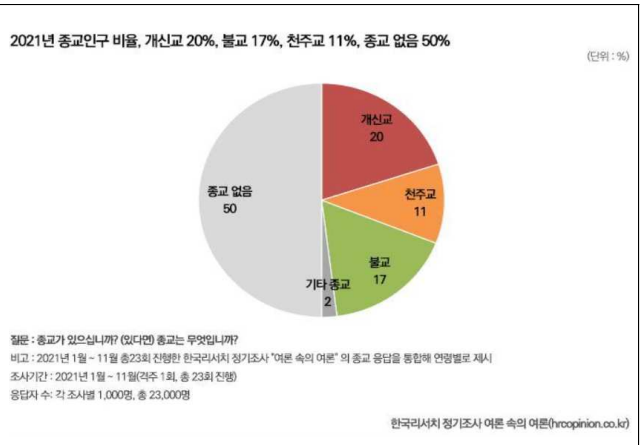
## 1.1 종교관광 여건과 잠재력

### ❑ 우리나라 종교 현황

-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있는 국민은 43.9%이고, 종교가 없는 국민은 56.1%임
  - 해당 조사는 10년마다 통계청이 실시하는 조사임
- 2015년 기준, 신자 수가 가장 많은 종교는 개신교로서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서 개신교를 믿는다는 사람이 19.7%(967만 명)이고,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은 15.5%(761만 명)로 나타남. 천주교는 7.9%(389만 명)임
  - 종교가 있다고 답한 국민의 98.3%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세 종교를 가지고 있음
  - 나머지 1.7%는 원불교·유교·천도교 등의 순서임
- 한국리서치가 2021년 한 해 동안 23번 종교인구 현황 및 종교활동과 관련된 조사를 수행해 종합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2], 종교가 있는 경우가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함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그림 출처: 조선일보
2016년12월20일자 기사 “신자 수, 개신교 1위… "종교 없다"




자료: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158-2호)-2021년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활동 보고서
그림 출처: https://www.theosnlogos.com/entry/

〈그림 1〉 우리나라 종교 인구 현황

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의 '2021년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활동' 설문조사 결과임

- 또한,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0%가 개신교이며, 불교는 전체의 17%, 천주교는 전체의 11%를 차지함. 이밖에 종교를 믿는 사람은 2%로 나타남
- 개신교 신자들은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51%를 차지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천주교와 불교 신자 가운데 각각 25%, 2%가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코로나19 이후, 치유와 힐링 욕구 증가

- 2010년 이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신적 만족감과 풍요로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관광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함
-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심적인 안정, 정화 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욱 크게 증가하였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향하고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보다 쾌적하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의 여행을 선호하는 등의 변화 경향이 강화됨
  - 팬데믹 이전에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로컬 여행 선호 추세가 나타났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욱 확대됨
  - 세계관광기구의 Tourism Barometer(2020)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농촌, 자연, 건강 등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관광분야'가 부상함

### ❑ 종교관광의 최근 흐름

- 과거에는 특정 계층, 종교인 등 소수가 신앙 활동의 일부로 행하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좀 더 폭넓은 대상이 치유와 힐링의 목적으로도 종교관광에 참여하고 있음
- 종교관광을 융합관광 콘텐츠의 일환으로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음. 종교라는 사회적·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융합관광의 일환으로 다양한 관광 요소와 결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를 부각하여 살펴볼 수 있음
- 종교 문화, 자원이 갖는 의미와 특성을 살리되 치유, 힐링 관점으로 접근하여 웰니스 관광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음. 웰니스는 건강한 선택을 통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함께 추구하는 적극적인 건강지향주의를 의미함(한국무역협회, 2021)
-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관광 프로그램 중 하나인 템플스테이 등은 웰니스 관광 상품으로 소개되고 있음

## ❑ 웰니스 관광 수요 증가

- 물질적인 가치 추구에서 벗어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요가나 명상과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함. 삶의 질 향상과 정신적 안정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음
- 과거 종교 단체에서 추진하는 종교인 대상 단체 여행에서 벗어나 자신의 종교 여부나 종교 일치성과 관련 없이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새로운 경험이나 행복, 만족 추구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종교관광을 하려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 여행기간 동안 최대한 배우고자 하며, 삶을 윤택하고 충만하게 하는 경험을 가지려는 욕구와 체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큼(정연정, 2016)
- 웰니스 관광으로 범위를 넓혀 수요를 살펴봄. 2017년 익스피디아 조사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9명(90.7%)가 웰니스 여행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특히 30대 응답자 가운데 95.5%는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세계웰니스협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웰니스 관광시장 규모는 6,390억 달러(약 730조 원)로, 매년 6.5%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이는 전반적인 관광시장 성장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임[3)]

3) 한국웰니스산업협회(http://k-wellness.or.kr/board/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45)

## 1.2 종교관광 정책 현황

### ❑ 문화체육관광부 종교관광 정책

○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정책

- 정부는 관광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기본법을,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관광진흥법을 시행하고 있음
- 종교관광은 최근 관광트렌드의 하나로 주목받는 종교관광은 한국의 관광사업 및 관광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정책[4)]

- (정책 방향) 종교 간 화합과 사회적 활동 지원으로 건강한 종교문화 조성·발전, 종교별 차별화된 종교문화행사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 전통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문화적 활용 확대
- (주요 예산사업)
  - ★ 종교문화활동 지원('22년 예산: 23,396백만 원): 국제종교교류협력, 종교의 사회적 통합기능 강화, 공직자 종교 차별 예방시책 추진, 종교문화행사 지원
  - ★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22년 예산: 27,954백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등
  - ★ 종교문화시설 건립('22년 예산: 9,160백만 원): 기념관, 체험관, 역사관, 교육관, 수련원, **순례길** 등
- (주요 정책) 종교문화자원을 활용한 치유순례길 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체험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5)]

- 사업목적: 전통종교(불교, 유교) 및 전통문화 유산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전통문화를 한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
- (사업 내용)
  - ★ 사업기간: 04년~ 단년도 계속사업
  - ★ 사업추진방식: 민간경상·자본보조, 지자체경상·자본보조
  -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 조건: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한국불교문화사업단), 성균관, 개별서원향교, 한국문화재재단 / 정액, 자치단체 / 정률(20% 등)

4)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참고
5)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도 관광부문 재정집행계획 참고

★ 사업내용: 템플스테이 지원, 서원향교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개보수 지원, 선비문화연수원 지원, 전통문화 활용 사업 발굴 및 지원

- 2022년 예산 계획: 34,748백만 원

★ 템플스테이 지원: 24,600백만 원

★ 전통문화체험시설지원(서원향교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6,708백만 원

★ 전통문화 활용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 3,440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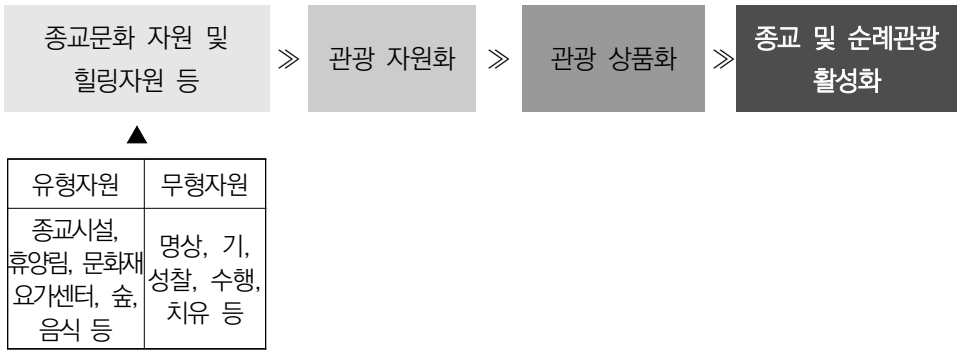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2~'31)에 "종교 및 순례관광 활성화"를 포함함

- 최근 건강과 명상을 테마로 한 치유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연계하여 종교 유산과 종교 기능을 활용한 순례, 명상 등 프로그램 확대를 제시함

• 종교 및 순례관광은 문화관광의 한 범주로서 특수목적관광(SIT)이며 종교, 명상(수행), 치유(healing, 마음치유), 성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마음(정신)치유, 정신고양, 자아성찰 등에 관광을 통해 참여하는 행위

• 융복합 콘텐츠로서 종교 및 순례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 개발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 인프라 기반조성으로 기존 종교시설을 활용하여 관광수용태세 확충 및 정비 개선(기존시설 보수 및 정비, 교통시설 등 지역 연계 기반 구축 등)
-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로서 종교 자원을 활용한 문화축제 이벤트 발굴, 맞춤형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외래관광객을 위한 관광자원 연계상품 개발, 종교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스토리뱅크 구축
-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종교 및 순례관광 관계자 간 자문, 협의회 구성, 정기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그림 2〉 종교 및 순례관광의 단계별 구상(안)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2),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2022~2031, p81

## ❑ 문화체육관광부 웰니스 관광 정책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내에 웰니스, 마이스 등 융합관광 산업 영역 확장 관련 내용을 포함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 치유 차원에서 웰니스 관광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지역 웰니스 관광자원 개발 지원 추진 및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23년~), 기술개발 연구과제 발굴('22년~) 등 웰니스 산업 육성
- 「(가칭)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중('22년 관련 연구 수행)에 있음. 웰니스 관광의 정책적 영역과 법제화의 구성 요소를 연구하고, 웰니스 관광의 효율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화 추진
- 법적 기반 마련으로 웰니스 관광의 효율적 육성과 활성화가 기대됨

○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추천 웰니스관광지 선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웰니스관광지 51개소가 선정되었고,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3개 지역이 선정됨
- 추천 웰니스 관광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의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함. 한방, 힐링/명상, 뷰티/스파, 자연/숲치유 등을 테마로 매년 10개소 내외를 선정함
- 2017~2021년까지 힐링/명상 부문에는 12개소가 선정됨

**〈표 5〉 연도별 추천 웰니스 관광지(힐링/명상 부문) 신규 선정 현황(2017년~2021년)**

(단위: 개소)

| 구분 | | 시설 수 | 시설명 |
|---|---|---|---|
| 2017년 | 힐링/명상 | 3 | • (강원/홍천)힐리언스 선마을, (충북/충주)깊은산속옹달샘 아침편지 명상치유센터, (제주/서귀포)WE 호텔 웰니스 센터 |
| 2018년 | 힐링/명상 | 2 | • (서울)비스타 워커힐 웰니스클럽, (강원/정선)파크로쉬 리조트&웰니스 |
| 2019년 | 힐링/명상 | 4 | • (제주/서귀포)취다선 리조트, (전남/보성)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강원/원주)뮤지업 산 명상관, (경남/거제)한화 벨버디어 웰니스 |
| 2020년 | 힐링/명상 | 1 | • (경북/영덕)인문힐링센터 여명 |
| 2021년 | 힐링/명상 | 2 | • (강원/정선)로미지안 가든, (충북/증평)좌구산 자연휴양림 |

○ 2021년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웰니스 관광자원 디렉토리북」에 템플스테이, 피정의 집, 서원스테이 등 종교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검토함. 명상, 치유순례, 음식체험, 인문치유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들을 소개함[6)]

6) 템플스테이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에 따라 최종 DB에는 대표 사례만 포함하고, 그 외 사례는 별도 목록을 부록으로 정리함. 종교관련 시설 중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정의 집은 웰니스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템플스테이와 달리 일반 관광객들의 참여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최종 DB에는 제외함(한국관광공사, 2021)

### ❑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문화유산 관리 정책

- 종교관광의 주요 자원이 되는 종교시설 등은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인 경우가 많으므로,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에 준한 문화재 관리 정책을 활용할 수 있음
- 문화재보호법에 해당되는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이며, 지정 주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 등록문화재로 나뉨. 종교유산의 상당수가 유무형문화재 및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음
- 이 외에, 문화재청장은 국내 문화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신청할 수 있으며,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음 가치가 큰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전북의 종교유산: 원불교 익산성지, 신흥고등학교 강당 및 본관포치, 김제증산법종교본부영대및삼청전 등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전북의 종교유산: 정읍 무성서원(유교), 백제역사유적지구(불교)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토지 및 수중에 매장된 유형의 문화재, 건조물 등의 문화재, 지질학적 가치가 큰 것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발굴 및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사찰 등의 불교 유적·유물은 매장문화재 발굴 유산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음.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22~2026)에 따르면, 종교관광으로의 문화재 활용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책환경 변화와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문화재 관리체계를 전환하고자 함
  - 생생문화재, 향교·서원문화재 활용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이 2017년 250건에서 2021년 400건으로 증가
  - 문화재를 지역재생의 원동력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소재로 인식
  - 중점보호주의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포괄적 문화재 보호체계를 도입함
  -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20~'24)를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문화재청은 미래유산 발굴을 추진함. 훼손 위험에 처한 근현대유산 보호를 위해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활용법 제정 추진 및 전통조경 등 미래가치가 높은 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훼손 위험이 있는 근현대유산 긴급보호를 위한 '임시등록', 50년 미만 현대유산 보호를 위

한 '예비문화재',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 전통조경 기본계획('22~'26)에 따라 전통조경 유형별 복원·정비 기준 마련 등
- '한국 유산 길'(Korean Heritage Trails), 섬·해양유산, 종가문화 등 다양한 유산의 미래가치 발굴

○ 문화재청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 중임. 근대건축자산이 집적된 지역을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하여 정비 및 경관회복을 통해 지역 재생을 활성화함. 이러한 공간 정비를 토대로 관광목적지로 육성이 가능함

-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18~'21) 총 8개소 지정(군산·영주·익산·영덕·통영·목포·서천·창원), ('22) 진해와 판교 2개소 추가
-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내용: 훼손·변형된 근대건축자산 정비, 관람 편의시설·경관조명 설치, 활용 콘텐츠 제작 등

○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이 문화유산방문 캠페인 프로그램을 추진함

- 2022년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10개의 길을 방문코스로 제안함. 이 가운데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서 산사의 길을 포함함. 방문코스에 대한 지도와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스탬프투어를 통해 기념품을 제공함
  - ★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통도사(양산), 부석사(영주), 봉정사(안동), 법주사(보은), 마곡사(공주), 선암사(순천), 대흥사(해남) 등 7개의 사찰을 주요 대상으로 함
- 글로벌 홍보 영상을 비롯해 다양한 기획사업과 문화재 야행, 세계문화유산축전 등 연계사업을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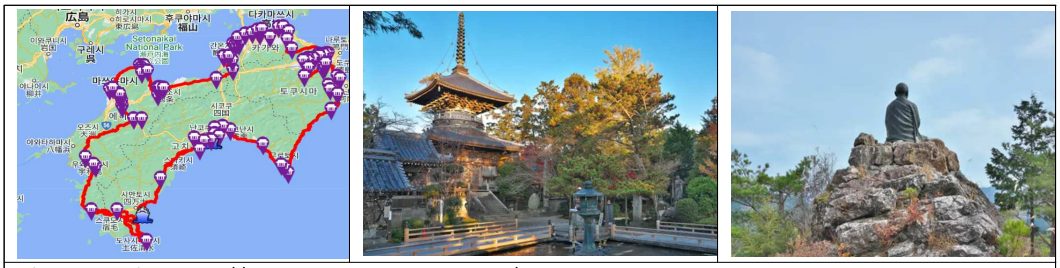
# 2. 종교 관광 참고 사례

## 2.1 분석 사례

### 가. 순례자의 길

#### ❑ 일본 시코쿠 순례길

- 시코쿠 순례길은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원형 순례길 가운데 하나임. 순례길 코스에는 9세기 구카이(고보 대사)가 수행 또는 머물렀다고 여겨지는 88개의 '공식' 사찰과 그 밖의 성지들이 포함되어 있음
  - 12세기 무렵의 문서에 최초로 시코쿠 순례에 관한 언급이 있지만 특정한 사찰이나 경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음
  - 88개의 사찰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순례길은 16세기 말부터 17세기경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에 들어 도로가 발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차나 버스를 이용해 순례길을 이용함




자료: 구글맵, https://www.tsunagujapan.com/

〈그림 3〉 시코쿠 순례길과 사찰



자료: 시코쿠 관광 사이트(https://shikoku-tourism.com/)

〈그림 4〉 시코쿠 순례 형태

- (순례길 총 거리) 순례길은 도보 기준 약 1,200km이며, 시코쿠 지역의 자연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가장 전통적인 순례 방식인 도보를 이용할 경우, 하루 평균 30km 기준 약 6주가 소요됨
- 전세 버스를 이용할 경우 약 9-12일이 소요됨. 여행사 및 버스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전세 버스가 있으며 각 버스에는 공식 가이드가 동행함
-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약 10일이 소요됨
- 기차, 버스 등의 대중교통과 도보 방식을 혼합하여 순례할 수도 있음

○ (순례 동기와 욕구) 순례길을 걷는 관광객들의 동기와 욕구는 다양함. 종교적인 이유부터 치유나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또는 세상을 떠난 이를 기리기 위해 등까지 다양한 이유로 순례길을 찾음. 이밖에도 단지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가를 즐기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등 순례객들의 동기와 욕구가 다양함

- 순례길을 종교적 관점보다 치유의 여정으로 보는 측면이 강함
- 각 사찰에서 제공하는 스탬프를 완성하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는 여행이 되기를 기대함

○ (순례 복장과 물품) 순례길을 따라 많은 사찰과 상점에서 순례 복장과 물품을 판매함.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전통적인 의복 형식이며 최소한 흰색 조끼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함. 이를 통해 순례 중임을 나타내어 지역주민들의 환대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삿갓(菅笠: 스게가사): 순례길 이동시, 태양이나 비를 가리는 데 유용함
- 흰색 조끼(白衣: 하쿠이, 하쿠에): 순례자가 착용한 흰색 조끼는 순수함과 순결함을 상징함. 과거에는 순례자가 항상 죽음을 대비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수의의 의미를 가졌음
- 염주(数珠: 주주): 염주는 일본인에게 매우 친근한 종교적 물건임. 두 손을 모으고 염주를 들면, 마음의 상념이 사라지고 좋은 기운이 온다고 믿음
- 종(持鈴: 지레이): 불경을 암송한 후에는 항상 종을 울려야 함
- 가방(頭陀袋: 즈다바쿠로): 초, 향, 이름표, 순례 책자 등을 넣는 데 사용함
- 가사(輪袈裟: 와게사): 완전한 법의의 상징으로 그 사람의 헌신을 나타냄
- 지팡이(金剛杖: 곤고즈에): 순례자에게 순례길을 안내해 주는 고보 다이시의 현신이라고 함. 과거에는 순례 여정에서 죽음을 맞이한 순례자의 무덤을 표시하는 표식으로 지팡이를 사용함
- 명함(納札: 오사메후다): 이름, 주소, 날짜, 소원을 적고 본당과 대사당에 있는 명함 상자에 넣음
- 순례 책자(納経帳: 노쿄초): 순례자가 각 사찰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책자

임. 각 성지에서 참배 후에 서명과 도장을 받을 수 있음





자료: 시코쿠 관광 사이트(https://shikoku-tourism.com/)

〈그림 5〉 시코쿠 순례 복장과 물품

- (여행 코스) 개인적으로 순례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1박2일 일정으로 구성한 9개의 여행 코스를 제공함
  - 다른 관광지와 함께 순례길의 일부를 경험하고 싶은 욕구를 지닌 관광객을 위하여 코스를 구성함
  - 시코쿠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음식, 독특한 장소 등을 연계함

## ❑ 신안 순례자의 길, 섬티아고 (섬)

- 신안군의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는 2017년 전라남도 가고싶은 섬 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12km의 '순례자의 길'을 조성함
- 신안군에 소재한 5개 섬(대기점도-소기점도-소악도-진섬-딴섬)에 트레킹 코스 '섬티아고'를 조성함. 이들 섬에 예수님 12제자의 집을 세우고, '순례자의 길'을 만듦. '12사도의 집'을 찾아가는 코스를 마련해 스페인의 산티아고 이름을 본 떠 '섬티아고'라고도 불림
- '12사도의 집'을 조성하고 길(코스)로 연결하여 '순례자의 길'이라 이름 붙였으며, 12사도의 집을 해외 및 국내 유명작가 11명에게 창의적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이 특징임
  - 12사도의 집은 건축미술 작품이며, 작은 예배당임. 제각각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갯벌 등에서 채취한 재료와 주민들이 오랜 생활 도구 등을 건축 재료로 활용함
- '12사도 집'을 찾아가는 '순례자의 길'은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적인 명칭이나 종교 여부와 상관없이 섬을 연결하는 길을 걸으며 자연경관과 바람을 즐길 수 있어 도보 여행자를 비롯해 자전거 여행자들도 많이 찾음

- 각 종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자, 종교가 없는 이들에게는 마음을 다스리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됨




〈순례자의 길 지도〉



〈필립의 집, 대기점도〉



〈베드로의 집, 대기점도〉

자료: 트래비 매거진( https://brunch.co.kr/@travie/714)

**〈그림 6〉 신안 순례자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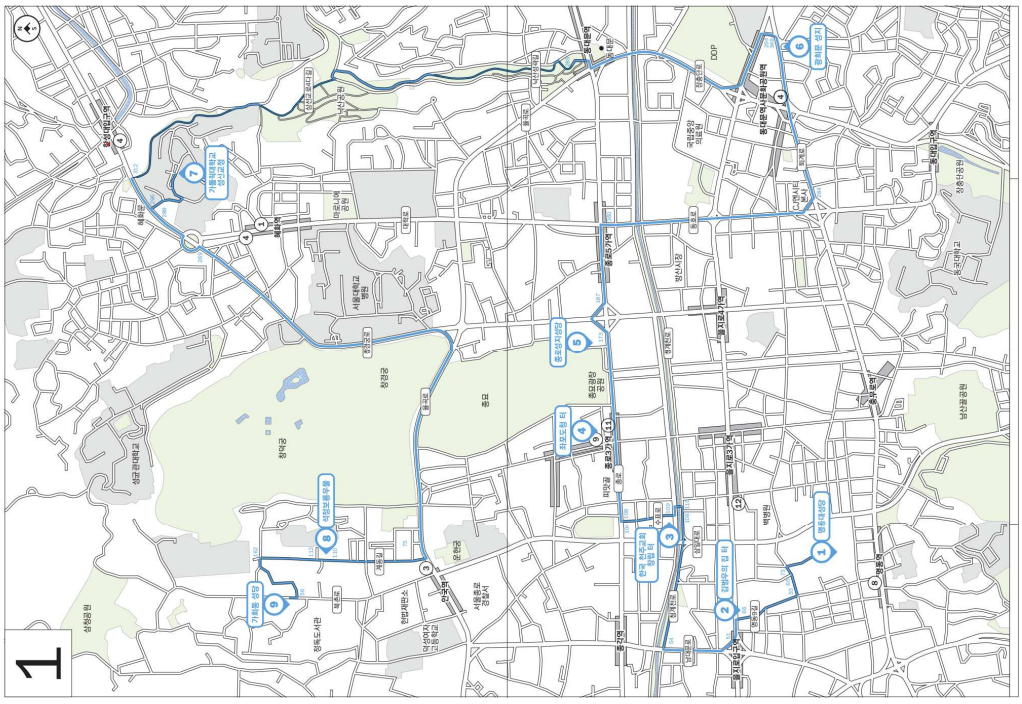
- 대기점-소기점-소악-진섬-딴섬까지 12km의 순례길을 천천히 걸으면 4시간 가량이 소요됨. 대기점도 북촌마을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자전거 여행도 즐길 수 있음
- 소기점도에 마을법인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도 있음

## ❑ 천주교 서울 순례길

- 2018년 9월 14일 아시아 최초로 교황청의 공식 승인을 받은 국제 순례지로 2015년에 서울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2014년)을 계기로 조성했음
- 서울 명동성당, 가회동 성당, 서소문 순교 성지 등 순례지 24곳을 중심으로 인근 관광명소가 연계되어 총 44.1㎞로 이루어짐
- 교황청은 이 길이 한국 천주교의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담았다는 점을 인정해 국제순례지로 승인함

- 1코스 말씀의 길(8.7㎞, 9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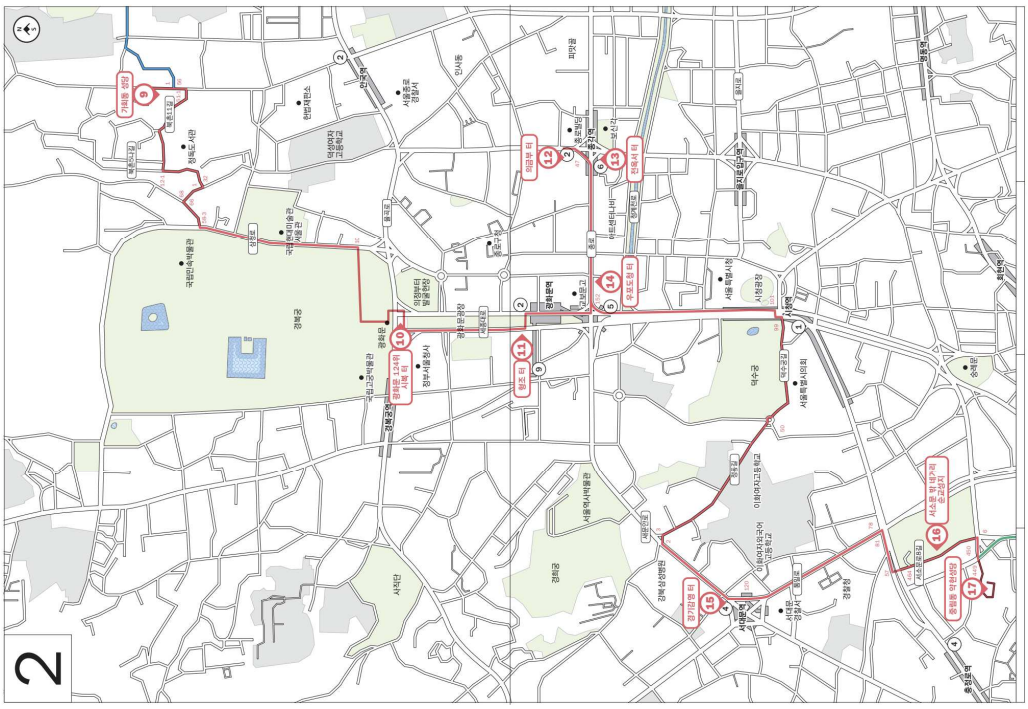
★ 이 길은 하느님의 말씀을 쫓아 자발적으로 시작된 한국 천주교회 창립터를 따라 걷는 길로 명동성당~장악원터(김범우의집)~이벽의집터(한국 천주교 창립 터)~좌포도청 터~종로성당~광희문~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석정보름우물~가회동성당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7〉 서울 순례길 1코스

- 2코스 생명의 길(5.9㎞, 9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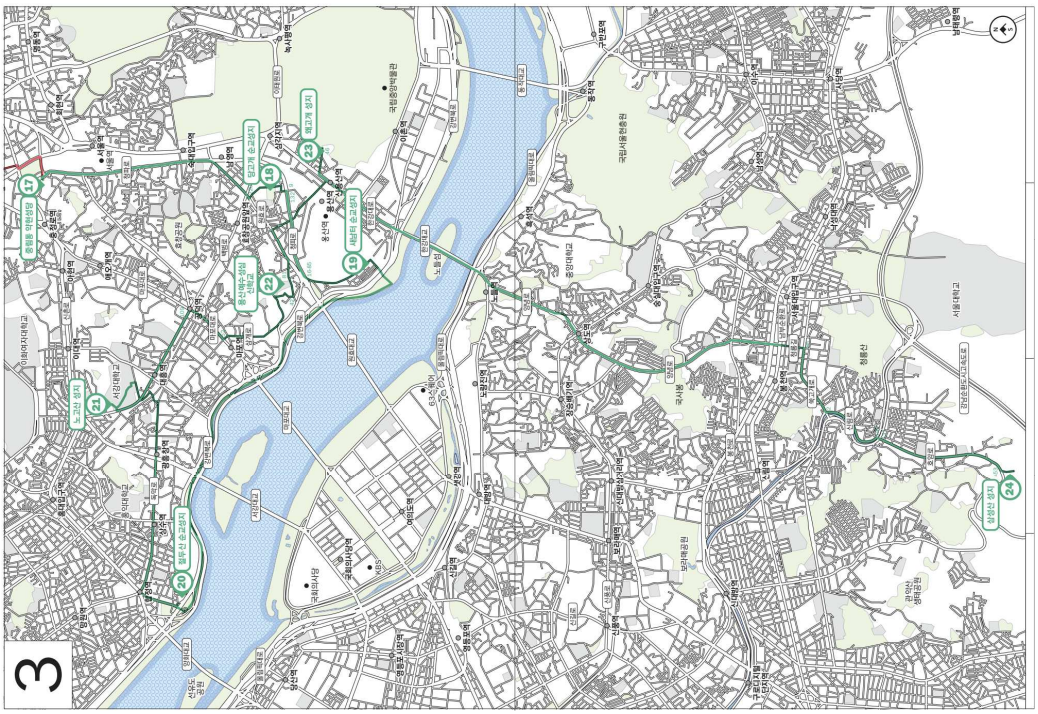
★ 이 길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걸었던 길로 가회동성당~광화문 시복터~형조 터~의금부 터~전옥서 터~우포도청 터~경기감영 터~서소문 역사공원~약현성당의 코스로 구성됨




〈그림 8〉 서울 순례길 2코스

- 3코스 일치의 길(29.5㎞, 8개소)

★ 이 길은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고 일치된 삶을 살자는 뜻을 담은 길로 약현성당~당고개순교성지~새남터순교성지~절두산순교성지~노고산~용산성심신학교~왜고개성지~삼성산성지의 코스로 구성됨




〈그림 9〉 서울 순례길 3코스

## ❑ 티베트 카일라스 산의 순례길[7)]

- 서부 티베트에 위치한 높이 6,714m의 성산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 중앙에 있다는 수미산을 카일라스 산으로 여김
- 수미산은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의 시바신이 살던 곳이며, 간디의 종교 자이나교, 티베트의 토착종교인 뵌교까지 4대 종교성지로 불림
- 순례자들은 카일라스 산 주위를 돌며 기도를 하는데 이를 코라라 부르며 108번의 코라를 통해 해탈할 수 있다고 믿음
- 입산이 허락된 52㎞지점까지 2박 3일정도 소요되며 산 주위를 도는 아웃코라와 산 안쪽으로 들어가는 인코라 두가지 길로 나뉨
- 카일라스 산을 한바퀴 다 돌면 55㎞로 티벳 불자들은 오체투지의 예법으로 자벌레가 기어가듯 순례함
- 불교 경전을 담은 오색 룽다가 카일라르 산을 휘감고 있음
  - 라싸에서는 달라이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사진을 소지해서는 안됨
  - 절과 탑을 돌 때는 반드시 시계방향으로 돌아야함




자료: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tibetkailas/222307295537)

〈그림 10〉 티베트 카일라스 산의 순례길

7) 참고 - 전성기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734

## ❑ 스페인 카미노 데 산티아고[8)]

- 스페인 북부에 있는 4개의 기독교 순례길의 연결로인 이 유산은 199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연속유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Route of Santiago de Compostela)'의 확장 유산임.
- 2015년에 확장된 구역은 총 길이 1,500㎞로, 바스크 지방(Basque Country) – 라 리오하(La Rioja), 리에바나(Liébana)를 잇는 해안 도로와 내륙 도로, 천연 가도 등을 이은 길로, 성당과 교회, 병원 등과 다리를 포함하여 순례를 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된 구조물들 중 역사적 중요성을 띤 건축 유산도 포함됨.
- 2015년 확장된 유산으로는 9세기에 대(大) 성 야고보의 것이라 여겨지는 무덤의 발견 이후에 시작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순례를 위해 최초로 개발된 일부 순례길도 포함됨
-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한사람인 야곱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가는 길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길
  - 매년 300만명이 완주에 도전하지만 이 중 15%만이 성공할 정도로 고됨
- 천년의 세월 동안 야곱을 기리기 위해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이 길을 걷는 걸음
- 〈연금술사〉의 저자 파울로 코엘료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통해 〈순례자〉라는 책을 썼고 그로 인해 국내에서 더 유명해지기도 함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순례길을 걸을 수 있는데 가장 유명한 시작점은 프랑스 생 장 피데 포르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 800㎞ 코스로 이어지는 '카미노 프란세스' 코스가 가장 인기 있음
- 모든 길마다 방향은 조개껍질과 노란색 화살표로 안내되어 있어 지도 없이 목적지까지 걸을 수 있음
- 순례길에는 전설보다 오래된 교회, 십자군 전행의 흔적, 성당 기사단의 비밀과 화형대, 로마시대 돌길까지 진한 역사의 향기가 남아 있음
- 또한, 순례길의 마을마다 순례자 전용 숙소인 '알베르게'가 있어 잠자리와 취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8) 참고 : 전성기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734,
유네스코 홈페이지(https://heritage.unesco.or.kr/)

- 순례자 전용 여권인 크레덴시알은 첫 출발지의 마을이나 성당, 카페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알베르게에서 여권에 도장을 찍어 순례길을 인증할 수 있음





자료: 네이버 캐스트 스페인 카미노 데 산티아고

〈그림 11〉 스페인 카미노 데 산티아고

## ❑ 와카야마 구마노고도 순례길 9)

-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2대 순례길 중 하나로 300㎞의 순례길로 이루어짐
- 구마노고도는 구마노 혼구타이샤, 구마노 나치타이샤, 구마노 하야타마타이샤 신사로 향하는 길의 명칭이며 총 7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음
  - 구마노고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마노 산잔에 대해 이해해야 함. 구마노 산잔은 예부터 자연 숭배의 땅으로 알려진 와카야마 남쪽 '구마노'의 세군데 성지인 구마노 혼구타이샤, 구마노 나치타이샤, 구마노 하야타마타이샤를 통칭함
  - 모든 것에는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일본 신앙인 신토와 불교가 합쳐진 형태의 신사로 각기 다른 자연신을 모심
- 헤이안 시대 황족과 귀족은 교토에서부터 구마노산잔을 가기 위해 이 길을 참배길로 삼았으며 에도시대에 들어 빈부, 남녀노소를 떠나 수많은 사람이 오갔음
- 전 코스를 선택해도 일주일 정도면 완주가 가능하며, 일부 코스만 선택해 걸어도 되며 중간 마을에서 숙박을 할 수 있음
- 구마노고도의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홋신몬 오지에서 혼구이타샤까지 걷는 6.9㎞의 길로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20~30m 높이의 삼나무와 편백나무 숲이 우거짐

9) 참고 : 중앙일보 라이프 트렌드 https://naver.me/GuG1SBeE

- 순례길 곳곳에는 오래된 온천마을이 있으며 이 중 유노미에 온천 마을 '쓰보유'는 1800여년 전 발견된 일본 최초의 온천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목욕할 수 있는 유일한 천연 온천임

  - 2~3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탕으로 푸른빛이 도는 백색 온천수가 흐르며 달걀, 옥수수, 고구마 등을 익혀먹는 간식 바구니가 구비되어 있음

<table>
<tr><td></td><td></td></tr>
<tr><td>구마노 혼구타이샤 옛터에 있는 '도리이'</td><td>신사 '구마노 혼구타이샤'.</td></tr>
<tr><td colspan="2">자료: 중앙일보 라이프 트렌드 (https://naver.me/GuG1SBeE)</td></tr>
</table>

**〈그림 12〉 와카야마 구마노고도 순례길**

## 나. 생활 체험

### ❑ 수도생활: 템플스테이

- 템플스테이는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사찰 선정·관리지원, 인력양성,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함
  -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를 운영하며, 누리집(https://www.templestay.com/)을 통해 템플스테이 예약 및 홍보 등을 추진함
  - 전국 템플스테이 안내 지도, 프로그램 소개 등을 제공함
- 템플스테이는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산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임[10]. '불교'라는 종교를 초월하여 바쁜 일상을 벗어나 진정한 행복여행을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함
  - 템플스테이는 종교, 나라와 민족, 문화적 차이 등을 초월하고자 함
- 템플스테이 대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불교 수행과 관련한 체험이지만, 일반인들이 본인들의 내면을 돌아보고 정신적 치유를 얻고자 하는 데 있어 부담감이 없음

**〈표 6〉 템플스테이 대표 체험 프로그램**

| 구분 | 내용 |
|---|---|
| 예불 | •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br>• 범종 소리가 울리면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며 몸과 입과 마음으로 온 세상의 평화와 깨달음을 기원하는 시간 |
| 발우공양 (수행자의 식사법) | • 스님이 사용하는 전통 식기 발우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의식에 따라 식사하는 수행의 과정<br>• 음식을 먹게 되기까지 모든 공덕에 감사하며 낭비 없이 절약하는 식사법 |
| 차담 | • 스님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특별한 경험<br>• 불교문화에 대한 궁금증뿐 아니라 삶에서 겪는 고민과 갈등 등 편안하게 대화 가능 |
| 염주 만들기 | • 염주는 깨달음에 대한 기원을 담아 구슬을 꿰어 만든 기도용품으로 보통 108개로 되어 있음<br>• 염주알을 하나씩 넘기며 염불을 하면 108가지 번뇌가 하나씩 소멸된다는 생각이 담겨 있음 |
| 참선 | •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성찰 과정, 나를 만나는 수행법 |
| 108배 | • 108가지 번뇌를 참회하기 위한 수행법<br>• 절을 할 때마다 108번뇌를 하나씩 내려놓으며 새로운 마음을 채우는 시간 |

자료 출처: https://www.templestay.com, 연구자 정리

-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당일형 프로그램, 체험형 프로그램, 휴식형 프로그램을 운영함

10) 템플스테이 누리집(https://www.templestay.com/)의 소개글을 참고함

〈표 7〉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유형

| 구분 | 내용 | 비고 |
|---|---|---|
| 당일형 프로그램 | •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고 싶지만 사찰에 하루 동안 머무는 것이 여의치 않거나 외국인들이 짧은 시간 틈을 내 한국의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br>• 보통 사찰 안내, 참선 체험, 다도 및 만들기(연등, 염주, 사경) 체험을 선택하여 참가 |  |
| 체험형 프로그램 | • 계절 또는 참가자들의 특성에 따라 사찰마다 조금씩 다른 프로그램들이 진행됨<br>• 절 예절, 발우공양, 108배, 연등 만들기, 문화유적 탐방 등 한국의 전통문화와 다양한 불교문화를 경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나 사찰 주변의 숲 체험, 갯벌 탐사, 야생녹차 만들기 등 자연환경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음<br>• 전통문화체험은 추석, 설, 연말연초 해돋이 등 시기별로 내용이 다르게 진행함 |  |
| 휴식형 프로그램 | • 사찰에 머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br>•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호흡하고 참선과 예불 등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음<br>• 정해진 일과 중에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예불과 공양, 사찰 안내 및 사찰 예절 교육 외의 시간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음 |  |

자료 출처: https://www.templestay.com

○ 템플스테이 누리집에서 소개 중인 138개 사찰 가운데 전북 지역의 사찰과 예약가능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11)]

〈표 8〉 전북지역 템플스테이 예약 가능 사찰

| 지역 | 사찰 | 예약 가능 프로그램 |
|---|---|---|
| 전북 부안군 | 개암사 | • 휴식형 프로그램(1) |
| 전북 남원시 | 귀정사<br>실상사 | • 체험형(1), 휴식형 프로그램(2)<br>• 체험형(3), 휴식형 프로그램(1) |
| 전북 진안군 | 금당사 | • 휴식형 프로그램(2) |
| 전북 김제시 | 금산사 | • 체험형(1), 휴식형 프로그램(1) |
| 전북 부안군 | 내소사 | • 당일형(1), 체험형(2), 휴식형 프로그램(1) |
| 전북 고창군 | 선운사 | • 체험형(1), 휴식형 프로그램(2) |
| 전북 완주군 | 송광사 | • 당일형(1), 체험형(1), 휴식형 프로그램(1) |
| 전북 무주군 | 안국사 | • 예약 가능 없음 |

자료 출처: https://www.templestay.com, 연구자 검색 및 정리

11) 2022년11월13일 검색 기준

## ❑ 수도 생활 : 수도원스테이

- 체계화 되어있는 템플스테이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일부 수도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도원 체험프로그램임
- 현재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도미니크 봉쇄수녀원, 가르멜 수도회, 올리베따노 성베네틱도 수도회 등에서 진행하고 있음
- 신청은 각 수도원 홈페이지 또는 직접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거나 특정 기간에만 운영됨
- 영원한 도움의성모수도회의 경우 신도들만이 참석 가능하며, 이름, 세례명, 본당명을 기재해야하며 18세 이상의 교우들로 한정됨, 참가비는 15,000원이며 선착순 50명임. 하룻동안만 진행되며 찬미의 시간, 주제강의, 낮기도, 개인기도, 심신미사, 다과의 순서로 구성됨
  - 준비물로는 내적준비(열린마음, 배려하는 마음, 침묵하는 자세)와 외적준비(필기구, 노트, 묵주, 편한 복장, 손목시계, 텀블러) 등이 필요함
- 도미니크 봉쇄수도원의 경우 카톡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만 35세 미만 미혼 남녀면 참석이 가능하며 특정일에만 운영되었음. 숙식을 제공하며 2박 3일 동안 수도원 기도체험, 말씀 묵상과 나눔, 서체 앞에 드리는 기도로 구성됨. 비용은 10만원
- 가르멜 수도회의 경우 고등학생~40세 미만 남녀를 대상, 20명 선착순으로 운영되었으며 2박 3일 동안 진행됨. 비용은 5만원으로 미사, 영적도서, 면담, 강의, 기도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음



자료: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http://www.solph.or.kr/)

〈그림 13〉 국내 수도원 스테이(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 ❑ 명상 : 오대산 월정사 자연명상마을 옴뷔(OMV)

- 우리나라에서 사찰을 관광자원화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임. '옴뷔'는 수준 높은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며, 정신적 힐링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말이면 예약이 쉽지 않고 주중 예약률도 높은 편임

- 옴뷔(OMV)는 오대산(Odaesan), 명상(Meditation), 마을(Village)의 줄임말로 '숲에서 쉬다', '자연을 먹다', '느리게 놀다'라는 세 가지 테마를 강조하고 있음. 불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에 장애가 없도록 테마를 설정함

-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치유의 장소를 제공하며, 테라피 요가,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어 누구나 힐링치유를 경험할 수 있음 (한국관광공사, 2021)

  - 디지털 디톡스를 위해 숙박 객실에는 TV, 인터넷, 냉장고가 없음

- 주요시설

  - 수행시설(동림선원, 성적당, 지혜의 정원, 비밀의 정원, 아리야 숲 등)

  - 숙박시설(가람채: 싱글룸, 트윈룸, 온돌룸, 별채)

  - 부대시설(비움채 (로비, 북카페), 수피다(웰빙식당), 조정래 문학관, 강당)

- 프로그램은 카루나 명상 & 힐링 프로그램, 간화선 참선 프로그램, 명상 클래스, 걷기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투숙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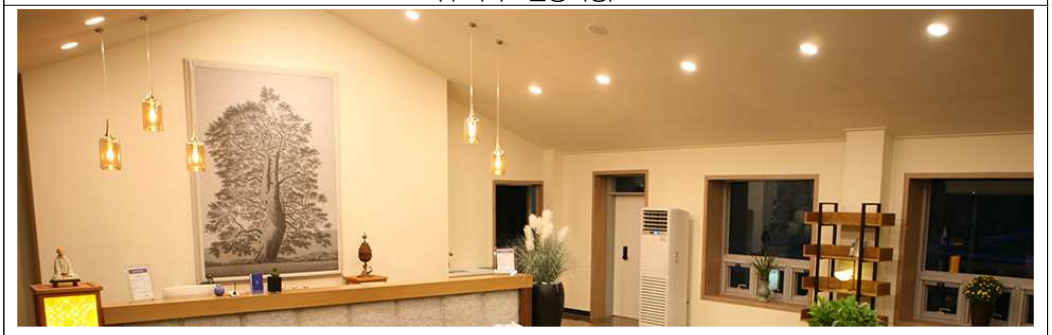
  - 간화선 수행(해일 스님): 오대산 수행도량의 근본수행법인 간화선은 화두에 일상생활이 포함되어 있으며 화두참구를 통해 생명의 진실한 성품을 깨달아 나와 세상을 평등한 관계로 연결하는 깨어있는 자유의지의 삶으로 안내함(www.omv.co.kr)

  - 자연명상(국장 스님): 우리가 지닌 몸과 마음의 본래 모습대로 자연에서 배우고 자연에서 경험하고 자연을 닮아가는 자연명상(www.omv.co.kr)

- 월정사 전나무숲길, 선재길 등 자연명상마을에서 인근 관광자원까지의 트래킹 코스를 소개함



〈수피다: 웰빙식당〉



〈비움채〉



〈치유 프로그램〉

자료: 옴뷔 누리집(www.omv.co.kr)

**〈그림 14〉 옴뷔 시설과 프로그램**

## 다. 성지순례

### ❑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성지순례

- 이슬람 최고의 성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히자즈 지역에 위치함. 이슬람교의 교조 마호메트의 출생지이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종교, 행정, 상업의 중심지임. 메카/마카는 도시 이름으로 카바 신전을 뜻하지는 않음
- 고대부터 성지로 순례자가 많이 모이는 종교 도시로, 아담과 이브가 만년에 살았던 곳이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살게한 곳이라고도 함
- 카바 신전은 아브라함이 건립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마호메트가 교도군을 이끌고 메카를 회복할 당시 알라의 신전으로 바뀌면서부터 이슬람 세계의 성지가 되었음
- 메카를 중심으로 지름 약 100㎞의 지역이 하람(성역)이며 7억이 넘는 전세계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를 향하여 하루 5회씩 예배함
- 무슬림에게는 다섯 기둥이라 불리는 5가지 의무가 있는데, 신앙고백, 메카방향으로 하루 5회 예배, 자선기부, 라마단 기간 금식 성지 순례가 있음. 이중 메카방향으로 하루 5회 예배와 성지 순례가 메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다섯 기둥의 여력이 있는 사람은 일생 동안 한번은 메카의 카바 신전을 순례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함. 하지만 실제로는 이슬람 인구의 1% 정도만 실천함. 순례는 하지(Hajj)라 불리는데 이슬람력으로 12월에 해당하는 둘-힛자(Dhu'l-Hijjah)월의 8일에서 12일까지 이루어지며 매년 300만명 정도가 참여함. 3~5일 동안 성지를 순례하며 아라파트산 등정과 돌던지기 의식 등을 치룸

  - 연중의 다른 해에 이루어지는 순례는 우므라(Umrah)라고 불림

- 성지 순례에는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고 엄격하게 진행되는데, 남자는 흰 옷을 입고 여자는 검은 옷과 검은 히잡을 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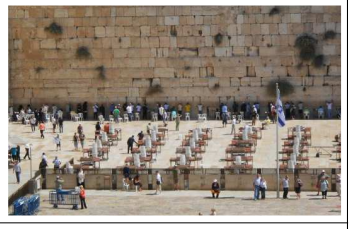

자료: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pakunkyu39/222931592384)

〈그림 15〉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성지순례 풍경

## ❑ 예루살렘 성지순례

- 예루살렘은 서남아시아에 있는 도시로 공식적으로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이나 현재 이스라엘이 동쪽 지역을 점령하고 있음
- 예루살렘은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의 성지로 세 종교에서는 각각 다른 의미로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여김
- 유대교의 경우 예루살렘을 하느님의 도시라고 생각하며 기원전 10세기경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대성전을 지어 하느님에게 바치고 깊숙한 곳에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나무상자를 보관하기도 함. 통곡의 벽은 가장 유명한 예루살렘 성지 중 하나로 유대인과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군이 성전의 서쪽 벽만은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로마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의 표시로 남겨두었는데, 유대교인들은 이 벽 앞에서 성전을 다시 세울날을 고대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함
- 크리스트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지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만에 부활한 곳이자 다시 땅으로 내려오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임. 크리스트교인들은 예수가 권력자들에게 체포된 장소이자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린 곳으로 알려진 겟세마네 동산을 중심으로 순례를 함
- 이슬람교에서는 바위사원을 중요시 하는데 7세기 예루살렘을 점령하며 부서진 솔로몬 성전터에 이슬람 사원을 지었는데, 이를 바위 사원이라 지칭함. 이슬람교의 예언자인 무함마드가 사원안에 있는 바위를 딛고 말을 탄 채 하늘로 올라갔다 왔다는 믿음을 담고 있음
- 성지 순례 코스는 보통 성모교회 – 다윗의 탑 박물관 – 후르바 유대교 회당 – 통곡의 벽 – 다윗의 도시 – 올리브산으로 구성됨(3km내외)
  - 성모교회는 예수가 안장된 무덤 위에 세운 교회이며, 올리브 산은 예수가 승천했다고 알려진 산임





자료: 트립 어드바이저(https://www.tripadvisor.co.kr/)

〈그림 16〉 예루살렘 성지 순례

## ❑ 튀르키예 성지순례

-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튀르키예이지만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과 활동무대로 유명함
- 특히 이스탄불의 경우 에덴동산을 지나간 4개의 강 가운데 튀르키예의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 이에 해당하며 노아의 방주가 정착해 인류의 재 번식이 시작되었다는 아랏산의 농아의 방주,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지방,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탄생했으며 사도바울의 전도 여행지의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 사도바울의 고향인 다소와 1, 2, 3차 전도 요행지가 있음
- 또한 요한계시록의 일곱교회가 위치해있음.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종교회의로 유명한 니케아 공의회와 칼케톤 공의회, 비잔틴 제국의 상징인 성 소피아 교회 등 중요 성지들을 보유하고 있음
- 공식적으로 성지 순례 코스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국내 여행사와 교회, 기독교인들의 자의로 성지 순례가 진행되고 있음
- 최근엔 그리스와 연계한 상품들이 나오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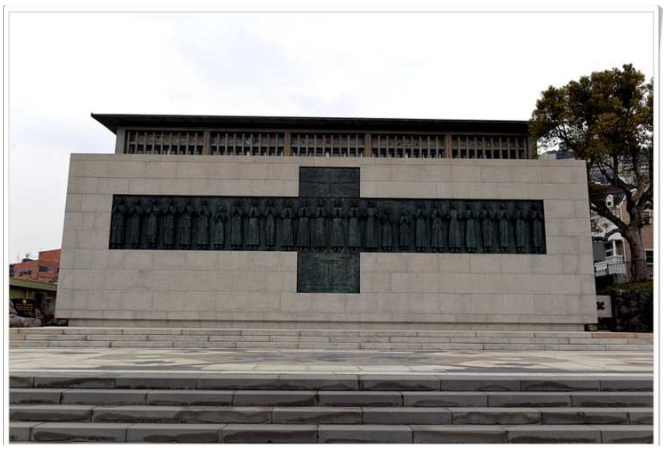
일곱 교회 중 사데교회

자료: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iris_moon/222701802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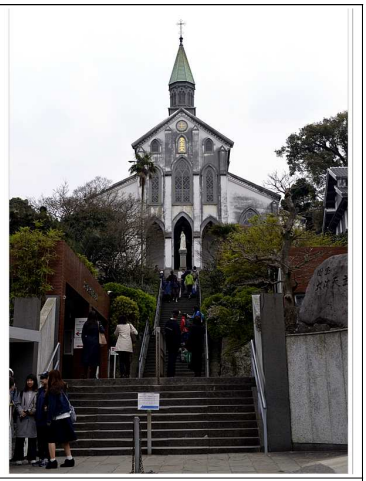
〈그림 17〉 튀르키예 성지 순례

## ❑ 나가사키 카톨릭 성지 순례

- 나가사키는 일본에서 최초로 서구에게 개항된 도시로 서구문명과 함께 기독교 유입도 가장 빨라 초기 일본 카톨릭 관련 성지가 집중된 도시임
- 일본 내 기독교 성지가 드물어 일본신도들이 많이 찾기도 하며 한국에서도 많이 찾는 성지이기도 함
- 니시자카 공원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박해로 순교되어 성인 반열에 오른 26위의 순교지임. 당시 죽음의 순간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기쁘게 순교를 받아들이는 모습에 카톨릭 귀의자가 늘었는데 지금도 일본 전국을 통틀어 나가사키 지역에 카톨릭 신자가 가장 많다고 함
  - 순교자 26위는 모두 성인의 반열에 올랐는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식이 이루어졌으며, 일본 카톨릭 공식 순례지이기도 함
- 기념관에는 순교성인과 초기 교회사에 관한 자료와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오우라 성당의 경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됨
  - 오우라 성당은 일본 정부가 기독교 신앙을 인정한 이후 1864년 프랑스 선교사가 지어 26위 순교성인에게 봉헌한 곳임



순교자 26위의 기념비



오우라 성당

자료: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lovtrout/220695021771)

〈그림 18〉 나가사키 카톡릭 성지 순례

## ❑ 이탈리아 아시시 성지 순례

- 아시시는 11세기 중세도시로 작은 소도시임. 이 도시에 성지 순례를 오는 이유는 성 프란체스코때문으로 성 프란체스코는 헌신적이고 청빈한 삶을 살아 전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카톨릭 성인중 하나임
- 아시시에는 그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성지들이 많은데, 대부분 하루면 다 둘러볼 수 있어 이탈리아 소도시 여행을 하는 이들에게 필수코스이기도 함
- 성 프란체스코의 삶이 담긴 프레스코화와 성인의 유해, 석관이 있는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이 위치해 있어 아시시는 도시 전체가 성지로 기도와 묵상이 이루어짐
- 또한 성녀 클라라의 유체를 안치한 산타 키아라 성당도 있는데, 귀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프란체스코를 따라 가난한 수도자의 삶을 선택해 깨달음을 준 수도자로 유명함
- 산타마리아 데리 안젤리 성당에는 프란체스코 성인이 실제로 묶었던 허리띠가 보관중이며 산 다미아노 성당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프란체스코 성인이 신성한 계시를 받은 곳으로 유명함. 그 외에도 생가와 성인과 성녀의 세례를 받은 성당 등이 남아 있음





|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 | 산 다미아노 성당 |
|---|---|

자료: 마이퍼스트가이드 (https://www.myfirstguide.com/v/guide/28)

〈그림 19〉 이탈리아 아시시 성지 순례

## 라. 종교축제

### ❑ 연등회

- 신라에서 시작되어 고려시대에 국가적 행사로 자리잡은 불교행사로 2012년 4월 6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불교 축제
- 연등을 밝혀 부처에게 복을 비는 불교 행사로 인도의 연등회가 불교화 함께 중국을 통해 통일신라시대로 전래되 고려시대에 이르러 태조의 훈요십조에 따라 국가의례로 정착됨
- 고려 현종때에 국가 형편에 따라 상원일 또는 2월 15일에 개최되었으며 등불을 밝히고 연희와 풍악을 즐기며 국가와 왕실 태평을 비는 국가 행사로 자리잡았음. 민간에서는 사월 초파일에 개최되었으며 개인의 집에서 개최됨
-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기반으로 하여 연등회는 점점 축소되었고 민간에서만 연등회를 개최하였음
- 2012년 국가무형문화제로 지정되어 현대에는 매년 사월 초파일 무렵 연등축제 형태로 개최되고 있음. 불상, 보살, 코끼리 등 조형물과 대규모 가두 행렬이 동대문-종로-조계사로 이어짐
-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연등회가 '시대를 지나며 바뀌어온 포용성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점', '기쁨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2020년 12월 16일에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지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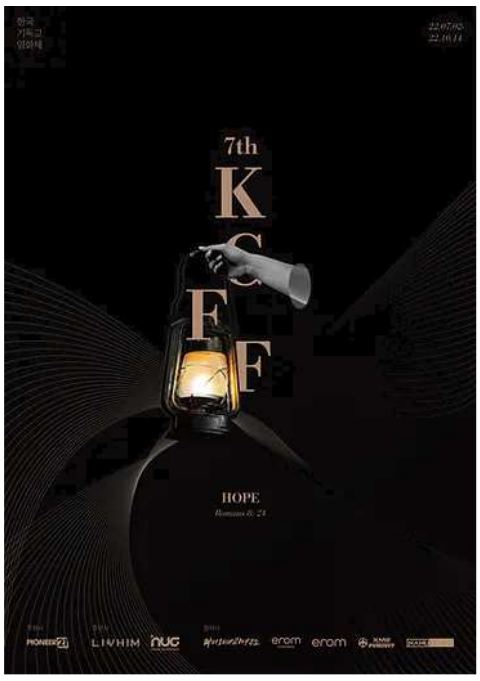



자료: doopedia.co.kr / http://www.llf.or.kr/

〈그림 20〉 연등회

## ❑ 한국기독교영화제

- 한국기독교영화제(KCFF)는 2016년 복음을 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세워진 조직임. 영화제를 주관하는 파이오니아21연구소로 2002년 설립되어 한국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고 있음
- 단편영화제로 4회까지 진행해오다 5회부터 한국기독교영화제로 명칭을 변경함
- 영화제는 공모작을 뽑아 시상식을 시행하며 포토월과 레드카펫 행사, 시상 소개 등으로 진행됨
- 영화제는 영화와 영상을 통해 섬김, 희생, 부활의 증인이라는 핵심가치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함
- 문화사역 방주의 역할을 통해 선한 콘텐츠 제작을 하며 전도와 선교를 지원하고 인재를 발굴 양성함. 이를 위해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시선을 놓치지 않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영화제를 지향하며 복음을 듣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






자료: https://www.kcff.kr/

〈그림 21〉 한국기독교영화제

## ❑ 람만, 인도 가르왈 히말라야의 종교 축제 및 제례극(祭禮劇)

- 인도 북부 우타라칸 주의 살로르-둔그라 지역에서 수호신 '부미얄 데브타(Bhumiyal Devta)'를 숭배하는 축제로 축제 이름은 '람만(Ramman)'이라고 함
- 음악, 시낭송, 춤, 공예 등이 결합된 제례극 형태의 전통적인 종교의식으로 매년 4월 말에 연행됨
- 축제는 마을 사람들과 각 계층의 직업군들이 역할을 맡아 진행하는데 어린이와 노인은 연행을 하고 브라만들은 기도와 제사를, 반다리스는 반인반수의 힌두 신인 나라시마의 가면을 씀. 매 해 부미얄 데프타 신을 모시는 가정은 엄격한 일상을 준수해야함
- 연극과 음악, 역사의 재구성 등 다양한 문화 형태를 망라한 행사로 환경·정신·문화적 측면이 공동체 의식으로 잘 반영된 축제이기도 함
- 축제는 힌두의 달인 4월~5월 상크란티 일에 진행되며 축제 이튿날에는 신에게 해리얄리(싹 난 보리)를 바치며, 매일 신은 마을을 한바퀴 돔
-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지정되었는데, 람만이 공동체의 종교적 미적 경험의 표출, 인류와 자연 그리고 신과의 유대를 기리는 점을 평가하였고, '지역사회의 전통 보유자들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점',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가시성을 향상시킨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자료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그림 22〉 람만

## ❑ 메르세 축제

-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주요도시인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9월 경 5일간 개최하는 종교 축제
- 바르셀로나 도시의 수호성인인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종교 축제로 1902년에 공식 축제로 지정되어 매년 9월에 약 5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예술공연과 기념행사들이 도시 곳곳에서 이루어짐

  - 축제명인 메르세(Mercè)는 자비를 뜻하는 카탈루냐 어로 성모마리아를 자비로운 신의 어머니(La Mare de Déu de la Mercè)라 부르는 데서 유래함

- 성모마리아 축일은 9월 24일이나 축제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며 세계각지에서 2천여명 이상의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6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은 진행함
- 매년 평균 150만명에서 200만여명이 방문하는 카탈루냐 지방 최대 규모의 축제임
- 행사는 바르셀로나 시청, 몬주익 언덕, 메르세 광장 등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공연은 무료로 이 기간동안 바르셀로나 지하철은 24시간 운영됨.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자 '게스트도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매년 도시를 선정해 예술 공연의 폭을 넓히기도 함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꼬레폭으로 불꽃달리기임, 아이들과 어른들로 나뉘어 불꽃이 일어나는 안개속에서 악마 옷을 입고 거리를 행진하는 더 데빌스 무리에게 길을 내어주는 행사임. 인간 탑 쌓기 행사도 진행되며 이는 카탈루냐 지방의 결속력을 상징함. 그 외에도 왕족과 귀족 인형 퍼레이드, 프로젝션 쇼, 와인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됨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그림 23〉 메르세 축제

## ❑ 팀카트 축제

- 에티오피아 최대 종교 축제 중 하나로 매년 1월 중순에 3일 동안 열림
- 동방정교회에서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계를 받은 날을 기념하는 주현절에 열리는 축제로 그레고리력으로 1월 19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되며 전날부터 축제의식이 진행됨
- 축제는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열리는데 고지대 산간마을 랄리벨라와 과거 왕국의 수도 곤다르에서 열리는 축제가 가장 유명함
  - 특히 랄리벨라에는 지하암굴 교회가 많은데 이슬람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만든 곳임
- 에티오피아에서는 구약성경의 솔로몬 왕을 찾아온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에티오피아 초대 황제인 메넬리크 1세라고 믿으며 이슬라엘의 기독교 전통이 자신들에게 이어져 온다고 믿음
- 주요 행사는 케테라로 축제 전날 오후부터 의식이 진행됨. 에티오피아 전역의 교회에서 보관하는 언약궤 모형 타보트를 고급스러운 금박의 실크천으로 감아 일반인들이 볼 수 없게끔 제사장들이 교회에서 시내로 옮겨오는데 이때에 시내에 모인 성직자들과 군중들은 네텔라라고 부르는 흰색 에티오피아 전통의상을 입고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이를 맞이함. 축제 장소인 강가까지 이 풍경이 이어짐
- 밤이 되면 성직자들과 기독교인들은 언약궤 주변에서 금식하며 철야기도를 올리고 아침이 밝으면 노래를 부름. 축제 당일에는 대제사장이 십자가를 물에 담가 축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축제가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이때에 물속에 뛰어들어 서로 물을 뿌리며 세례를 갱신함







자료 : dreamstime.com

〈그림 24〉 팀카트 축제

## ❑ 산 페르민 축제

- 스페인의 팜플로냐 시에서 매년 7월 6일 정오~14일 자정까지 도시의 수호성인인 성 페르민을 기리며 개최하는 축제임
- 페르민 성인의 축일이 중세에 지정된 후부터 기념행사가 진행되었고 16세기부터 오늘날과 같이 7월에 축제가 진행됨
- 축제 기간에는 교회가 주최하는 종교행사와 더불어 민속음악과 춤 공연, 장작패기 같은 바스크 지방 전통 경기 등 150여개의 행사가 팜플로냐 전역에서 펼쳐짐
- 가장 인기있는 축제 프로그램은 엔시에로라고 불리는 소몰이와 매일 저녁 열리는 투우경기임. 축제가 시작되면 주민과 관광객은 모두가 붉은 손수건을 목에 두름. 축복을 기원하며 서로 물을 뿌려주기도 함. 축제는 팜플로냐 시민 20만명을 비롯해 약 1백만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짐. 팜플로냐 시가 수용할 수 있는 관광객수가 넘기 때문에 노숙이 허용됨
- 축제는 추피나소라고 하는 로켓발사로 시작됨, 7월 6일 정오 시청 광장에 모여 샴페인과 폭죽을 터뜨리고 물세례를 벌이며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로켓을 쏨
  - 7월 6일 오후에는 리아우-리아우가 열리는데 이는 왈츠를 추며 행진하는 것임
  - 7월 7일은 성 페르민의 축일로 15세기 만든 페르민 성인의 조각상과 함께 수천명이 시청-산페르민 성당-팜플로냐 구시가지를 행진하는데 이때에는 조각상과 함께 무용수, 거리공연단, 정치, 종교인이 모두 모여 성인을 위해 호타를 추며 장미를 바침
  - 축제의 백미는 엔시에로로 거리에서 벌이는 투우행사로 사육장에서 투우장까지 소가 이동하는 행사다 거리는 825m, 3분밖에 불과한 행사지만 가장 높은 인기를 자랑함
  - 이밖에도 스트루엔도라는 소음 만들기 행사, 포브레 데 미라는 전통민요를 부르는 행사가 있음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그림 25〉 산 페르민 축제

## ❑ 푸노의 칸델라리아 성모 축제

- 매년 2월 페루의 푸노에서 개최되는 축제로 카톨릭 전통과 안데스 세계관의 상징적인 요소들이 강조된 종교적, 축제적, 문화적 성격을 지닌 행사임
- 축제는 2월 1일 새벽 미사와 함께 시작되며 고대로부터 계속된 정화의식이 진행됨. 전례행위는 익일 아침 성모마리아 성상이 전통 음악과 춤을 추며 푸노의 거리로 옮겨지는 퍼레이드를 진행함
- 축제는 두가지 경연대회와 함께 지속 되는데 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수천명의 춤꾼과 음악가들이 페루 전역에서 푸노로 모여듦
- 행사의 연행자들은 푸노지역의 농촌과 도시민으로 케추아족과 아이마라 족 사람들로 이들은 축제를 조직하고 가면 제작, 춤, 음악 등 전통 지식과 기술을 보전하기 위해 협력함
- 특히 축제 리허설과 축제에 쓰이는 물건은 공방에서 마련하는데 기술을 전승하는 행위이기도 함
- 축제는 성모마리아를 위한 의식, 퍼레이드, 작별미사로 구성됨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그림 26〉 산 페르민 축제

## 마. 테마파크

### ❑ 홀리랜드(Holyland EXperience) - 미국

- 미국 올란도에 위치한 종교 테마파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마련된 테마파크임. 성경속 장면들과 예루살레 성지를 재현하여 성스러운 장소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알리는 목적으로 개장됨
- 성지 재현과 함께 하는 핵심 콘텐츠는 성서수장고로 각 공간에서 쇼 컨텐츠가 진행됨
- 2001년 순수 전도 목적으로 개장하여 2007년 기독교 방송 TBN이 인수하면서 테마파크로 격상됨(현재는 폐장함)
- 성지체험이라는 주제답게 고대와 중세의 성경, 구약시대 신앙 관련 유물들이 박물관 급으로 다량 보유하고 있음
- 다양한 거리 이벤트를 통해 성경의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음



자료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ra4000/221983470051)

〈그림 27〉 홀리랜드

## ❑ 동방문화원 - 중국

- 중국의 쑤산 이교진 양기산 기슭에 위치한 종교 주제로 원림 문화와 종교문화 양생 문화가 하나로 융합된 테마파크
- 총 면적 300만㎡의 방대한 규모로 유교, 불교, 도교를 아우르는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음. 역사와 종교를 테마로 한 채색벽화 거리가 총 길이 2,728m로 원내를 관통함
- 관음현성(觀音顯聖), 불교구(區), 도가구, 유가구의 종교 티마 지역과 관광테마공간, 쇼핑, 숙박, 각종 체험 공간으로 구성됨



자료 : 저스트고(Just go)

〈그림 28〉 동방문화원

## 바. 박물관

### ❑ 세계종교박물관 - 대만

- 타이베이시 남쪽 신디엔강 동쪽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2001년 11월 백화점 건물에서 세계종교문화를 이해하고 생명교육의 추진 장소가 되고자 개관함
- 박물관은 문헌자료, 음악, 종교의식, 건축의 특색 등 다방면으로 종교를 이해하고 사랑과 평화라는 창립 이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관광객에게 종교와 해후하는 경험을 제공하며 화엄세계, 세계종교전시홀 등의 운영을 통해 세계 종교의 정신을 표현하며 종교 건축을 축소하여 모형으로 보여줌으로써 재현하고 있음
- 게임과 체험을 통해 종교가 가지는 사랑에 대해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함



자료 : https://newtaipei.travel/

〈그림 29〉 세계종교박물관

## ❑ 유교문화박물관

- 한국국학진흥원의 부속기관이자 국내 유일의 유교 전문 박물관으로 개인적 수양을 통한 도덕 인격의 완성과 사회적 실천을 통한 대동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유교 이상을 담고 있음
- 2006년 6월에 개관하였으며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함
- 10개의 전시실과 영상실, 정보검색실 등으로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국학자료실과 목판연구소, 전시기획실로 구성됨
- 2020년 7월에는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을 개관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한국의 유교책판을 비롯해 한국의 편액 등을 개방형 수장고를 통해 접할 수 있음
- 유교의 실천덕목인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순으로 스토리 라인이 구성됨



자료 : 경상북도 공식블로그

〈그림 30〉 유교문화박물관

## 2.2 시사점

### ❑ 관광의 동기를 '종교'에 한정하지 않음

- 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종교인뿐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까지 관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겟 대상범위를 폭넓게 접근하고 있음. 종교적인 믿음에 한정하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누구나 관심을 갖고, 하고 싶어하는 체험으로 접근함

  - 관광객의 동기, 목적을 종교적인 이유에 한정하지 않고 치유, 힐링, 일상탈출 등의 관점으로 확대하여 관광자원화 함

### ❑ 새로운 테마를 부여해 관광자원화

- 신안 순례자의 길 사례는 기존 종교자원의 활용이 아니라 건축미술을 접목하여 예배당을 조성하고, 거기에 테마를 부여해 순례자의 길을 만들어 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음
- 기존 자원의 활용에서 벗어나 '無'에서 '有'를 창조함. 섬 지역이 가진 자연 환경을 활용하고, 힐링, 치유에 대한 관광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순례자의 길을 만들어 냄
- 메르세 축제의 사례는 전세계의 문화예술가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종교 자원의 활용을 넘어서 문화예술 축제로 자원화 함

### ❑ 특별한 경험, 체험으로 접근

- 시코쿠 순례길은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원형 순례길 가운데 하나로서, 실제 9세기 구카이(고보 대사)가 수행 또는 머물렀다고 여겨지는 88개의 '공식' 사찰과 그 밖의 성지들이 포함되어 있는 순례 코스임. 역사에 기반하고 있어 충분한 강점을 보유함
- 순례길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과거 순례자의 복장, 장신구 등을 갖추고 길을 걷도록 하여, 관광적으로는 기억할만한 경험, 특이한 체험 관점에서도 매력도가 높음
-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코쿠 순례길 코스뿐 아니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1박2일 코스 등 9개 코스를 구상해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도 시사하는 바가 큼

### ❑ 스테이, 체류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자원과 연계

- 해당 종교자원 각각이 '점(spot)'에 그치지 않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길)으로 연결하고, 마을, 지역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함
- 스테이, 지역 체류형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서는 숙박 공간 등 거점이 되는 장소가 필요함
- 숙박, 음식, 체험 등 관광 활동 전반에 필요한 수용 태세가 갖춰져야 함

### ❑ 심리적 접근성, 정보 제공, 홍보 등 중요

- 종교자원을 활용한 대표적인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템플스테이의 경우, 템플스테이 홍보를 위한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를 운영 중이며, 누리집(https://www.templestay.com/)을 통해 템플스테이 예약과 홍보 등을 추진하는 등 템플스테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임
- 또한 TV프로그램 등에 인기연예인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모습이 노출되어 일반인들로 하여금 해 보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함

# Ⅲ 전라북도 종교 문화유산과 관광 여건 분석

# 1. 전라북도 종교 문화유산 현황과 관광 자원

## 1.1 전라북도 종교 문화유산 현황

### 가. 종교유형별 특징과 현황[12)]

#### ❑ 유교

- 최치원은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의 단지 동국십팔현의 한 인물 정도의 가치와 의미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님. 그의 열린 사고는 불교와의 교유뿐만 아니라, 향후 도통의 계보 안에서 문묘의 확장으로까지 이어질 때의 효시가 될 수 있기 때문임. 다시 말하면 문묘가 다시 계속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의미[13)]

- 고려 유교의 신진사대부들이 이성계에게 개혁을 주장한 바에서 출발하여 조선 건국이 이루어졌음. 전주 오목대는 황산대첩을 치르고 대풍가를 부르며 역성혁명의 불을 사른 곳이며, 개국의 얘기를 담고 있는 상이암과 금척의 얘기를 담고 있는 마이산도 이성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 이밖에도 여러 혁신유교에 대한 얘기들이 전라도에 자리함

- 주자학을 수용한 맥락에서의 성리학은 처음에는 혁신의 의미를 담은 바의 철학이자 종교였음. 그러나 그 양상이 달라지면서 너무 고루한 상태로 머무르게 된 한계가 생김. 하지만 양명학의 발달에 따라 성즉리의 이념은 심즉리의 이념의 틀로 바뀌게 됨. 물론 중국과는 달리 여전히 조선에서 성리학이 중심을 이룬 것은 사실임

- 양명학의 조짐이 보인 것은 물론 시조인 것도 역시 전라도임. 정여립과 남언경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정여립은 전주 출신이면서 정계로 진출해 활동했지만 이후 공화정치, 민주정치, 만민평등, 대동사상 등을 주장한 탁월한 인물로, 그가 양명학의 영향을 받은 개연성이 분명함. 그리고 당시 전라도관찰사인 남언경이 조선 양명학의 시조라는 점도 주지할 필요가 있음[14)]

12) 전라도는 종교문화자원의 보고이며 이를 빅데이터에 근거해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종교별, 테마별, 물별 등으로 유형화(Classification) 또는 범주화(Categorization) 작업을 함. 방법에 있어서는 현상학과 해석학의 적용에 따름. 역사적 사실을 견지하되 다양한 해석을 사용함. 또한 귀납적 경험론과 연역적 합리론,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미궁들에 관하여 이성론을 적용함. 이부분은 다소 주관적 요소로 보일 수 있음.

13) 유교가 종묘의 테두리에 여전히 갇혀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임. 이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서도 거론하는 바임. 가톨릭과 개신교가 성인을 계속 배출하고 불교역시 나한전과 조사전이 계속 큰스님들을 기리고 있는 반면, 유교가 여전히 종묘의 한계와 내부의 갈등을 깔고 도통의 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죽은 종교를 만들기 때문임. 동방오현, 정여립, 이순신, 정약용, 안중근, 뇌묵, 간재 등까지도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인심사처럼 면밀한 조사와 재판을 통해 도통의 명맥을 잇는다면 유교는 다시금 선진유학으로 각광받고 꽃피우게 될 것임. 바로 이 자리에 효시로서 자리한 인물이 최치원임.

- 안타깝게도 정여립의 의지가 꺾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그의 사상의 전개는 혁신유학의 기틀이 될 수도 있었고, 개인과 지역과 나라의 변혁을 이끌 수도 있었음. 그런데 그의 혁명적인 사고는 역모라는 모함에 직면하게 됐고, 역성혁명의 성격을 띠게 됨. 바로 그런 점들이 양명학이 펼쳐질 텃밭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척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함

- 조선 후기 전라도 안에서 등장한 성리학의 전통과 정통을 이은 간재 전우에 이르러서 양상은 달라짐. 간재의 성사심제, 성귀심비 등임. 이는 성리학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심리학을 비천하게 생각하는 고루한 것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성이 중심이기는 하되 심이 못지않다는 것의 으뜸과 버금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15)]

- 안의와 손홍록을 비롯한 지방의 유학자들이 경기전으로부터 내장산으로까지 먼 길을 가면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여기에 불교의 스님까지도 함께 힘을 모아 지켜낸 것은 그 의미가 큼. 이는 전라도 안에서 한지, 각수 등과 더불어 기록의 중요성을 면밀히 강조하며, 이를 지켜내고자 한 의지가 분명했다는 것을 드러냄

- 공자의 주역, 다산의 주역 등에 이어 전라도에서 발달하고 있는 주역 등의 해석, 향교와 서원의 일대에서 펼쳐진 경전의 목판과 활판의 흔적, 그리고 고전번역원과 고전문화연구원 등이 전라도 안에 오늘날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유교가 다시금 발흥할 태세를 하고 있음을 의미함. 체계화되고 개혁화된다면 가능함

### ❑ 불교

- 오교구산 구분에 의거, 제 17교구 중심에 놓인 금산사는 법상종 또는 유식종 맥락에서 접근 가능. 법상종은 유식사상에 바탕을 둔 것으로 마음의 깊이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는 것이 관건임

- 이런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은 대적광전으로 외연을 확대하면 김제의 금산사, 김제의 귀신사, 구례의 화엄사 등에서 나타남. 주불이 비로나자불인 점에서 분명히 알 수 있음.

14) 이 점에서 다시 불교의 유식사상을 재론할 수 있음. 유식사상과 중관사상이 마음의 유무를 깊이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며, 성리학과 심리학도 성즉리와 심즉리의 차원에서 본성과 마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임. 불교에서의 마음은 보다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고자 함을 의미하기에 유교에서의 마음이 외적 행동으로 나아가고자 함을 의미한다는 것과 차원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마음을 먹는다는 것과 상통하는 점이 있음. 마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신분과 남녀와 노소의 차별을 극복한 상태에서의 주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상통함. 바로 이런 사상과 철학이 종교의 양상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시할 필요가 있음

15) 성리학 내에서 전통과 정통을 인정받는 계보의 인물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음. 본성에 폐쇄적으로 갇힌 사회 안에서 마음을 개방적으로 펼친 그의 사상은 이후 삼재를 비롯한 그의 제자들과 다른 종교와 사상과 철학의 수용조차 기꺼이 가능하다는 차원 안에서 새롭게 평가될 수 있음. 바로 이런 사상이 전라도에서 펼쳐졌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놀라움

- 구례의 화엄사의 경우, 사액을 부탁했을 때 아무생각 없이 대웅전이라 했고, 그래서 사액을 건 해프닝도 하나의 일화로 전해짐.

- 미륵의 유식파에서 추구하는 유식과 용수의 중관파에서 추구하는 무아는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름. 중요한 공통 분모는 마음의 진보를 어느 영역까지 확장하느냐임. 마음을 어느 영역에까지 이끄느냐가 관건으로 이 마음이라는 것에 주시할 필요가 있음. 그 개념의 편차는 있으나 전라도 종교에서는 줄곧 보는 부분임

- 범상종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열반종으로 열반종은 보덕화상이 비래방장을 통해 전라도 고덕산자락의 완산에 자리했기 때문. 열반종은 모든 미물이 열반에 들 수 있다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미중 종교의 성격이 짙음. 불교뿐만 아니라 어려 종교에서 민중종교의 성격이 짙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라도만의 특징임

- 열반종은 지금의 전주 군경묘지의 낙수정이 개원사였다는점, 남고사가 연구사였다는 점의 기록을 통해 승암산, 고덕산 일대에서 두루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음. 비교적 최근에 일제 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간 개원사 동종이 반환되었고, 이를 계기로 열반종에 대한 재인식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놀라운 부분임. 열반종의 가치가 재해석 가능해졌기 때문임.

- 오교구산의 하나인 원융종이 화엄사, 실상사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이는 화엄종으로 면밀히 이어져옴. 지금은 조계종의 말사 성격을 띄고 있는데 여전히 도법스님을 중심으로 화엄사상, 화쟁사상 등이 널리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이는 구체적인 실천운동으로 인드라망 등을 통해서 계속 전개됨

- 법상종이나 열반종만이 아닌 태고종과의 관련성에서도 전라도는 깊은 관련이 있음. 태고보우는 고려왕사이면서도 잠시 보광사에 머무른 적이 있음. 나옹 혜근은 지안 금당사, 완주 위봉사 등을 비롯한 전라도의 여러 사찰 등에서 활동함. 백운 경한은 정읍 고부에서 태어나 전라도에서 활동하였음. 이 세 인물은 태고종에서 가장 깊이 있게 언급되는 인물들임

  - 이 세인물들의 공통점은 원나라에 유학을 가서 임제종을 접하고 임제종에서도 정통성을 인정받은 인물들이라는 점으로 이후 우리나라의 선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지금도 조계종에서는 보조국사 지눌을 종조로, 태고국사 보우를 중조로 삼고 있음. 전라도에 태고종이 많은 것도 이런 연유임.

- 조계종과 태고종의 비교를 혼인유무에서 찾는 것은 지극히 무식하고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사고임. 조계종은 정혜쌍수의 맥락에서 선종에 무게중심을 둔 교종의 화합을 말한다면, 태고종은 선맥에 무게중심을 둔 실천의 의미를 다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물론 오늘날에 이르러 그 양상들이 달라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음[16]

- 조계종에 있어 만경의 진묵, 전주의 경허, 만경의 만공, 남원의 구산, 만경의 탄허, 김제의 청전 등 조계종 내에서도 선맥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큰스님들이 대부분 전라도 출신임. 오교구산의 명맥 안에서 불교 주요 종파의 발흥과 발달이 상당히 전라도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음

- 여기에 덧붙여 나당전쟁, 여몽항쟁,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등과 같은 외세의 침략과 관련된 숱한 전쟁에 스님들이 애국애민과 호국호민의 정신에서 기꺼이 일어나 함께 한 점들은 놀라움을 자아냄. 이들은 순교자이자 순국자이며, 이들이 결국 우리나라를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다시 재조명될 필요가 있음[17]

16) 중요한 것은 전라도에 이런 태고종의 주요인물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했다는 점임. 이 외연을 증폭시켜 보면 이들이 선맥에 있어서도 오늘날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백운 경한만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음. 바로 백운 경한의 직지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인정받고, 이를 계기로 마지막 머물렀던 청주에 세계기록유산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임. 덧붙여 얘기를 하면 백운 경한이 오십대에 이르기까지 줄곧 지역에 머무르다가 이후에 원나라에 가서 임제종을 접하고 다시금 충청도에 머물렀다는 그 궤적을 보면, 직지라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가 충청도만이 아닌 전라도와의 연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그럴 가능성이 다분한 것은 다시금 몇 가지 사안들에서 거론될 필요가 있음. 이미 금산사에는 광교원이라는 거대한 인쇄출판지구가 있었고, 백운 경한이 오십대까지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하면 금산사 광교원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후 지금의 중국인 원나라에 가서 임제종을 접하고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전라도에서 한지와 필사와 목판에 관련된 내용과 기술을 접했을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음. 이야기를 증폭시켜 나가면 다른 점 또한 발견할 수 있음. 직지는 분명 청주의 흥덕사에서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발견한 직지대모로 불리는 박병선 박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음. 박병선 박사도 전주 태생이며 아버지가 당시 도지사로 활동할 정도의 중요인물이기 때문임. 기록에 대한 그의 남다른 노력도 전라도와의 관련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음. 한지와 각수와 백운과 병선의 연계고리 때문에, 일년 육십억원의 직지코리아 총감독을 맡았던 이는 여러 차례 전주를 방문하면서 실제로 콘텐츠는 전라도에 있다고 하며 전라도에서 이런 콘텐츠를 푸는 축제가 진행돼야 맞는 것 같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는 앞으로 더 진행돼야 할 대목임

17) 의승들의 활약상은 감동을 일으키기 충분함. 남원전투, 웅치전투, 이치전투 등은 모두 다 전라도에서 벌어진 전투인데, 당시의 의병들의 활동도 놀랍지만 의승들의 활동 놀라움. 권율에게 선조왕이 의승들에 대해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함. 성곽을 축조하는데 의승들의 활약이 두드러짐. 적과의 싸움은 잘 못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살생금지 때문일 것. 그러나 권율은 싸움은 못하지만 결코 물러서지는 않는다는 것에 방점을 둠. 그렇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그들의 얘기가 사기를 충천하게끔 하도록 한 것. 전라도에서의 자신감은 경기도에서의 자신감을 낳음. 서산과 사명과 뇌묵의 활약은 두드러져서 해남 대흥사의 표충사, 밀양 표충사의 표충사, 향산 보현사의 수충사 등 사찰 내의 사당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음. 이는 성당의 내부에 스님을 기리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놀랄 정도로, 사찰의 내부에 유교의 사당이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임. 이를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여러 교수들도 상당히 놀랍게 평가한 바가 있음. 금산사에 비교적 최근에 처영관이 들어선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애국애민과 호국호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처영을 위한 유교식 배향이 가능한 공간이 마련된다면 상징적인 맥락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닐 것임.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발견되는데 유교사당에서 스님의 위패를 모신 까닭임. 김제의 학당사는 비록 사액서원은 아니며 종묘나 문묘도 아닌 가묘의 성격이 짙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활약한 나씨와 안씨 등의 위패가 모셔져 있지만, 여기에 처영의 위패가 모셔진 까닭임. 이는 매우 독특한 것이며, 장성의 해동사가 천주교신자인 안중근의 위패를 모신 것처럼 앞서 언급한 바대로 종교는 다르지만 기억의 범위에 있어서 열려있다는 점으로 가치가 큼. 덧붙여 얘기하면 뇌묵과 진묵은 한 시대를 살았으며 모악산 이쪽과 저쪽에 머물렀지만, 한 스님은 무기를 한 스님은 선정을 이끌었으며, 이름에서처럼 천둥과 번개의 모습을 함께 동시대에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움. 이는 마치 미션(Mission)이라는 영화와도 비슷한 모습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에, 후에 영화의 소재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음

- 이처럼 전라도 내의 불교는 종교이지만 사상과 철학의 영향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고, 특별히 민중과 애민의 정신이 가득 풍부히 담겨져 있다는 점도 살필 수 있음. 바로 이런 점이 다른 지역에서와 차별성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불교의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도 매우 큰 종교문화자원으로서 각광받을 수 있을 것

- 금산사의 광교원은 다시 복원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혜덕왕사의 유식술기와 법화현찬도 발굴의 추적이 필요함. 인쇄출판에 영향을 미쳤던 화암사, 송광사, 장파사 등의 전수조사와 출판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음. 이는 고려시대 효경의 발행, 경전의 발간 등과 함께 한지, 각수, 목판, 활자 등의 발달 흐름을 살필 수 있기 때문임.[18]

- 이밖에도 불교가 지닌 다양한 감동적인 일화가 있는데, 일본사찰의 흔적이 잘 간직된 동국사, 선운사에서 산적들을 이끌어 소금을 만들어낸 보은염, 순창 만일사의 스님들의 장류, 개혁불교의 뜻을 실천한 석전, 전주에서 금오 등이 탁발을 하여 가난한 백성들을 보살핀 얘기 등은 큰 귀감을 주고도 남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전라도는 불교 종파의 다양성에서 비롯된 저력을 지님

### ❑ 천주교

- 서학과 실학을 토대로 자리잡은 천주교에 있어서도 전라도는 중요한 지역임. 서학과 실학이 학문으로 자리잡았다면, 전라도에서는 실천의 맥락에서 꽃피었기 때문임.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과 권상연은 단연 그 으뜸에 자리하고 있음. 이는 동서를 막론하고 최초의 순교자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임[19]

- 최근 초남이에서 윤지충과 권상연의 유해가 발굴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큰 일임. 유해와 함께 발굴된 백자사발을 통해 보다 명백하게 밝혀졌으며, 유전자검사까지 진행된 사실은 과학적인 토대까지도 탄탄하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게 함. 이런 점들은 특별히 그들의 순교일시와 순교장소의 연계고리 안에서 더더욱 발굴의 진행에 박차를 가하게 함[20]

18) 이는 향후 흑석골의 경복사지, 보광사지의 발굴과 더불어 병행될 필요가 있음. 경복사지는 보덕화상과도 관계되고, 보광사지는 고용보와의 관련성을 떼놓을 수 없기 때문임. 고용보는 원나라 지정원사의 자리까지 오른 정도의 인물이며, 기황후를 황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한 중요인물이라는 점과 완산군이라는 칭호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어떻게 해서 황제들의 총애를 입었느냐가 관건임.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 있지만, 결코 고려의 문물과 관련이 없을 수 없음. 고려인삼, 고려자기, 고려종이, 고려생강, 고려불화 등 당시 고려의 문물은 오늘날까지도 세상을 놀라게 할 한류의 원조인데, 이 상당 부분이 전라도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고려불화에 대해서는 수월관음에 대해 더 추적할 필요가 있고, 백의관음에 대해서는 부안 내소사, 강진 무위사, 공주 마곡사 등 한류의 물품들이 교역되던 지역의 사찰들의 벽화와 고산 위봉사 등지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한다면, 연계고리 안에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음. 덧붙여 송광사의 문서가 하버드대학의 엔칭연구소에 소장된 경로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19) 바티칸의 성베드로, 프랑스의 성드니의 몽마르뜨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최초의 순교자와 최초의 순교터는 원형(ArcheType)의 의미 때문에도 매우 상징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님

20) 유해의 발굴과 관련된 천주교전주교구의 노력은 놀라움. 발굴도 천주교전주교구의 노력에 의한 것이

- 무엇보다도 이 유해를 모신 전라도의 사도라고 불리는 유항검의 삶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음.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학과 실학을 받아들이면서 평등사상을 꾀하고 공동체정신을 몸소 실천했다는 점이 부각되는 점임. 이는 그가 서학으로 인해 순교할 때, 심지어 그의 마름이자 머슴이던 김천애 역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다는 점에서 익히 알 수 있음.[21)]

- 서학으로 시작한 천주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천주교 신앙인들은 심산궁곡으로 숨어들었음. 그곳에서 화전을 일구고 공소를 꾸리며 신앙생활의 명맥을 이어감.[22)] 전라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소가 있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공소는 공동체의 원천과도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다른 여러 중요한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임[23)]

- 선교사들의 활약도 동시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나바위에 처음으로 도착한 페레올과 다블뤼와 김대건은 모두 다 중요한 인물이자 성인으로 첫 기착지로서의 중요성도 두말할

---

고, 그것에 과학적인 차원에서의 유전자검사는 물론, 이후 매우 전문적인 책자의 발행에 있어서까지도 순전히 독자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었음. 하지만 이 가치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까지 문화재청,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서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지 않고 있음

21)바로 이런 점들이 앞선 불교와 유교의 얘기처럼 서로 종교는 다르지만 종교심성에 있어서 전라도만이 지닌 공통분모의 종교심성을 지니고 있다는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전라도가 종교문화자원의 보고이자 동시에 차별화된 종교문화자원의 보고라고 보는 것임. 유항검이 받아들인 공동체정신은 실로 놀라운데 정약종과 교유했던 백정 황일광, 정약용과 교유했던 백정 김석태 등처럼 유항검과 교유했던 김천애 등으로 볼 때, 이미 이들은 신분철폐와 평등사상을 직접 실천해내고 있었음. 불교에서의 마음, 유교에서의 마음 등이 진보된다는 의미가 자유와 평등의 기치를 한껏 간직하고 있듯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마음의 실천이 현실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임. 이는 이후에 건축의 테마로 볼 때 다시금 재조명되겠지만, 종교건축의 배치와 양식의 틀 안에서 그대로 드러남. 또한, 놀라운 점은 초남이 부근에 위치한 김제 용지의 여러 공소들 안에서도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여실히 엿보임. 박해를 피해 피난온 백자공소의 사람들은 일제를 피해 피난온 와룡공소의 사람들을 맞이하고, 다시금 한센을 피해 피난한 신암공소의 사람들과 전쟁을 피해 피난한 용지공소의 사람들을 환대함. 그리고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임. 텃세가 아닌 환대가 드러나는 것은 초남이의 공동체생활의 정신이 면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특별히, 이곳에 최배달, 조성만, 박복실 등 걸출한 인물들도 나왔는데, 이들 역시 공동체생활의 정신을 깊이 간직한 인물들이라는 점임

22) 김대건신부의 동생인 회문산 먹구니의 김난식이 대표적인 경우임

23) 공소라는 이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천주교 신앙인들은 신해박해, 신유박해, 병오박해, 병인박해 등 사대 주요박해는 물론 이외의 여러 박해를 통해서 순교했고, 순교자의 수에 있어서 전라도는 놀라울 정도로 많음. 그런데 병인박해 즈음과 이후에 양상이 사뭇 달라짐.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의 신앙인들 사이에 전라도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돈 것임. 이는 더 추적하면 당시 전라도관찰사이던 서상정과의 관련성이 있는데 서상정은 대원군이 자신의 제수를 범하고 이로 인해 제수가 자결을 하자 원한관계에 있었음. 그래서 대원군의 박해령에도 그리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음. 이는 초록바위에서 순교한 남명희와 얽힌 사연에서도 엿볼 수 있음. 남상교-남종삼-남명희 등 삼대의 순교는 그 자체로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어린 남명희를 끝까지 회유한 서상정의 정신도 눈여겨볼 대목임. 전라도로 피난온 천주교 신앙인들은 심산궁곡에서 화전을 일구고 살았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이어받아 생계를 유지한 것은 고려시대 천민인 소민이 하던 일들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는 것임. 종이, 자기, 도기, 생강, 기와, 인삼 등을 만들거나 재배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감. 공소라는 이름은 이들이 중농인이자 중상인으로 이런 생활들을 하며 서로 혼인도 하고 교류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이름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임. 이는 청나라 때 등장하는 길드와 비슷한 형태의 단체를 의미한다는 말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음. 또한 심산궁곡에 숨어든 이들이 선교사가 없던 시절을 대부분 전라도에서 보내면서 일본의 기리스탄 형태와 비슷한 신앙형태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민족종교나 민중종교의 형태로 신앙생황을 이어간 사례들도 보임. 이에 관한 연구도 추가로 될 필요가 있음

필요가 없음. 이후 전라도에서 선교활동을 한 블랑, 베르모렐, 비예모, 카닥스, 보두네 등은 순교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교육, 의료, 구제 등의 활동에 자신의 혼신을 다 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음[24)]

- 이밖에도 많은 전라도의 선교사들이 근현대 안에서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였음. 현대에 이르러서 치즈의 아버지로 불리며 가난한 백성들을 사랑한 지정환신부, 자신에게는 철저히 가난을 실천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푼 배영근신부, 선진 독일의 문물과 문명을 도입하여 발빠르게 적용한 윤에릭신부 등을 비롯한 여러 선교사들의 활동을 엿볼 수 있음[25)]

- 전라도가 순교일번지, 선교일번지, 순례일번지 등으로의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는 의미에서 순례에 관련해서도 부각될 필요가 있음. 천주교 내에서의 순례는 이미 선교사들이 박해와 관련해 심산궁곡을 다니는 궤적을 따르는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 활발하고 체계화된 상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데이터값을 가지고 거버넌스 차원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함

### ❑ 개신교

- 개신교로서는 1800년대 말부터 진행된 남장로회의 선교활동에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칠인의 선교사에 관한 얘기는 큰 감동을 선사함. 미국 공과대학에서 수석졸업한 린튼은 군산지역에서 활동했고, 이후 그의 후손들은 전국 각지에서 교육, 의료, 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유진벨도 그 연장선상에 있음. 신차참배의 거부처럼 일제강점기의 저항운동도 눈여겨볼 대목임

- 킨과 테이트 등의 선교사의 활약도 마찬가지로 길병원의 이길여 이사장이 선교사들로부

24)블랑주교는 전라도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종교자유 이후에 명동성당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그는 천주교에서 단연코 전라도의 초기공동체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포졸들에게 쫓기던 시절의 일화, 경기도의 신앙인들이 옥중생활을 할 때 하루 한 끼만 겨우 먹던 전라도 신앙인들이 십시일반하여 사식을 넣을 자금을 마련했는데 가장 많이 헌금했다는 얘기, 배재에서의 최초의 가톨릭 서적의 인쇄출판 등의 일화가 아름답게 전해짐. 베르모렐신부는 수류에서 콩 한 알이라도 나눠먹는 공동체정신, 나바위에서 텃밭뙈기 하나라도 신앙인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 에리카향이 담긴 손수건을 받아들고 고향생각을 하던 추억 등의 일화를 담아냄. 카닥스신부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하게 거부하면서 학교설립, 약국설립 등을 했던 일화를 유럽과 북미의 언론(ActionCatholique)에 소개한다. 보두네신부는 한지로 유명한 대승마을 행랑채 한 칸에서 모기, 벼룩과 시름하던 시절의 얘기와 동학혁명을 피해 피난한 토굴생활, 그리고 전동성당을 지을 때의 일화 등을 자신들의 서신과 기록에 풀어냄. 이 작업들은 치즈로 널리 알려진 지정환신부와 교회사 관련 중심인 김진소신부의 자료 안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찾을 수 있고, 이를 구체화하면 전라도 안에서의 천주교선교사들의 감동적인 활약상들을 밝혀볼 수 있음. 만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록과 관련된 번역과 해석의 예산을 지원한다면, 훨씬 더 방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25)치즈의 대명사인 지정환신부에 관련된 내용의 경우, 마지막 임종 일년 전부터 풀어낸 생애 전반에 관한 얘기들을 구술을 통해 받았는데, 이는 차후 전라도 내에서의 스토리, 오페라, 뮤지컬 등으로 펼칠 경우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바로 이런 자원이 종교문화자원의 보고인 전라도에서 재구성하면 더 큰 자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터 감동을 받은 것도 군산에서의 일임. 전주 서문교회에서 자리잡은 남장로회가 기전학교, 신흥학교, 예수병원 등에서 교육활동, 의료활동 등을 진행한 것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음. 미국 의과대학에서 수석졸업한 잉골드가 예수병원에서 의료활동을 전개한 것도 살필 필요가 있음

- 그런가 하면 한일장신대학교의 설립자인 서서평 선교사의 활약상도 돋보임. 이러한 선교사들의 활동은 외국인만이 아닌 한국인 역시 확대되는데 북녘에서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핀 방애인과 가난한 거지들을 보살핀 이보한은 대표적. 앞서 언급된 인물들과 사건들은 대부분 큰 귀감이 되는 얘기로 회자되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다양한 문화 안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점을 살필 필요가 있음

### ❑ 원불교

- 원불교는 민족종교 중에서 전라도에서 가장 잘 안착된 종교임. 매우 흥미로운 일은 일제강점기에 전라도 지역에서 특별히 신흥종교, 민족종교 성격의 종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임.

- 원불교로서는 소태산대종사와 대산종사와 정산종사가 전라도를 주무대로 활약했고, 여성교무이자 여성선진으로 구성된 이공주, 이청춘 등 십타원들도 많은 경우 전라도와 관련성을 지님. 중요한 것은 원불교가 천지의 개벽과 더불어 마음의 개벽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고, 이러한 마음수련은 오늘날까지도 면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26)]

- 원불교가 엿장수 등의 활동을 통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고아를 거둬서 교육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한 것에 대해서도 두드러지게 살필 필요가 있음. 이러한 활동이 오늘날의 원광대학교와 같은 교육사업과 원광대병원과 같은 의료사업의 차원과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으로 오늘날 청소년 사업과 복지의 사업에 있어서 원불교가 탁월성을 보이는 것도 결코 무관하지 않음

### ❑ 천도교

- 천도교에 관련된 부분은 동학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또한 전라도와 깊은 관련을 지님. 앞선 언급에서처럼 종교들을 철학과 사상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천도교는 마음의 움직임이 적극적인 실천의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음. 바로 이런 맥락에서

26) 전라도 안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는 그 형태와 빛깔은 제각각 달라도 심성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보여짐. 이는 중요한 부분으로 종교문화자원이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되고 재활용되며 관광자원화, 여행자원화, 순례자원화 형태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종교심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변함없이 견지돼야 하는 까닭임

앞선 언급에서와 같은 종교심성의 상통을 엿볼 수 있음. 최제우, 최시형,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최중진 또한 살필 필요가 있음

- 정읍·고창 외에도 전북의 시군 곳곳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동학·천도교 발자취 등이 깊게 서려있음. 임실에는 국가등록문화재인 천도교 임실교구뿐만 아니라 박준승선생생가, 삼요정, 최시형 선생 설법장소 및 은둔처, 순창에는 전봉준 장군 피체지, 완주에는 삼례봉기터, 운주 최후 항전지, 부안 백산성, 호암수도원, 남원 교룡산성, 은적암, 방아치전투지, 김제 원평 집강소, 구미란 전투지, 독배재, 익산 최시형 수련지(사자암) 등

## ❑ 유형별 종교 문화유산 현황

- 동학, 서학, 남학, 북학 모두 전라도 안에서 발달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27]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어느 나라와 어느 시대건 사상과 철학이 종교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 개혁과 쇄신에 있어서, 그리고 변화와 변혁에 있어 종교와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전라도는 모든 사상과 모든 철학이 종교와 연계됨을 알 수 있음[28]

- 전라도 각 종교의 개략적인 개요를 데이터마이닝한 바, 이를 범주별 분류를 통해 보면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음. 여기에서는 기록, 여성, 나눔, 복식, 음식, 음악, 미술, 영화, 건축, 열사, 환경, 치유, 순례 등의 범주를 상정하고, 이러한 범주에 따른 각 종교의 다양한 얘기들이 어떻게 풀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함

**〈표 9〉 유형별 종교 문화유산 현황**

| 구분 | | | 시기 | 테일 | 지역 | 해당종교 | 세부위치 | 테마 | | | | | | | | | | | |
|---|---|---|---|---|---|---|---|---|---|---|---|---|---|---|---|---|---|---|---|
| 인물 | 사건 | 유산 | | | | | | 건축 | 기록 | 문화 | 변혁 | 여성 | 역사 | 예술 | 음식 | 종교 | 철학 | 청년 | 환경 |
| | | 가톨릭센터 | | | 전주 | 천주교 | 가톨릭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간납대 | | | 전주 | 유교 | 간납대 | | | ○ | | | ○ | | | | | | |
| 간재 | | | | | 전주 | 유교 | 한옥마을 | | | | ○ | | ○ | | | ○ | ○ | | |
| 강아 | | | | | 남원 | 유교 | 남원감영 | | ○ | ○ | ○ | ○ | ○ | | | | | | |
| 강일순 | | | | | 김제 | 민족종교 | 증산교 | | ○ | ○ | ○ | | ○ | | | ○ | ○ | | |
| | | 강천사 | | | 순창 | 불교 | 강천사 | | | ○ | | | ○ | | | ○ | | | |
| 강평국 | | | | | 익산 | 천주교 | 나바위 | | ○ | ○ | ○ | ○ | ○ | | | ○ | ○ | ○ | |
| 강희남 | | | | | 김제 | 개신교 | | | ○ | ○ | ○ | | ○ | | | ○ | ○ | | |
| | | 개갑장터 | | | 고창 | 천주교 | 개갑장터 | | ○ | ○ | ○ | | ○ | | | ○ | ○ | | |
| | | 개원사 | | | 전주 | 불교 | | | ○ | ○ | ○ | | ○ | | | ○ | ○ | | |
| | 갱정유도 | | | | 부안 | 민족종교 | 갱정유도 | ○ | ○ | ○ | ○ | | ○ | | | ○ | ○ | | |
| 견훤 | | | | | 전주 | 불교 | 동고산성 | | | ○ | ○ | | ○ | | | | | | |

27)중농주의와 중상주의의 실천사상과 실천철학이 펼쳐졌다는 점에서는 북학의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음

28)민족종교와 신흥종교에 관련해서는 전라도 출신의 이강오, 탁명환 등의 수집, 조사 등이 탁월함

| 구분 | | | 시기 | 테일 | 지역 | 해당종교 | 세부위치 | 테마 | | | | | | | | | | | |
|---|---|---|---|---|---|---|---|---|---|---|---|---|---|---|---|---|---|---|---|
| 인물 | 사건 | 유산 | | | | | | 건축 | 기록 | 문화 | 변혁 | 여성 | 역사 | 예술 | 음식 | 종교 | 철학 | 청년 | 환경 |
| | | 경기전 | | | 전주 | 유교 | 경기전 | ○ | | ○ | | | ○ | | | | | | |
| 경허 | | | | | 전주 | 불교 | 자만마을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 | | | | | 전주 | 불교 | 보광재 | | | ○ | ○ | | ○ | | | | | | |
| | 고덕산 | | | | 전주 | 민족종교 | 고덕산 | | ○ | ○ | ○ | | ○ | | | ○ | | | |
| | | 고백교회 | | | 전주 | 개신교 | 고백교회 | ○ | ○ | ○ | ○ | | ○ | | | ○ | ○ | | |
| | | 고산향교 | | | 완주 | 유교 | 고산향교 | ○ | ○ | ○ | ○ | | ○ | | | ○ | ○ | | |
| 고재 | | | | | 전주 | 유교 | 한옥마을 | | | | | | ○ | | | ○ | ○ | | |
| | 공소 | | | | | 천주교 | | ○ | ○ | ○ | ○ | | ○ | | | ○ | ○ | | |
| 관성묘 | | | | | 전주 | 민족종교 | 관성묘 | ○ | | ○ | | | ○ | | | ○ | | | |
| | | 광교원 | | | 김제 | 불교 | 금산사 | | ○ | ○ | ○ | | ○ | | | ○ | ○ | | |
| 구산 | | | | | 남원 | 불교 | | | ○ | ○ | ○ | | ○ | | | ○ | ○ | | |
| | | 구암병원 | | | 군산 | 개신교 | 구암병원 | | ○ | ○ | ○ | | ○ | | | ○ | ○ | | |
| 권상연 | | | | | 완주 | 천주교 | 초남이 | | ○ | ○ | ○ | | ○ | | | ○ | ○ | ○ | |
| | | 귀신사 | | | 김제 | 불교 | 귀신사 | ○ | ○ | ○ | ○ | ○ | ○ | | | ○ | ○ | | |
| | | 글라라회 | | | 익산 | 천주교 | 글라라회 | ○ | ○ | ○ | ○ | | ○ | | | ○ | ○ | | |
| | | 금구향교 | | | 김제 | 유교 | 금구향교 | ○ | ○ | ○ | ○ | | ○ | | | ○ | ○ | | |
| | | 금당사 | | | 진안 | 불교 | | | | ○ | | | ○ | | | ○ | | | |
| | | 금산교회 | | | 김제 | 개신교 | 금산교회 | ○ | ○ | ○ | ○ | | ○ | | | ○ | ○ | | |
| | | 금산사 | | | 김제 | 불교 | | | | ○ | | | ○ | | | ○ | | | |
| 금오 | | | | | 전주 | 불교 | 남부시장 | | | ○ | ○ | | ○ | | | ○ | ○ | | |
| 금재 | | | | | 전주 | 유교 | 한옥마을 | | | | | | ○ | | | ○ | ○ | | |
| | 금척 | | | | 진안 | 불교 | 마이산 | | ○ | ○ | ○ | | ○ | | | ○ | | | |
| | | 기독박물관 | | | 전주 | 개신교 | 기독박물관 | | ○ | ○ | ○ | | ○ | | | ○ | ○ | | |
| | | 기전학교 | | | 전주 | 개신교 | 기전학교 | | ○ | ○ | ○ | | ○ | | | ○ | ○ | | |
| 김개남 | | | | | 전주 | 민족종교 | 초록바위 | | ○ | ○ | ○ | | ○ | | | ○ | ○ | | |
| 김경애 | | | | | 전주 | 천주교 | 성심학교 | | ○ | ○ | ○ | ○ | ○ | | | ○ | ○ | | |
| 김광수 | | | | | 전주 | | 한옥마을 | | ○ | ○ | ○ | | ○ | | | | | | |
| 김기창 | | | | | 군산 | 천주교 | | | ○ | ○ | ○ | | ○ | ○ | | | | | |
| 김남주 | | | | | 전주 | | 전주교도소 | | ○ | ○ | ○ | | ○ | | | | ○ | | |
| 김대거 | | | | | 익산 | 원불교 | 중앙총부 | | ○ | ○ | ○ | | ○ | | | ○ | ○ | | |
| 김대건 | | | | | 익산 | 천주교 | 나바위 | | ○ | ○ | ○ | | ○ | | | ○ | ○ | ○ | |
| 김대권 | | | | | 전주 | 천주교 | 전주옥터 | | ○ | ○ | ○ | | ○ | | | ○ | ○ | | |
| 김덕명 | | | | | 김제 | 유교 | | | ○ | ○ | ○ | | ○ | | | ○ | ○ | | |
| 김병엽 | | | | | 전주 | 천주교 | | | ○ | ○ | ○ | | ○ | | | ○ | ○ | | |
| 김성첨 | | | | | 익산 | 천주교 | 여산동헌 | | ○ | ○ | ○ | | ○ | | | ○ | ○ | | |
| 김양홍 | | | | | 전주 | 천주교 | 전동성당 | | | | | | ○ | | | ○ | | | |
| 김유산 | | | | | 전주 | 천주교 | 전라감영 | | ○ | ○ | ○ | | ○ | | | ○ | ○ | | |
| 김인전 | | | | | 전주 | 개신교 | 서문교회 | | ○ | ○ | ○ | | ○ | | | ○ | ○ | | |
| 김재덕 | | | | | 전주 | 천주교 | 전동성당 | | | | | | ○ | | | ○ | | | |
| 김조이 | | | | | 전주 | 천주교 | 전라감영 | | ○ | ○ | ○ | ○ | ○ | | | ○ | ○ | | |
| 김천애 | | | | | 전주 | 천주교 | 전동성당 | | | | ○ | | ○ | | | ○ | ○ | | |
| 김충순 | | | | | 전주 | | 옥류마을 | | | ○ | | | | ○ | | | | | |
| 김현배 | | | | | 전주 | 천주교 | 치명자성지 | | | | | | ○ | | | ○ | | | |
| 김홍도 | | | | | 전주 | | 한옥마을 | | | ○ | ○ | | ○ | ○ | | | | | |
| 김홍섭 | | | | | 전주 | 천주교 | 치명자성지 | | | | ○ | | ○ | | | ○ | ○ | | |
| 김후상 | | | | | 익산 | 천주교 | 나바위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 시기 | 테일 | 지역 | 해당종교 | 세부위치 | 테마 | | | | | | | | | | |
|---|---|---|---|---|---|---|---|---|---|---|---|---|---|---|---|---|---|---|
| 인물 | 사건 | 유산 | | | | | | 건축 | 기록 | 문화 | 변혁 | 여성 | 역사 | 예술 | 음식 | 종교 | 철학 | 청년 | 환경 |
| | | 깡통교회 | | | 전주 | 개신교 | 깡통교회 | ○ | ○ | ○ | ○ | | ○ | | | ○ | ○ | | |
| | | 나바위 | | | 익산 | 천주교 | 나바위 | ○ | ○ | ○ | ○ | | ○ | | | ○ | ○ | | |
| 나옹 | | | | | 진안 | 불교 | 금당사 | | ○ | ○ | ○ | | ○ | | | ○ | ○ | | |
| | | 남고사 | | | 전주 | 불교 | 고덕산 | ○ | ○ | ○ | ○ | | ○ | | | ○ | ○ | | |
| | | 남고산성 | | | 전주 | | 남고산성 | ○ | | ○ | | | ○ | | | | | | |
| 남명희 | | | | | 전주 | 천주교 | 초록바위 | | | | ○ | | ○ | | | ○ | | ○ | |
| | | 남문교회 | | | 전주 | 개신교 | 남문교회 | ○ | ○ | ○ | ○ | | ○ | | | ○ | ○ | | |
| | | 남부시장 | | | 전주 | | 남부시장 | | | ○ | | | ○ | | ○ | | | ○ | |
| 남언경 | | | | | 전주 | 유교 | 전라감영 | | ○ | ○ | ○ | | ○ | | | ○ | ○ | | |
| | | 내소사 | | | 부안 | 불교 | 내소사 | ○ | ○ | ○ | | | ○ | | | ○ | | | |
| 뇌묵 | | | | | 김제 | 불교 | 금산사 | ○ | ○ | ○ | ○ | | ○ | | | ○ | ○ | | |
| | | 능교공소 | | | 정읍 | 천주교 | 능교공소 | ○ | ○ | ○ | ○ | | ○ | | | ○ | ○ | | |
| 다블뤼 | | | | | 익산 | 천주교 | 나바위 | | ○ | ○ | ○ | | ○ | | | ○ | ○ | ○ | |
| 단아 | | | | | 전주 | 유교 | 임진왜란 | | ○ | ○ | ○ | ○ | ○ | | | | | | |
| | | 대소공소 | | | 부안 | 천주교 | 대소공소 | | ○ | ○ | ○ | | ○ | | | ○ | ○ | | |
| 대안 | | | | | 전주 | 불교 | | | ○ | ○ | ○ | ○ | ○ | | | ○ | ○ | | |
| 덕진 | | | | | 전주 | | 덕진공원 | | ○ | ○ | ○ | ○ | ○ | | | | | | |
| | | 도솔암 | | | 고창 | 불교 | 도솔암 | ○ | ○ | ○ | ○ | | ○ | | | ○ | ○ | | |
| | 도통 | | | | | 유교 | | | ○ | ○ | ○ | | ○ | | | ○ | ○ | | |
| | | 동국사 | | | 군산 | 불교 | 동국사 | ○ | ○ | ○ | ○ | | ○ | | | ○ | | | |
| | | 동고사 | | | 전주 | 불교 | 승암산 | ○ | | ○ | | | ○ | | | ○ | | | |
| | | 동고산성 | | | 전주 | | 동고산성 | ○ | | ○ | | | ○ | | | | | | |
| | | 동막공소 | | | 정읍 | 천주교 | 동막공소 | ○ | ○ | ○ | ○ | | ○ | | | | | | |
| | 동학 | | | | 전주 | 민족종교 | 전동성당 | ○ | | | ○ | | ○ | | | ○ | ○ | | |
| | | 동혜원 | | | 고창 | 천주교 | 동혜원 | | ○ | ○ | ○ | | ○ | | | ○ | ○ | | |
| | | 되재공소 | | | 진안 | 천주교 | 되재공소 | ○ | ○ | ○ | ○ | | ○ | | | | | | |
| | | 두동교회 | | | 익산 | 개신교 | 두동교회 | ○ | ○ | ○ | ○ | | ○ | | | ○ | ○ | | |
| 린튼 | | | | | 군산 | 개신교 | | | ○ | ○ | ○ | | ○ | | | ○ | ○ | ○ | |
| 만공 | | | | | 김제 | 불교 | | | ○ | ○ | ○ | | ○ | | | ○ | ○ | | |
| | | 만일사 | | | 순창 | 불교 | 만일사 | ○ | ○ | ○ | ○ | | ○ | | ○ | ○ | ○ | | |
| | | 먹구니 | | | 순창 | 천주교 | 먹구니 | | ○ | ○ | ○ | | ○ | | | ○ | ○ | | |
| | | 명상센터 | | | 전주 | 불교 | 서고사 | | ○ | ○ | ○ | | ○ | | | ○ | ○ | | |
| | | 목우헌 | | | 전주 | | 목우헌 | | | ○ | | | | ○ | | | | | |
| | | 무성서원 | | | 정읍 | 유교 | 무성서원 | ○ | ○ | ○ | ○ | | ○ | | | ○ | ○ | | |
| | | 무장향교 | | | 정읍 | 유교 | 무장향교 | ○ | ○ | ○ | ○ | | ○ | | | ○ | ○ | | |
| | 문묘 | | | | | 유교 | | | ○ | ○ | ○ | | ○ | | | ○ | ○ | | |
| | | 미륵사지 | | | 익산 | 불교 | 미륵사지 | ○ | ○ | ○ | ○ | | ○ | | | ○ | ○ | | |
| | | 바울교회 | | | 전주 | 개신교 | 바울교회 | ○ | ○ | ○ | | | ○ | | | ○ | ○ | | |
| 박노규 | | | | | 전주 | | 낙수정 | | | | | | ○ | | | | | | |
| 박병선 | | | | | 전주 | 천주교 | 한옥마을 | | | ○ | | ○ | ○ | | | ○ | | | |
| 박병순 | | | | | 전주 | | 한옥마을 | | | ○ | ○ | | ○ | | | | ○ | | |
| 박복실 | | | | | 전주 | 천주교 | 전동성당 | | | | ○ | ○ | ○ | | | ○ | | ○ | |
| 박승희 | | | | | 전주 | 천주교 | 전동성당 | | | | ○ | ○ | ○ | | | ○ | | ○ | |
| 박임근 | | | | | 익산 | 천주교 | 나바위 | | ○ | ○ | ○ | ○ | ○ | | | ○ | ○ | ○ | |
| 박중빈 | | | | | 익산 | | 중앙총부 | | ○ | ○ | ○ | | ○ | | | ○ | ○ | | |
| 박진 | | | | | 전주 | 유교 | 전주향교 | | | ○ | | | ○ | | | ○ | ○ | | |
| 박한영 | | | | | 전주 | 불교 | 태조암 | | | ○ | ○ | | ○ | | | ○ | ○ | | |

| 구분 | | | 시기 | 테일 | 지역 | 해당종교 | 세부위치 | 테마 | | | | | | | | | | | |
|---|---|---|---|---|---|---|---|---|---|---|---|---|---|---|---|---|---|---|---|
| 인물 | 사건 | 유산 | | | | | | 건축 | 기록 | 문화 | 변혁 | 여성 | 역사 | 예술 | 음식 | 종교 | 철학 | 청년 | 환경 |
| 방애인 | | | | | 전주 | 개신교 | 서문교회 | | ○ | ○ | ○ | | ○ | | | ○ | ○ | | |
| | | 배다리 | | | 익산 | 천주교 | 배다리 | | ○ | ○ | ○ | | ○ | | | ○ | ○ | | |
| 배영근 | | | | | 전주 | 천주교 | 가톨릭센터 | | ○ | ○ | ○ | | ○ | | | ○ | ○ | | |
| 백남인 | | | | | 진안 | 민족종교 | | | ○ | ○ | ○ | | ○ | | | ○ | ○ | | |
| | | 백련사 | | | 무주 | 불교 | 덕유산 | ○ | | ○ | ○ | | ○ | | | ○ | | | |
| | | 백양 | | | 전주 | | 교동갤러리 | ○ | ○ | ○ | ○ | ○ | ○ | ○ | | | | | |
| 백운 | | | | | 정읍 | 불교 | | | ○ | ○ | ○ | | ○ | | | ○ | ○ | | |
| | | 백자공소 | | | 김제 | 천주교 | 백자공소 | | ○ | ○ | ○ | | ○ | | | ○ | ○ | | |
| | | 백지사터 | | | 익산 | 천주교 | 여산동헌 | | ○ | ○ | ○ | | ○ | | | ○ | ○ | | |
| | 법상종 | | | | 김제 | 불교 | 금산사 | | ○ | ○ | ○ | | ○ | | | ○ | ○ | | |
| | 법화현찬 | | | | 김제 | 불교 | 금산사 | | ○ | ○ | ○ | | ○ | | | ○ | ○ | | |
| 베르모렐 | | | | | 익산 | 천주교 | 나바위 | ○ | ○ | ○ | ○ | | ○ | | | ○ | ○ | ○ | |
| | | 보광사 | | | 완주 | 불교 | 보광재 | | ○ | ○ | ○ | | ○ | | | ○ | ○ | | |
| | | 보광재 | | | 전주 | | 보광재 | | | ○ | | | | | | | | | ○ |
| 보덕 | | | | | 전주 | 불교 | 대승사 | | | ○ | ○ | | ○ | | | ○ | | | |
| 보두네 | | | | | 전주 | 천주교 | 전동성당 | ○ | ○ | ○ | ○ | | ○ | | | ○ | ○ | ○ | |
| | 보은염 | | | | 고창 | 불교 | 선운사 | | ○ | ○ | ○ | | ○ | | | ○ | ○ | | |
| | 보천교 | | | | 정읍 | 민족종교 | 보천교 | ○ | ○ | ○ | ○ | | ○ | | | ○ | ○ | | |
| | | 복흥공소 | | | 순창 | 천주교 | 복흥공소 | ○ | ○ | ○ | ○ | | ○ | | | | | | |
| 블랑 | | | | | 완주 | 천주교 | | | ○ | ○ | ○ | | ○ | | | ○ | ○ | ○ | |
| 비예모 | | | | | 완주 | 천주교 | 되재 | ○ | ○ | ○ | ○ | | ○ | | | ○ | ○ | ○ | |
| | | 삼례성당 | | | 완주 | 천주교 | 삼례성당 | ○ | ○ | ○ | ○ | | ○ | | | ○ | ○ | | |
| | | 상관성당 | | | 완주 | 천주교 | 상관성당 | ○ | ○ | ○ | ○ | | ○ | | | ○ | ○ | | |
| | | 상이암 | | | 임실 | 불교 | 상이암 | ○ | ○ | ○ | ○ | | ○ | | | ○ | ○ | | |
| | | 상주사 | | | 군산 | 불교 | 상주사 | ○ | ○ | ○ | ○ | | ○ | | | ○ | ○ | | |
| | | 상지원 | | | 익산 | 천주교 | 상지원 | | ○ | ○ | ○ | | ○ | | | ○ | ○ | | |
| | | 생태박물관 | | | 전주 | | | ○ | | | | | | | | | | | ○ |
| | | 서고사 | | | 전주 | 불교 | 서고사 | ○ | ○ | ○ | ○ | | ○ | | | ○ | ○ | | |
| | | 서문교회 | | | 전주 | 개신교 | 서문교회 | ○ | ○ | ○ | ○ | | ○ | | | ○ | ○ | | |
| 서상정 | | | | | 전주 | 유교 | 전라감영 | | | | ○ | | ○ | | | | | | |
| 서서평 | | | | | | 개신교 | 한일장신대 | | ○ | ○ | ○ | ○ | ○ | | | ○ | ○ | | |
| 서유구 | | | | | 전주 | 유교 | 전라감영 | | | ○ | ○ | | ○ | | ○ | | | | |
| 서정수 | | | | | 익산 | 천주교 | 아가페 | ○ | ○ | ○ | ○ | | ○ | | | ○ | ○ | | ○ |
| | 서학 | | | | | 천주교 | | | ○ | ○ | ○ | ○ | ○ | | | ○ | ○ | | |
| 석전 | | | | | 고창 | 불교 | 선운사 | | ○ | ○ | ○ | | ○ | | | ○ | ○ | | |
| | | 선운사 | | | 고창 | 불교 | 선운사 | | | ○ | | | ○ | | | ○ | | | |
| | | 선원사 | | | 남원 | 불교 | 선원사 | ○ | ○ | ○ | ○ | | ○ | | | ○ | ○ | | |
| | 성리학 | | | | | 유교 | | | ○ | ○ | ○ | | ○ | | | ○ | ○ | | |
| | 성귀심비 | | | | | 유교 | | | ○ | ○ | ○ | | ○ | | | ○ | ○ | | |
| | 성사심제 | | | | | 유교 | | | ○ | ○ | ○ | | ○ | | | ○ | ○ | | |
| | | 성심학교 | | | 전주 | 천주교 | 성심학교 | ○ | ○ | ○ | ○ | | ○ | | | ○ | ○ | | |
| 손홍록 | | | | | 전주 | 유교 | 경기전 | | | ○ | | | ○ | | | ○ | ○ | | |
| 손화중 | | | | | | 민족종교 | | | ○ | ○ | ○ | | ○ | | | ○ | ○ | | |
| | | 송광사 | | | 완주 | 불교 | | | | ○ | | | ○ | | | ○ | | | |
| 송성룡 | | | | | 전주 | 유교 | 강암서예원 | ○ | | ○ | | | ○ | ○ | | | | | |
| | | 수류성당 | | | 김제 | 천주교 | 수류성당 | ○ | ○ | ○ | ○ | | ○ | | | ○ | ○ | | |
| | | 수분공소 | | | 장수 | 천주교 | 수분공소 | ○ | ○ | ○ | ○ | | ○ | | | | | | |

| 구분 | | | 시기 | 테일 | 지역 | 해당종교 | 세부위치 | 테마 | | | | | | | | | | |
|---|---|---|---|---|---|---|---|---|---|---|---|---|---|---|---|---|---|---|
| 인물 | 사건 | 유산 | | | | | | 건축 | 기록 | 문화 | 변혁 | 여성 | 역사 | 예술 | 음식 | 종교 | 철학 | 청년 | 환경 |
| | | 수현사 | | | 전주 | 천주교 | 수현사 | | ○ | ○ | ○ | | ○ | | | ○ | ○ | | |
| | 순천교 | | | | 김제 | 민족종교 | 순천교 | ○ | ○ | ○ | ○ | | ○ | | | | | | |
| | | 쉬리 | | | 전주 | | 전주천 | | | | | | | | | | | | ○ |
| | | 승암사 | | | 전주 | 불교 | 승암사 | ○ | | ○ | | | ○ | | | ○ | ○ | | |
| | | 시기성당 | | | 정읍 | 천주교 | 시기성당 | ○ | ○ | ○ | ○ | | ○ | | | ○ | ○ | | |
| 신동엽 | | | | | 전주 | | 전주교대 | | | ○ | ○ | | ○ | ○ | | | ○ | ○ | |
| 신석정 | | | | | 전주 | | 한옥마을 | | | ○ | ○ | | ○ | | | | ○ | | |
| | | 신성공소 | | | 정읍 | 천주교 | 신성공소 | ○ | ○ | ○ | ○ | | ○ | | | | | | |
| | 신시도 | | | | 군산 | 천주교 | 신시도 | | ○ | ○ | ○ | | ○ | | | ○ | | | |
| | | 신암공소 | | | 김제 | 천주교 | 신암공소 | | ○ | ○ | ○ | | ○ | | | ○ | ○ | | |
| 신영복 | | | | | 전주 | | 전주교도소 | | ○ | ○ | ○ | | ○ | | | | ○ | | |
| | | 신흥학교 | | | 전주 | 개신교 | 신흥학교 | | ○ | ○ | ○ | | ○ | | | ○ | ○ | | |
| 신희 | | | | | 전주 | 천주교 | 치명자성지 | | ○ | ○ | ○ | ○ | ○ | | | ○ | ○ | | |
| | | 실상사 | | | 남원 | 불교 | 실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심곡사 | | | 익산 | 불교 | 심곡사 | ○ | ○ | ○ | ○ | | ○ | | | ○ | ○ | | |
| 심상규 | | | | | 전주 | 유교 | 전라감영 | | | | ○ | | ○ | | | | | | |
| 심조이 | | | | | 전주 | 천주교 | 전라감영 | | ○ | ○ | ○ | ○ | ○ | | | ○ | ○ | | |
| 십타원 | | | | | 익산 | 원불교 | 중앙총부 | | ○ | ○ | ○ | ○ | ○ | | | ○ | ○ | | |
| | | 쌍교성당 | | | 남원 | 천주교 | 쌍교성당 | ○ | ○ | ○ | ○ | | ○ | | | ○ | ○ | | |
| | | 쌍치공소 | | | 순창 | 천주교 | 쌍치공소 | ○ | ○ | ○ | ○ | | ○ | | | ○ | ○ | | |
| | | 안대공소 | | | 익산 | 천주교 | 안대공소 | ○ | ○ | ○ | ○ | | ○ | | | ○ | ○ | | |
| 안득수 | | | | | 전주 | 천주교 | 대학병원 | | ○ | ○ | ○ | | ○ | | | ○ | ○ | | |
| 안의 | | | | | 전주 | 유교 | 경기전 | | | ○ | | | ○ | | | ○ | ○ | | |
| | 양명학 | | | | | 유교 | | | ○ | ○ | ○ | | ○ | | | ○ | ○ | | |
| | | 양사재 | | | 전주 | 유교 | 양사재 | ○ | | ○ | | | ○ | | | ○ | ○ | | |
| | | 어은공소 | | | 진안 | 천주교 | 어은공소 | ○ | ○ | ○ | ○ | | ○ | | | | | | |
| | | 여산성당 | | | 익산 | 천주교 | 여산공소 | ○ | ○ | ○ | ○ | | ○ | | | ○ | ○ | | |
| 여산송씨 | | | | | 익산 | 유교 | | | ○ | ○ | ○ | ○ | ○ | | | ○ | ○ | | |
| | | 여산향교 | | | 익산 | 유교 | 여산향교 | ○ | ○ | ○ | ○ | | ○ | | | ○ | ○ | | |
| | 여효경 | | | | | 유교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사 | | | 전주 | 불교 | 고덕산 | ○ | ○ | ○ | ○ | | ○ | | | ○ | ○ | | |
| | 열반종 | | | | 전주 | 불교 | 고덕산 | ○ | ○ | ○ | | | ○ | | | ○ | ○ | | |
| | 영산작법 | | | | 익산 | 불교 | | | ○ | ○ | ○ | | ○ | | | ○ | ○ | | |
| | | 예수병원 | | | 전주 | 개신교 | 예수병원 | | ○ | ○ | ○ | | ○ | | | ○ | ○ | | |
| 오기순 | | | | | 익산 | 천주교 | 나바뒤 | | ○ | ○ | ○ | | ○ | | | ○ | ○ | | |
| | | 오목대 | | | 전주 | 유교 | 오목대 | ○ | | ○ | | | ○ | | | | | | |
| 오사현 | | | | | 완주 | 천주교 | 성지동 | | ○ | ○ | ○ | | ○ | | | ○ | ○ | | |
| 오종례 | | | | | 전주 | 천주교 | 전주옥터 | | ○ | ○ | ○ | | ○ | | | ○ | ○ | | |
| 옥문 | | | | | 완주 | 불교 | 송광사 | | ○ | ○ | ○ | | ○ | | | ○ | ○ | | |
| 옥진 | | | | | 전주 | | 천양정 | | ○ | ○ | ○ | ○ | ○ | | | | | | |
| | | 와룡공소 | | | 김제 | 천주교 | 와룡공소 | | ○ | ○ | ○ | | ○ | | | ○ | ○ | | |
| | | 완판문화관 | | | 전주 | | 완판문화관 | | ○ | ○ | | | ○ | | | | | | |
| | | 왕궁공소 | | | 완주 | 천주교 | 왕궁공소 | | ○ | ○ | ○ | | ○ | | | ○ | ○ | | |
| | | 용담향교 | | | 진안 | 유교 | 용담향교 | ○ | ○ | ○ | ○ | | ○ | | | ○ | ○ | | |
| | | 용지공소 | | | 김제 | 천주교 | 요이공소 | | ○ | ○ | ○ | | ○ | | | ○ | ○ | | |
| | | 원광대학교 | | | 익산 | 원불교 | 원광대학교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 시기 | 테일 | 지역 | 해당종교 | 세부위치 | 테마 | | | | | | | | | | |
|---|---|---|---|---|---|---|---|---|---|---|---|---|---|---|---|---|---|---|
| 인물 | 사건 | 유산 | | | | | | 건축 | 기록 | 문화 | 변혁 | 여성 | 역사 | 예술 | 음식 | 종교 | 철학 | 청년 | 환경 |
| | | 원평교당 | | | 김제 | 원불교 | 원평교당 | ○ | ○ | ○ | ○ | | ○ | | | ○ | ○ | | |
| 월주 | | | | | 김제 | 불교 | 금산사 | | ○ | ○ | ○ | | ○ | | | ○ | ○ | | |
| | | 위봉사 | | | 완주 | 불교 | 위봉사 | ○ | ○ | ○ | ○ | | ○ | | | ○ | ○ | | |
| 유관검 | | | | | 전주 | 천주교 | 전동성당 | | ○ | ○ | ○ | | ○ | | | ○ | ○ | | |
| 유군심 | | | | | 김제 | 천주교 | | | | | | | | | | | | | |
| 유문석 | | | | | 전주 | 천주교 | 치명자성지 | | | | ○ | | ○ | | | ○ | ○ | | |
| | 유식술기 | | | | 김제 | 불교 | 금산사 | | ○ | ○ | ○ | | ○ | | | ○ | ○ | | |
| 유재 | | | | | 전주 | 유교 | 한옥마을 | | | | | | ○ | | | ○ | ○ | | |
| 유중성 | | | | | 전주 | 천주교 | 치명자성지 | | | | ○ | | ○ | | | ○ | ○ | ○ | |
| 유중철 | | | | | 전주 | 천주교 | 치명자성지 | | | | ○ | | ○ | | | ○ | ○ | | ○ |
| 유진벨 | | | | | 군산 | 개신교 | | | ○ | ○ | ○ | | ○ | | | ○ | ○ | | |
| 유항검 | | | | | 전주 | 천주교 | 치명자성지 | | | | ○ | | ○ | | | ○ | ○ | | |
| 육희 | | | | | 전주 | 천주교 | 치명자성지 | | ○ | ○ | ○ | ○ | ○ | | | ○ | ○ | | |
| 윤금희 | | | | | 전주 | | 서학마을 | | | ○ | | ○ | ○ | | | | | | |
| 윤에릭 | | | | | 전주 | 천주교 | 인보성체회 | | ○ | ○ | ○ | | ○ | | | ○ | ○ | | |
| 윤지충 | | | | | 완주 | 천주교 | 초남이 | | ○ | ○ | ○ | | ○ | | | ○ | ○ | ○ | |
| 윤지헌 | | | | | 완주 | 천주교 | 초남이 | | ○ | ○ | ○ | | ○ | | | ○ | ○ | | |
| | | 은적사 | | | 군산 | 불교 | 은적사 | ○ | ○ | ○ | ○ | | ○ | | | ○ | ○ | | |
| | | 의암사 | | | 장수 | 유교 | 의암사 | ○ | ○ | ○ | ○ | ○ | ○ | | | ○ | ○ | | |
| 이강오 | | | | | 전주 | 민족종교 | 전북대학교 | | ○ | ○ | ○ | | ○ | | | ○ | ○ | | |
| 이공주 | | | | | 익산 | 원불교 | 원불교총부 | | ○ | ○ | ○ | ○ | ○ | | | ○ | ○ | | |
| 이기경 | | | | | 전주 | 유교 | 오목대 | | ○ | ○ | ○ | | ○ | | | ○ | ○ | | |
| 이기발 | | | | | 전주 | 유교 | 간납대 | | | ○ | ○ | | ○ | | | | ○ | | |
| 이길여 | | | | | 군산 | 개신교 | | | ○ | ○ | ○ | ○ | ○ | | | ○ | ○ | | |
| 이대권 | | | | | 전주 | | | | ○ | ○ | ○ | | ○ | | | ○ | ○ | | |
| 이명서 | | | | | 전주 | 천주교 | 숲정이 | | ○ | ○ | ○ | | ○ | | | ○ | ○ | | |
| | | 이목대 | | | 전주 | 유교 | 이목대 | ○ | | ○ | | | ○ | | | ○ | ○ | | |
| 이병기 | | | | | 전주 | | 양사재 | | | ○ | ○ | | ○ | | | | ○ | | |
| 이보한 | | | | | 전주 | 개신교 | 서문교회 | | ○ | ○ | ○ | | ○ | | | ○ | ○ | | |
| 이복석 | | | | | 전주 | 천주교 | 중앙성당 | | ○ | ○ | ○ | | ○ | | | ○ | | | |
| 이삼만 | | | | | 전주 | 유교 | 한벽루 | | | ○ | | | ○ | ○ | | | | | |
| 이생발 | | | | | 전주 | 유교 | 간납대 | | | ○ | ○ | | ○ | | | | ○ | | |
| 이세종 | | | | | 전주 | 개신교 | 서문교회 | | ○ | ○ | ○ | | ○ | | | ○ | ○ | ○ | |
| 이순이 | | | | | 전주 | 천주교 | 치명자성지 | | | | ○ | ○ | ○ | | | ○ | ○ | | |
| 이우집 | | | | | 전주 | 천주교 | 전라감영 | | ○ | ○ | ○ | | ○ | | | ○ | ○ | | |
| 이운교 | | | | | 진안 | | | | ○ | ○ | ○ | | ○ | | | ○ | ○ | | |
| 이응노 | | | | | 전주 | | 한옥마을 | | | ○ | ○ | | ○ | ○ | | | | | |
| 이육희 | | | | | 전주 | 천주교 | 치명자성지 | | | | ○ | ○ | ○ | | | ○ | ○ | | ○ |
| 이자익 | | | | | 김제 | 개신교 | 금산교회 | | ○ | ○ | ○ | | ○ | | | ○ | ○ | ○ | |
| 이정란 | | | | | 전주 | 유교 | 충경사 | | | ○ | ○ | | ○ | | | ○ | ○ | | |
| 이조이 | | | | | 전주 | 천주교 | 전라감영 | | ○ | ○ | ○ | ○ | ○ | | | ○ | ○ | | |
| 이청춘 | | | | | 전주 | 원불교 | 중앙총부 | | ○ | ○ | ○ | ○ | ○ | | | ○ | ○ | | |
| 이춘화 | | | | | 진안 | 천주교 | 어은공소 | | ○ | ○ | ○ | | ○ | | | ○ | ○ | | |
| 이태권 | | | | | 전주 | 천주교 | 전주옥터 | | ○ | ○ | ○ | | ○ | | | ○ | ○ | | |
| 이학수 | | | | | 진안 | 천주교 | 어은공소 | | ○ | ○ | ○ | | ○ | | | ○ | ○ | | |
| 이흥발 | | | | | 전주 | 유교 | 간납대 | | | ○ | ○ | | ○ | | | | ○ | | |

| 구분 | | | 시기 | 테일 | 지역 | 해당종교 | 세부위치 | 테마 | | | | | | | | | | |
|---|---|---|---|---|---|---|---|---|---|---|---|---|---|---|---|---|---|---|
| 인물 | 사건 | 유산 | | | | | | 건축 | 기록 | 문화 | 변혁 | 여성 | 역사 | 예술 | 음식 | 종교 | 철학 | 청년 | 환경 |
| 임철완 | | | | | 전주 | 개신교 | 대학병원 | | ○ | ○ | ○ | | ○ | | | ○ | ○ | | |
| 잉골드 | | | | | 전주 | 개신교 | 예수병원 | | ○ | ○ | ○ | | ○ | | | ○ | ○ | ○ | |
| | | 장파사 | | | 완주 | 불교 | 장파사 | | ○ | ○ | ○ | | ○ | | | ○ | ○ | | |
| | | 전동성당 | | | 전주 | 천주교 | 전동성당 | ○ | | ○ | | | ○ | | | ○ | | | |
| | | 전라감영 | | | 전주 | 유교 | 전라감영 | ○ | | ○ | | | ○ | | | | | | |
| | | 전주향교 | | | 전주 | 유교 | 전주향고 | ○ | ○ | ○ | ○ | | ○ | | | ○ | ○ | | |
| 전봉준 | | | | | 전주 | 민족종교 | 전동성당 | | | | ○ | | ○ | | | ○ | ○ | | |
| | | 전주대학교 | | | 전주 | 개신교 | 전주대학교 | | ○ | ○ | ○ | | ○ | | | ○ | ○ | | |
| 전킨 | | | | | 전주 | 개신교 | 기전학교 | | ○ | ○ | ○ | | ○ | | | ○ | ○ | ○ | |
| 정문호 | | | | | 전주 | 천주교 | 숲정이 | | ○ | ○ | ○ | | ○ | | | ○ | ○ | | |
| 정몽주 | | | | | 전주 | 유교 | 남고사 | | | | ○ | | ○ | | | ○ | ○ | | |
| 정여립 | | | | | 전주 | 유교 | 상관마을 | | | | ○ | | ○ | | | | ○ | | |
| | 정역 | | | | 진안 | 민족종교 | | | ○ | ○ | ○ | | ○ | | | ○ | ○ | | |
| 정원지 | | | | | 전주 | 천주교 | 숲정이 | | ○ | ○ | ○ | | ○ | | | ○ | ○ | | |
| 정태봉 | | | | | 전주 | 천주교 | 전주옥터 | | ○ | ○ | ○ | | ○ | | | ○ | ○ | | |
| | | 정혜사 | | | 전주 | 불교 | 정혜사 | ○ | ○ | ○ | ○ | ○ | ○ | | | ○ | ○ | | |
| 조덕삼 | | | | | 김제 | 개신교 | 금산교회 | | ○ | ○ | ○ | | ○ | | | ○ | ○ | ○ | |
| 조병철 | | | | | 전주 | 천주교 | 경기전 | | | ○ | | | | ○ | | | | | |
| 조병희 | | | | | 전주 | 유교 | 한옥마을 | | | ○ | ○ | | ○ | | | | ○ | | |
| | 왕조실록 | | | | 정읍 | | 내장산 | | ○ | ○ | ○ | | ○ | | | ○ | ○ | | |
| 조성만 | | | | | 전주 | 천주교 | 전동성당 | | | | ○ | | ○ | | | ○ | | ○ | |
| 조송광 | | | | | 전주 | 원불교 | 한벽루 | | | | | | ○ | | | ○ | ○ | | |
| 조윤호 | | | | | 전주 | 천주교 | 서천교 | | ○ | ○ | ○ | | ○ | | | ○ | ○ | | |
| 조화서 | | | | | 전주 | 천주교 | 숲정이 | | ○ | ○ | ○ | | ○ | | | ○ | ○ | | |
| 주운모 | | | | | 전주 | 천주교 | | | ○ | ○ | ○ | | ○ | | | ○ | ○ | | |
| 주영승 | | | | | 전주 | 천주교 | 우석대학교 | | ○ | ○ | ○ | | ○ | | | ○ | ○ | | |
| | 증산교 | | | | 김제 | 민족종교 | 증산교 | ○ | ○ | ○ | ○ | | ○ | | | ○ | ○ | | |
| 지정환 | | | | | 전주 | 천주교 | 전동성당 | | | ○ | | | ○ | | | ○ | | | |
| 진묵 | | | | | 완주 | 불교 | 봉서사 | ○ | ○ | ○ | ○ | | ○ | | | ○ | ○ | | |
| | | 진북사 | | | 전주 | 불교 | 진북사 | ○ | ○ | ○ | ○ | | ○ | | | ○ | ○ | | |
| | | 진안향교 | | | 진안 | 유교 | 진안향교 | ○ | ○ | ○ | ○ | | ○ | | | ○ | ○ | | |
| | | 집강소 | | | 김제 | 민족종교 | 짐강소 | ○ | ○ | ○ | ○ | | ○ | | | ○ | ○ | | |
| 처영 | | | | | 전주 | 불교 | 남고산성 | | | ○ | ○ | | ○ | | | ○ | ○ | | |
| | | 척화비 | | | 익산 | 천주교 | 여산동헌 | | ○ | ○ | ○ | | ○ | | | ○ | ○ | | |
| 천상묵 | | | | | 전주 | 천주교 | 원광대학교 | | ○ | ○ | ○ | | ○ | | | ○ | ○ | | |
| 천이두 | | | | | 전주 | 천주교 | 소리 | | | ○ | ○ | | ○ | | | | ○ | | |
| | | 천호공소 | | | 완주 | 천주교 | 천호공소 | ○ | ○ | ○ | ○ | | ○ | | | | | | |
| 청전 | | | | | 전주 | 불교 | 전주교대 | | ○ | ○ | ○ | | ○ | | | ○ | ○ | | |
| 초남이 | | | | | 완주 | 천주교 | 초남이 | ○ | ○ | ○ | ○ | | ○ | | | ○ | ○ | | |
| 최담 | | | | | 전주 | 유교 | 한벽루 | | | ○ | | | ○ | | | ○ | ○ | | |
| 최명희 | | | | | 전주 | 개신교 | 혼불문학관 | | | ○ | | ○ | ○ | | | | | ○ | |
| 최석환 | | | | | 군산 | | | | ○ | ○ | ○ | | ○ | ○ | | | | | |
| 최승범 | | | | | 전주 | | 고하문학관 | | | ○ | ○ | | ○ | | | | ○ | | |
| 최시형 | | | | | 익산 | 민족종교 | 사자암 | | ○ | ○ | ○ | | ○ | | | ○ | ○ | | |
| 최양업 | | | | | 부안 | 천주교 | 신시도 | | ○ | ○ | ○ | | ○ | | | ○ | ○ | | |
| 최여겸 | | | | | 고창 | 천주교 | 개갑장터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 시기 | 테일 | 지역 | 해당종교 | 세부위치 | 테마 | | | | | | | | | | | |
|---|---|---|---|---|---|---|---|---|---|---|---|---|---|---|---|---|---|---|---|
| 인물 | 사건 | 유산 | | | | | | 건축 | 기록 | 문화 | 변혁 | 여성 | 역사 | 예술 | 음식 | 종교 | 철학 | 청년 | 환경 |
| 최재선 | | | | | 김제 | 천주교 | 수류성당 | | ○ | ○ | ○ | | ○ | | | ○ | ○ | | |
| 최정숙 | | | | | 전주 | 천주교 | 전동성당 | | | | | ○ | ○ | | | ○ | | ○ | |
| 최제우 | | | | | | 민족종교 | | | ○ | ○ | ○ | | ○ | | | ○ | ○ | ○ | |
| 최조이 | | | | | 전주 | 천주교 | 전라감영 | | ○ | ○ | ○ | ○ | ○ | | | ○ | ○ | | |
| 최중진 | | | | | 정읍 | 개신교 | | | ○ | ○ | ○ | | ○ | | | ○ | ○ | | |
| 최치원 | | | | | 정읍 | 유교 | 무성서원 | ○ | ○ | ○ | ○ | | ○ | | | ○ | ○ | | |
| | | 충경사 | | | 전주 | 유교 | 충경사 | ○ | | ○ | | | ○ | | | | | | |
| 카닥스 | | | | | 익산 | 천주교 | 나바위 | | ○ | ○ | ○ | | ○ | | | ○ | ○ | ○ | |
| 탁명환 | | | | | 정읍 | 개신교 | | | ○ | ○ | ○ | | ○ | | | ○ | ○ | | |
| 탄허 | | | | | 만경 | 불교 | | | ○ | ○ | ○ | | ○ | | | ○ | ○ | | |
| 태고 | | | | | 전주 | 불교 | 동고사 | | | | ○ | | ○ | | | ○ | ○ | | |
| | 태고종 | | | | 전주 | 불교 | 보광사지 | | ○ | ○ | ○ | | ○ | | | ○ | ○ | | |
| | | 태인공소 | | | 정읍 | 천주교 | 태인공소 | ○ | ○ | ○ | ○ | | ○ | | | | | | |
| | | 태인향교 | | | 정읍 | 유교 | 태인향교 | ○ | ○ | ○ | ○ | | ○ | | | ○ | ○ | | |
| 태조 | | | | | 전주 | 유교 | 경기전 | | | ○ | ○ | | ○ | | | | | | |
| 테이트 | | | | | 전주 | 개신교 | 서문교회 | | ○ | ○ | ○ | | ○ | | | ○ | ○ | | |
| | | 토담집 | | | 전주 | | 한옥마을 | ○ | | ○ | | | ○ | | | | | | |
| | 투석전 | | | | 전주 | | 전주천 | | ○ | ○ | ○ | | ○ | | | | | | |
| 페레올 | | | | | 익산 | 천주교 | 나바위 | | ○ | ○ | ○ | | ○ | | | ○ | ○ | ○ | |
| | | 평화의전당 | | | 전주 | 천주교 | 평화의전당 | | ○ | ○ | ○ | | ○ | | | ○ | ○ | | |
| | | 학림사 | | | 완주 | 불교 | 학림사 | ○ | ○ | ○ | ○ | | ○ | | | ○ | ○ | | |
| | | 학인당 | | | 전주 | | 학인당 | ○ | | ○ | | | ○ | | | | | | |
| | | 한들공소 | | | 진안 | 천주교 | 한들공소 | ○ | ○ | ○ | ○ | | ○ | | | | | | |
| | | 한벽루 | | | 전주 | | 한벽루 | ○ | | ○ | | | ○ | | | | | | |
| 한상렬 | | | | | 전주 | 개신교 | 고백교회 | | ○ | ○ | ○ | | ○ | | | ○ | ○ | | |
| | | 함열성당 | | | 익산 | 천주교 | 함열성당 | ○ | ○ | ○ | ○ | | ○ | | | ○ | ○ | | |
| 해광 | | | | | 완주 | 불교 | 송광사 | | ○ | ○ | ○ | | ○ | | | ○ | ○ | | |
| | | 해성학교 | | | 전주 | 천주교 | 해성학교 | | ○ | ○ | ○ | | ○ | | | ○ | ○ | | |
| 허산옥 | | | | | 전주 | | 행원 | | | ○ | ○ | ○ | ○ | | | | | | |
| | | 현대옥 | | | 전주 | | 남부시장 | | | ○ | | | | | ○ | | | | |
| 혜덕 | | | | | 김제 | 불교 | 금산사 | ○ | ○ | ○ | ○ | | ○ | | ○ | ○ | | | |
| 홍익명 | | | | | 전주 | 천주교 | 초록바위 | | | | ○ | | ○ | | | ○ | | ○ | |
| 홍재영 | | | | | 전주 | 천주교 | 전주옥터 | | ○ | ○ | ○ | | ○ | | | ○ | ○ | | |
| 홍척 | | | | | 남원 | | 실상사 | | ○ | ○ | ○ | | ○ | | | ○ | ○ | | |
| 홍희석 | | | | | 전주 | 유교 | 전라감영 | | | ○ | ○ | | ○ | | ○ | | | | |
| | | 화산성당 | | | 익산 | 천주교 | 나바위 | ○ | ○ | ○ | ○ | | ○ | | | ○ | ○ | | |
| | | 화암사 | | | 완주 | 불교 | | ○ | ○ | ○ | ○ | | ○ | | | ○ | ○ | | |
| | | 황등성당 | | | 익산 | 천주교 | 황등성당 | ○ | ○ | ○ | ○ | | ○ | | | ○ | ○ | | |
| | 황산대첩 | | | | 남원 | | | | ○ | ○ | ○ | | ○ | | | | | | |
| | 화엄종 | | | | 남원 | 불교 | 실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훔치교 | | | | 민족종교 | 훔치교 | ○ | ○ | ○ | ○ | | ○ | | | ○ | ○ | | |
| | | 흥덕향교 | | | 정읍 | 유교 | 흥덕향교 | ○ | ○ | ○ | ○ | | ○ | | | ○ | ○ | | |
| | | 흥복사 | | | 김제 | 불교 | 흥복사 | ○ | ○ | ○ | ○ | | ○ | | | ○ | ○ | | |

## 나. 종교문화유산의 특징

### ❑ 기록

- 종교 관련 기록물은 전라도의 한지, 각수, 목판과 관련된 것들로 불교의 금산사 광교원에서 제작된 유식술기와 법화현찬은 불교사상의 발달을 이끌었음. 특이한 점은 전라도의 사찰들에서 효경과 같은 유교경전까지 만들었다는 점임. 서학의 경우, 배재에서 최초의 천주교 인쇄물이 출간된 점을 볼 수 있음. 원불교경전의 경우, 원평교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고려시대 천민 취급을 받던 소민들이 고려자기, 고려종이, 고려인삼, 고려생강, 고려소금, 고려기와, 고려불화 등을 일궈냈다면, 조선시대 종교로 인해 비롯된 박해로 심산궁곡에서 소민들의 활동을 이어받은 장인들의 종교생활을 살피면 또 하나의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음. 이는 천주교의 공소 신앙인들의 자기와 도기의 제작, 인삼과 생강의 재배 등을 살펴도 알 수 있으며 한지의 제작도 그러함[29)]

### ❑ 여성

- 불교에서의 비구니들의 활약은 비교적 최근에 적극적인 차원으로 펼쳐짐. 유교로 본다면 원나라의 여효경과 강아와 단아(논개), 여산송씨를 살필 수 있고, 천주교에서는 유항검과 이순이의 동정부부 얘기가 선교사들의 진주와도 같다는 것처럼 탁월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육희, 신희 등과 이조이, 심조이, 김조이, 최조이 등의 여성들의 순교상을 알 수 있음

- 개신교에서는 방애인, 잉골드, 서서평 등의 여성이 여성운동, 교육사업, 구제사업 등에 적극적인 활동을 했음. 원불교에서는 이공주, 이청춘 등 십타원의 활약이 돋보이는데, 이 활약들의 배경 중 상당부분이 전라도와의 관련성을 지님. 동학과 남학에 있어서도 여성의 활동은 지대하며 기전학교, 성심학교 등의 여학교 역시 이런 맥락에서의 여성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그런가 하면 천주교에서의 일제강점기의 최정숙, 강평국, 박임근 등의 여성과 현대의 노동열사 박복실, 민주열사 박승희 등도 여성의 활약상에서 두드러진 인물들임[30)] 개신교

29)한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완주 구이, 배재, 광곡, 평촌, 상관, 소양 등과 밀접히 관계되는데, 이 지역들이 고려시대 천민들과 관련성이 있고, 조선시대 공소들과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을 살필 필요가 있음. 여기에 소개령이 있을 때 닥나무와 닥무지에 기대 살던 천주교 신앙인들이 내몰리고 이를 송광사의 주지가 거둬 먹이고 재우며 살린 얘기들하며, 이에 감사의 뜻으로 선교사가 마로니에 나무를 선사하여 송광사 정원 한 가운데 마로니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다는 얘기들까지 아름다운 일화들도 가득함

30)최정숙에 관해서는 언급이 필요함. 제주도에서 태어나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활약한 최정숙은 후에 제

안에서 신사참배 거부와 삼일운동 참여에 여성들의 활약상이 지대함. 동학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여성들의 활약상은 종교가 각기 달라도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기치를 그 뿌리에 두고 있음을 반영함

- 현대에 이르러서도 사찰음식의 대안스님, 참선명상의 무여스님 등 다양한 여성들의 활약을 눈여겨 볼 수 있음. 개신교 안에서의 이강실목사 등도 두드러지게 활약하고 있으며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원불교 안에서는 수많은 교구장들이 활동하고 있고, 천주교 내에서도 여성사목회장 등 여성운동, 여성활동 등에 있어서도 앞장서고 있음

### ❑ 나눔

- 강진 출신의 금오스님은 전주에서 탁발생활을 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핌. 완주 출신의 해광스님은 천주교 신앙인들까지도 사찰에 맞이해서 먹이고 재웠음. 남원 출신의 구산스님은 쌀 한 톨이라도 굴러가는 것을 아꼈는데 완주 출신의 석전스님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를 말라고 했으며 김제 출신의 청전스님은 백성들을 위해 부러진 안경도 마다하지 않았음

- 천주교에서도 자린고비의 얘기가 많은데 블랑주교는 전라도 신앙인들이 하루 한 끼를 먹으면서도 경기도의 옥중에 있는 신앙인들을 위해 사식비용을 가장 많이 거뒀다고 전해짐. 이학수와 이춘화는 성심학교 땅을 기증하고, 서정수신부는 걸어다니면서까지 모은 돈으로 걸인들을 보살피며, 이북석은 정신박약아동을 위한 건축 등에 재산을 바쳤음. 지정환신부와 김경애와 배영근 신부도 마찬가지임

- 개신교의 나눔 이야기 중 손꼽히는 것은 방애인의 자선, 이보한의 베풂, 잉골드의 뒤주 얘기 등을 통해서 엿볼 수 있음. 한센인의 돌봄도 의미가 큼.[31] 금산교회의 조덕삼과 이자익의 얘기는 전국을 너머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아름다운 얘기임. 원불교의 엿장수를 해서 교육활동에 이바지한 것도 널리 회자되는 얘기로 이는 민족종교와 무속신앙의 양상에서도 드러나는 일임

- 천주교 최재선주교의 단칸방, 원불교 김대거종사의 동락당, 불교의 경허만공스님 천장암 등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여실히 보여줌.

---

주도 초대교육감이 될 정도의 중책을 맡은 인물임. 그런 그가 나바위에서 활동하고 전동성당과 성심학교의 선생으로 애국을 위한 노래를 작곡하고 감옥에 갇혀 지냈던 곳이 전라도임. 이런 그의 활약상이 전라도에서는 묻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업도 진행되지 않으며, 제주도에서는 연극과 영화로 제작되고 있음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

31)한센인은 신암공소, 왕궁공소, 상지원, 동혜원 등이 돌봄의 상징이 됐음. 경허스님, 방애인의 얘기도 마찬가지임

- 1847년 신시도 앞바다에서의 서양군함 영광호와 승리호의 좌초, 그리고 수백명에 달하는 프랑스 군인들과 선원들이 굶어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주민들과 전라도관찰사 모두가 합심하여 식량과 고기를 제공하고 무사히 귀환한 사건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음[32)]

## ❑ 복식

- 특별히 전라도 지역에서 한지나 한복과 관련된 차원에서의 복식이 의미를 지님. 한지사를 이용한 종교예식복장과 일상생활복장도 전라도에서 특별히 발달한 종교복식이라고 말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 각 종교의 신앙인들은 장인들과 더불어 기량을 봄내고 침선과 자수의 장인이 옷을 짓고 딴을 내는 등의 모습을 보였음

## ❑ 음식

- 선운사 보은염, 만일암 장류, 전주 출신 대안스님의 사찰음식은 이미 국내는 물론 세계를 통해 정평이 나 있음. 천주교의 치즈에 관한 지정환신부, 멜라초, 물냉이, 언홍시 등과 얽힌 로컬푸드와 와일드푸드 역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고 스님과 목사의 짜장면 나눔이라든가, 청년무료급식, 원불교의 영산식품 등 먹거리와 관련된 풍부한 얘기들이 있음

## ❑ 음악

- 고려시대로부터 이어온 영산작법은 단순히 영산회상과 관련된 차원을 뛰어넘음. 전라도가 소리로 회한(Ressentiment)의 감정을 풀어내는 해원(Resolution)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음.

- 천주교 안에서의 사향가와 연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의 가사문학이자 종교음악으로 자리함. 이러한 종교음악이 전라도에서 두드러지게 작용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개신교와 원불교의 음악 안에서도 해원과 치유에 관련된 음악 구성이 크게 드러남

- 음악을 확대해서 본다면, 미술, 건축 등이 어우러진 의식, 예식 등이 화합과 상생의 제전인 치유와 힐링을 통해 나아간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이는 가장 원초적인 차원의 기억과 회상인 Anamnesis로까지 이끔. 종교는 하나의 제사이자 제전이기 때문에, 달리 그 어

32)세계종교문화축제에서는 줄곧 신시도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에 초점을 맞췄음. 조선왕조실록과 여타 자료들을 찾았으나, 단편적인 그리고 파편적인 자료들만 얻을 수 있을 따름. 그러나 이후 프랑스군사기록원에 수십차례 의뢰하고 여러 차례 찾아간 결과 영광호와 승리호에 관련된 자세한 기록과 진술을 찾을 수 있었음. 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의 신시도는 이런 얘기와 결부될 때 훨씬 더 큰 콘텐츠로 각광받을 것임

떤 축제나 어느 축전을 따라 사족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 축제이자 축전임

### ❑ 미술

- 고려불화의 수월관음의 명맥은 파편화되어 끊겼지만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곳이 전라도임. 백의관음은 내소사, 위봉사 등 곳곳에서 보이고 탱화 역시 전라도 안에서 활발하게 펼쳐졌음. 이응로화백과 김기창화백이 전주와 군산에서 활동했던 시절의 작품들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김기창화백의 예수는 군산에서 그려진 작품들로 알려져있음
- 한 가지 구체적으로 파헤칠 부분은 낭곡 최석환의 포도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는 이철량교수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종교와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각 종교의 신앙인 화가들이 다양한 면모로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전주성물공예학교에서 세공, 목공, 한지, 자수, 화훼 등에서 성물을 제작하는 것도 볼 필요가 있음

### ❑ 영화

- 전라도는 책자와 소리와 연극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것이 영화로까지 발달함. 바로 그런 것처럼 종교영화 역시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전라도에서는 무엇보다 많은 종교문화자원 콘텐츠의 크기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종교영화의 발달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 건축

- 불교건축은 가람배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는 어느 종파인가에 따라 본전의 차이는 있지만, 일주문, 천왕문, 대웅전, 산신각 등의 배치구조는 일관성이 있음. 궁전각당루정의 짜임새와 차이점도 살필 수 있음. 이는 금산사, 은적사, 송광사, 선운사, 내소사, 강천사, 내장사, 실상사, 금당사, 백련사 등과 미륵사지, 경복사지, 보광사지 등의 구성도 알 필요가 있음
- 관음신앙과 지장신앙은 전국 그 어디에서도 보이는 신앙이지만, 미륵신앙은 특별히 전라도 지방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신앙임. 금산사의 가람배치는 본전을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으로 하고 있지만, 미륵전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적멸보궁이 중심이 되기도 하며 대장전도 또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그 모두가 중심의 자리임을 드러내는 점 또한 특징적임

- 특별히 하앙식구조를 지닌 화암사는 백제문화의 일본전수의 결정적인 역할을 주는 단서가 되고 있고 여기에 군산의 동국사는 일본사찰의 형태까지 간직하고 있어서, 불교건축의 다양한 면모를 전라도에서 발견할 수 있음. 앞선 언급에서처럼 금산사의 인쇄출판지구인 광교원이 독특하게 사찰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부각될 수 있는 점으로 꼽힘

- 세상에 스며든 불교사찰의 구조는 수현사와 서고사를 통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서고사에 자리하는 세계명상센터는 명상에 적합한 차원에서의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음. 불교건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불교건축과 현대건축의 복합적인 의미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수긍한다는 점에서 놀라운 변화를 자아냄

- 유교의 향교와 서원은 교육과 제사와 관련된 배치구조를 가짐. 특별히 전주향교는 공자의 조상을 공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대 등이 태조의 조상을 공경하고 있다는 점으로 상통함. 이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데 원형(ArcheType)의 차원을 지니기 때문으로 이는 유럽과 북미의 여러 지역을 살펴도 자명함[33)]

- 무성서원의 경우, 최치원의 콘텐츠를 부각해 도통설의 허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유교건축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앞선 언급처럼 금산사의 처영관, 학당사 등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 등과 달리 여러 종교의 화합과 상생의 맥락에서 조상들을 모시는 자리가 마련된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 유교에 있어서의 남녀의 철저한 구분은 한옥과 향교와 서원의 건축에서 분명히 드러남. 하지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기려 간직한 논개사당인 의암사는 상징적임.[34)] 사랑채에서의 제사에 여인들은 참여할 수 없게 안채에 꽁꽁 걸어 잠근 유교문화의 폐쇄성과는 달리 여성임에도 단독으로 사당에 모시고 기리는 것은 독자적 가치를 지님

- 서학에서의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남. 초남이에서의 최초의 순교자는 해석에 따라서는 조상제사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만, 조상제사문제폐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해야 옳을 수 있음.[35)]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지충이 모친의 뜻을 따른 것

33)전라도와 비슷한 지역으로 이탈리아의 피렌체, 프랑스의 렝스, 스페인의 톨레도, 독일의 마인츠 등을 거론할 수 있음. 모두 고도이면서도 그 나라의 정신이 담겨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지역들이고 게다가 전통과 정통의 맥을 잇고 있다고도 여겨짐. 예를 들면 잔다르크가 프랑스의 렝스지역을 탈환하려고 한 것은 본래 프랑스 임금의 대관식이 있어야 할 자리였기 때문임. 전라도에서 왕조의 조상까지 모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와 상통하는 바가 큼. 고종이 마지막 조선왕조가 시들어갈 때 전주의 경기전, 조경묘, 조경단 등에 애착을 가진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음

34)단아가 그렇다고 하면, 강아 또한 그리 넋을 기리는 것도 또한 전라도에서 추구해야 할 바임. 이는 혁신유교에 앞장선 전라도에서 필요한 일임. 만일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한 맺힌 여인들이 서원과 사원에 배향된다면 이는 유교 내에서 혁명과도 같은 일일 것이며, 유교가 시대에 부응하는 길이 될 것임

35)예나 지금이나 조상제사에 관련된 바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문제점에 대한 재론이 됨. 사실 유교에

임에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모친의 뜻을 따른 것도 그렇지만 모친의 의중 또한 되새길 필요가 있음

- 전라도 안에서의 서학의 건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그것도 마치 박람회를 연상케 함. 천주교 종교건축을 한 눈에 보고자 한다면 전라도 안에서 가능한데 다블뤼의 피난굴, 블랑의 피난굴, 보두네의 피난굴 등과 함께 최초의 한옥 성당이 되재성당, 천호공소, 신성공소, 쌍치공소, 수분공소, 그리고 유일한 너와성당인 어은공소 등이 전라도 일대에 자리하고 있음

- 그런가 하면 한옥과 중옥과 양옥의 복합형태인 수류성당과 화산성당(나바위성당)이 있고, 일식의 안대공소, 로만, 고딕과 근대의 복합양식인 전동성당이 있음. 기둥이 없는 중앙성당을 비롯해 벽돌구조의 삼례성당, 함열성당, 황등성당, 여산성당, 쌍교성당, 시기성당, 상관성당 등이 벽돌양식을 지니며, 성심학교, 해성학교, 인보성체회와 가톨릭센터는 바우하우스의 건축풍까지 자아냄

- 게다가 천호성지부활성당과 천호성지박물관은 현대적인 감각의 건축양식을 간직하면서도 고유의 정체성은 깊이 간직하고 있음. 그런가하면 기린봉의 산상성당은 독특한 양식과 남상교-남종삼-남명희 후손의 테일벽화가 상징적으로 자리한다는 점에서 돋보임. 세계평화의전당은 유럽의 수도회와도 같은 공간이면서 누구나에게 열려있어, 말 그대로 전당의 의미를 간직함

- 되재성당과 신성공소와 화산성당의 가운데 칸막이가 남녀칠세부동석이나 남녀의 구분을 의미한다는 해석은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 당시로서는 여성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임. 개신교 기역자교회도 마찬가지임. 그런 의미에서 여성해방과 밀접한 관련성을 살펴볼 수도 있음

- 개신교의 기역자교회는 전국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익산의 두동교회와 금산의 금산교회를 통해 살필 수 있음. 이를 함열, 황등, 낭산, 금구, 금산의 여러 기역자형 한옥에서 원형을 볼 수도 있지만, 남녀의 수용이라는 점에서 특징지을 수 있음. 천주교 안에서 서학성당은 현대건축의 의미를 담은 기역자성당의 모델을 간직하고 있기도 함

- 원불교의 건축은 소박한 건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원불교중앙총부의 여러 다양한 건축에서 보듯이 함께 예식에 참여하는데 남녀노소가 없다는 점이 또한 특징임. 원불교중앙총부의 내부 건축물 모두 남녀 교무 누구나에게 공명정대하게 주어진 공간으로 작용한다

서의 지나친 허례허식이 유교를 폐단으로 이끌고 나라도 망국으로 몰았다고 하는 얘기도 넘쳐남. 그런 맥락에서 천주교의 조상제사문제폐단과 관련된 윤지충과 권상연의 행동은 재해석될 필요가 있음. 이런 부분은 대박청래사건과 관련된 재해석과도 맞물림. 대박청래가 나라를 팔고자 함이 아니라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 차원에서 개방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임

는 점도 인상적임. 이런 점들은 종교는 달라도 공유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이외에도 민족종교인 천도교, 증산교, 보천교, 순천교 등의 건축을 다시금 살필 필요가 있음. 배치에서부터 보천교 종교건축이 해체되기까지의 얘기, 그리고 무속과 같은 민간신앙의 건축도 봐야 함. 건축은 배치와 건축과 상징을 다 들여다봐야 하는 종합예술인데, 이는 사람들의 치유공간의 의미가 크기 때문임. 전라도 종교건축이 새롭게 해석돼야 되는 까닭은 여기에 있음

- 특별히 전라도에 한류의 토착화된 건축들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건축투어나 한옥투어의 맥락에서 종교건축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도 가능함. 여기에 최근 한옥의 해외진출 및 한류의 해외소개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전라도의 한옥종교건축이 세계로 진출하게 될 것이고 새롭게 재구성되게 될 것임[36)]

## ❑ 열사

- 환경열사인 문수스님의 소신공양, 민주열사인 개신교의 이세종열사, 통일열사인 천주교의 조성만열사, 노동열사인 천주교의 박복실열사, 민주열사인 천주교의 박승희열사, 통일열사인 개신교의 강희남열사 등과 이밖에도 농촌, 노동, 시민, 통일, 환경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한 문정현신부, 문규현신부, 리수현신부, 한상렬목사 등도 거론할 필요가 있음

-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노동청년회, 기독교농민회, 인드라망 운동들에서처럼 농촌, 노동, 환경 등에서 활발한 운동들을 전개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이는 근현대 역사 안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대목이며, 전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바임. 그 안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인물들과 사건들도 또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환경

- 탄소제로와 기후행동에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종교계는 가장 앞장서서 진취적으로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위대로 사찰, 교당, 성당, 교회 등에서 개인이 아닌 단체의 힘은 훨씬 큰 움직임을 낳을 수 있음. 그러므로 종교문화자원은 앞으로 새로운 세대를 위한 환경생태에 큰 움직임이 될 것임

- 기린봉의 경우, 매우 이색적으로 성산(聖山)으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더 커나갈 수 있음. 무속신앙과 민속신앙은 물론,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등의 다양한 종교문화유산이 혼재

36)유럽과 미국에 진출한 한옥건축과 더불어 최근에는 바티칸과 아랍지역. 유네스코 등에도 한옥종교건축의 시도들이 모색되고 있음

되어 있으며, 이들이 서로 다툼과 갈등이 없이 화합과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음. 특별히 기린봉은 환경과 생태에 있어서 종교식물과 종교정원이 갖추어질 수 있기에 안성맞춤임[37]

## ❑ 치유

- 종교는 그동안 시름에 지치고 설움에 버거운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옴. 사회복지시설들에 바른 정신으로 함께하고, 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병환자 등에게 치유의 길을 제시함. 전라도 안에서도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치유와 힐링의 차원들로 이끌었음. 이 모든 일들에 얘기들의 수집은 아름다운 일화로 자리할 것임

- 니체는 회한(Ressentiment)에 대해 깊은 얘기를 했는데 전라도는 정계진출이 꺾인 고려시대 이후로 유민이나 장인, 천민으로 살아온 백성들이 많았고, 그것들이 원한으로 되물림되는 경향들도 많았음. 전라도의 종교는 그러한 바들이 해원(Resolution)으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 바로 그런 점에서 진정한 치유를 선사할 수 있음.

- 의료인들 안에서의 종교인들로서의 치유 또한 살필 필요가 있는데 예수병원의 잉골드, 이길여,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의 안득수, 임철완 등은 의료인으로서도 품격을 갖췄지만 종교인으로서나 신앙인으로서도 모범을 보였었음.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등에서의 천상묵, 주영승 등의 한방관련 의료인들의 활동도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의료관광 성지순례 등의 가능성을 시사함

## ❑ 순례

- 덧붙여 여러 종교가 함께 하는 순례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하며, 유엔과 유네스코, 그리고 바티칸 등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라도만의 차별화된 프로젝트로 전개하면서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등지에서 전개되는 프로젝트를 전라도 전체로 확대한다면 이는 전라도 전체를 하나로 엮는 관광거점이 될 것임

- 2009년부터 시작된 세계순례대회와 외연이 확대된 상태로의 2015년부터 시작된 세계종교문화축제는 이미 유엔과 유네스코, 유럽연합, 그리고 바티칸을 비롯한 세계각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종교평화와 관련된 차원에서의 향후의 희망을 제시한다는 맥락에서 전라도 안에서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37)은행나무, 배롱나무, 호랑가시나무, 겹동백, 홍매화, 청매화, 쌍백합, 옥잠화, 맹종죽 등 종교식물 등은 다양함. 이는 환경생태이자 종교치유로서 자리하게 될 것임

- 산티아고와 샤르트르를 초청한 때의 진단으로는 예루살렘, 산티아고, 샤르트르, 시코쿠 메구리, 라싸 등은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고 순례의 이념과 가치를 분명히 한 까닭에 몇 백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함없이 유지되고 존속되는 바가 강하게 거론되었음. 세계종교문화축제는 걷는길연합, 걷기동아리 등에 이런 사실들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고, 사업과 감사를 병행하고 있음

- 중요한 것은 현재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등에서 펼쳐지는 순례의 외연이 전라도 전체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이는 코리안둘레길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에도 이미 거론된 사항임[38] 만일 전라도의 순례길이 효시로 작용한다면, 이는 예루살렘, 샤르트르, 산티아고 등에 못지않은 세계적인 명품길로 발돋움할 수 있고, 전라도는 그 허브와 중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

## ❑ 축제

- 종교기록, 종교음식, 종교성물, 종교건축 등을 축제콘텐츠화하여 세계종교기록대전, 세계종교음식경연, 세계종교성물페어, 세계종교건축대전 등으로 키울 수 있음. 이와 더불어 현대인이 필요로 하는 세계명상대회 역시 가능함.[39] 이를 세계종교문화축제에서는 구현해 나가고 있음.

- 이미 유엔과 유네스코, 유럽연합, 바티칸 등에서는 종교 화합과 상생의 축제에서 세계평화의 기대를 하고 있음. NGO 가입의 요청까지도 직접 한 상태로 따라서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고 세계종교문화축제가 잘 구축되면 한반도에서만이 아니라 분쟁지역, 그리고

38)코리안둘레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청소년순례길을 전개하던 팀장이 과장이 되면서 산티아고길처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한국관광공사와 더불어 야심차게 진행한 프로젝트임. 그래서 만들어진 길이 해파랑길, 남파랑길, 서해랑길임. 그런데 남파랑길과 서해랑길에 이르러서 벽에 부딪힘. 갯벌에 대한 호불호가 갈렸기 때문임. 자문을 구하기에, 이에 대해 자연문화유산만이 아닌 종교문화유산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차원들이 형성된다는 제안을 했음. 과장은 획기적이면서 긍정적이기에 방향선회를 모색했지만 제주올레를 염두하고 바닷가길만 고집한 프로젝트팀은 고집을 꺾지 않았음. 결과값은 실패로 대신 과장은 종무실에 종교문화자원을 이용한 순례길이 보다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함. 종무실에 제안을 했고, 종무실에서는 그로부터 몇 해 후 몇몇 지역의 제안을 받아 시범사업을 했음. 치유순례의 이름 아래 진행된 프로젝트였는데 여러 지역들에서 신청을 했고. 처음 제천, 당진, 용인. 김제 등이 일차적으로 선정됐고, 이어 익산, 전주, 순천, 경주 등이 이차적으로 선정되었음. 그렇게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지원을 토대로 치유순례는 실시됐고 진행되었으나 몇몇 지역은 이미 실패의 길로 가고 있음. 특정종교로 진행되는 한계라든지 퍼주기식의 순례로의 모순으로써 비롯된 결과임. 순례와 여행과 관광을 혼동하는 지방정부와 위탁용역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남.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런 의견을 피력함과 동시에 세계종교문화축제는 전주와 순천의 치유순례 등의 컨설팅에 참여할 예정임.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 원형(ArcheType)을 만들어내기 위함임. 만일 원형이 충실히 만들어지면 전국적인 차원으로의 확산이 가능할 것. 만일 전라도에서 보다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이에 관한 집중적인 투여를 통해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는 것임

39)세계명상대회는 명상, 영성, 관상 등이 구현될 수 있는 세계명상센터, 세계평화전당, 글라라수녀원, 담마 등 여건이 두루 갖춰져 있음. 명상지도를 위한 종교인과 성직자와 수도자와 수행자도 갖춰져 있음

전세계에 효시와 모범이 될 수 있음

- 축제의 피날레는 세계종교지도자들과 세계정치지도자들이 전라도에 한데 모여 세계평화 선언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임. 이미 십오년의 경륜과 노력이 있고, 다른 여러 지역은 그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했지만 좋은 결과는 내지 못함. 그런 면에서 전라도는 여러 걸음을 차분하고 겸손하게 앞서가고 있기에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1.2 전라북도 문화·관광 자원 현황

### 가. 전라북도 지역현황 분석[40]

#### ❑ 입지적 여건

- 전라북도는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소백산맥을 경계로 경상도와 인접하며 북쪽으로는 금강을 경계로 충청도, 남쪽으로는 노령산맥을 경계로 전라남도와 인접함
- 주요 경제거점도시인 서울, 대구, 목포와는 약 200㎞, 광주, 대전, 세종과는 100㎞내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함

〈그림 31〉 전북의 대내적 입지



자료 : 전라북도(2016) 제6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

#### ❑ 행정구역

- 면적은 8,069㎢로 전 국토의 8.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4개 시·군(6개시, 8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은 읍 15개, 면 144개, 동 84개로 이루어짐
  - 전주시를 제외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는 읍·면을 중심으로 하는 도농통합시의 특성을 지님

#### ❑ 자연환경 여건

- 전라북도는 동쪽으로는 소백산맥, 노령산맥, 진안분지 등의 산악지역이며, 중앙은 김제평야, 만경평야 등의 평야지대로 이루어짐, 서쪽으로는 해안선을 보유한 동고서저의 계단식 지형임
- 전라북도의 동부지역은 산악지형, 서부는 해안 및 평야지대로 다양한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어 다양한 관광요소를 지니고 있음
- 국가관심지점정보(POI)에서 보면 도내에는 산이 608개가 분포되어 있음

40)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참고

- 전라북도에 속한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고원)은 72개이며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분포된 산은 18개 등으로 총 90개가 보호되고 있음

## ❑ 인문사회여건

- 전라북도 총 인구는 2019년 기준, 1,851.991명임
- 2019년 기준 시군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전주시가 663,098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익산시(292,916명), 군산시(276,232명)순으로 많음. 가장 적은 인구수는 장수군(11,308명)으로 무주군이 (12,421명)으로 적음

**〈표 10〉 2019전라북도 시군별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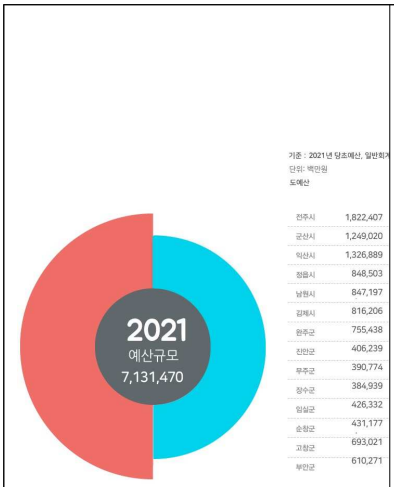
2020년도 기준

| 행정구역 | 소계 | 남 | 여 |
|---|---|---|---|
| 전라북도 | 1,851,991 | 922,410 | 929,581 |
| 전주시 | 663,098 | 326,328 | 336,770 |
| 군산시 | 276,232 | 140,386 | 135,846 |
| 익산시 | 292,916 | 146,071 | 146,845 |
| 정읍시 | 113,415 | 56,556 | 56,859 |
| 남원시 | 82,463 | 40,330 | 42,133 |
| 김제시 | 85,924 | 43,041 | 42,883 |
| 완주군 | 95,881 | 49,449 | 46,432 |
| 진안군 | 26,070 | 13,124 | 12,946 |
| 무주군 | 24,536 | 12,163 | 12,373 |
| 장수군 | 22,818 | 11,346 | 11,472 |
| 임실군 | 29,244 | 14,810 | 14,434 |
| 순창군 | 28,777 | 13,915 | 14,862 |
| 고창군 | 56,467 | 27,929 | 28,538 |
| 부안군 | 54,150 | 26,962 | 27,18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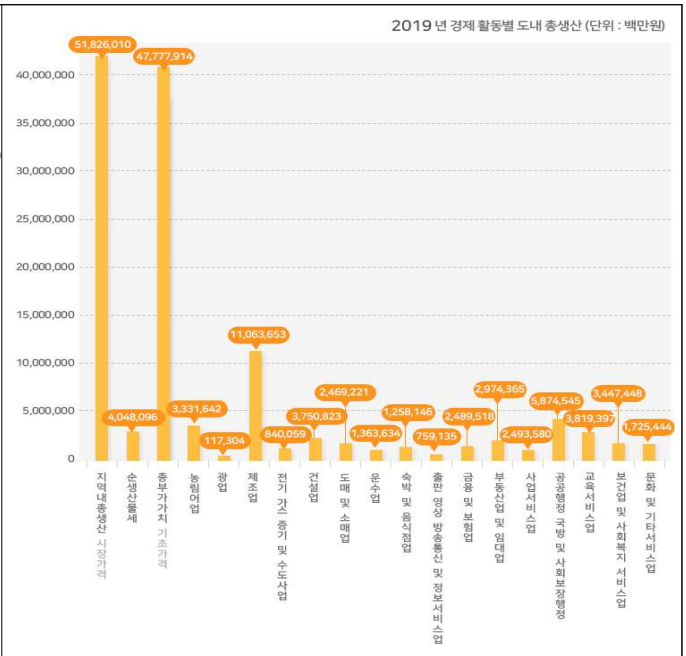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 전라북도 기본통계 시군구별세대 및 인구 주민등록

## ❑ 지역경제여건

- 전라북도 예산규모는 2021년 당초 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 7,131,470백만원임 전주시가 1,822,407백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익산시가 1,326,889백만원으로 뒤를 이음
- 2019년 경제 활동별 도내 총생산을 살펴보면, 지역내 총 생산은 시장가격 51,826,010백만원이며, 총부가가치는 47,777,914백만원임. 제조업이 11,063,653백만원으로 생산량이 가장 높으며 사업서비스업이 2,49,580백만원으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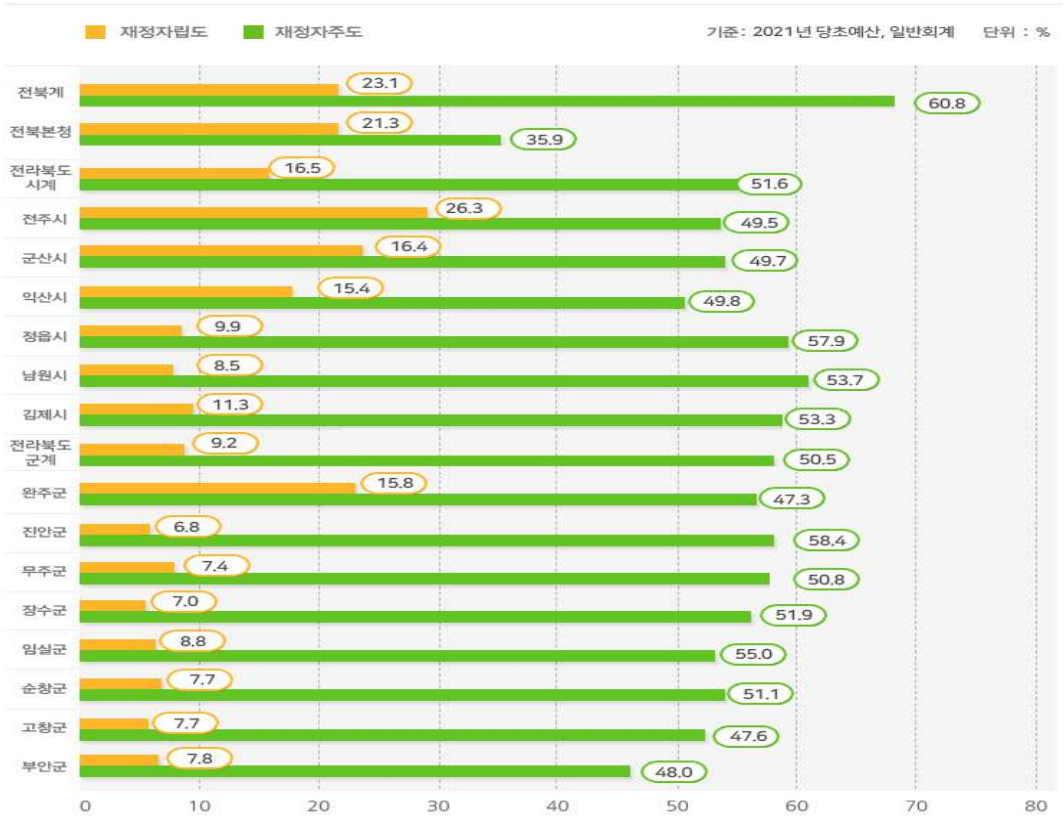



〈그림 32〉 전라북도 예산규모




〈그림 33〉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

○ 2021년 당초예산과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재정자립지표를 보면 전북의 총 재정자립도는 23.1%이며 재정자주도는 60.8%에 해당함




〈그림 34〉 전라북도 재정자립지표

## 다. 관광자원 현황[41]

### ❑ 자연관광자원

-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보유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곳임.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22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음. 전라북도는 국립공원 중 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 4곳을 보유하고 있음
- 도립공원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자연경관을 대표할만한 국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경관지를 말함. 도립공원은 2020년 기준 30개소의 도립공원이 있으며, 이 중 전라북도는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4개소의 도립공원을 보유하고 있음
- 군립공원은 시·군의 자연경관을 대표할만한 곳으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외의 자연경관지를 말함. 1981년 순창군의 강천산이 최초의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2020년 말 기준 27개소의 군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음. 전라북도는 강천산을 비롯해 장안산 2개소의 군립공원을 보유함
-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우수한 지역으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임. 전라북도는 고창군과 부안군 2개군을 포함한 전북 서해안권과 진안·무주 2개소를 보유하고 있음
- 자연휴양림은 전라북도에 와룡, 세심, 고산, 남원흥부골, 방화동, 무주, 데미샘, 성수산, 향로산 7개소가 있으며 산림욕장은 18개소가 있음

### ❑ 인문관광자원

-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유산 3건을 등재하며 2022년 11월 기준 15개를 보유하고 있음
  -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전북 익산시와 충남 공주시, 부여군 등 3개 시·군의 8곳의 유적)가 지정되었고, 이중 익산시는 왕궁리유적(사적 제 408호), 미륵사지(사적 제 150호) 등 2곳이 등재됨
  -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기관의 유형을 대표하는 9개의 서원이 2019년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읍시의 무성서원(사적 제 166호)이 포함됨
  - 한국의 고인돌은 거대한 바위를 이용해 만들어진 선사시대 거석기념물로 무덤의 일종인데,

41)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참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창, 화순, 강화, 세 지역에 나뉘어 분포함. 2000년에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유적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유적



왕궁리 5층석탑



무성서원

출처 : 유네스코와 유산(https://heritage.unesco.or.kr/)

**〈그림 35〉 전라북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2019년 기준 전라북도 소재 전통사찰은 118개소로 경북 178개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로 전국 사찰의 약 12.19%의 비중을 차지함

**〈표 11〉 2019전라북도 전통사찰 현황**

단위: 개소

| 행정구역 | 소계 | 사찰명 |
|---|---|---|
| 전라북도 | 118 | |
| 전주시 | 11 | 남고사, 동고사, 불정사, 서고사, 선린사, 승암사, 실상사, 악수암, 일출암, 정혜사, 학소암 |
| 군산시 | 7 | 보천사, 불수자, 상주사, 성흥사, 운심사, 은적사, 지장암 |
| 익산시 | 9 | 남원사, 문수사, 백운사, 사자암, 석불사, 숭림사, 심곡사, 자명사, 태봉사 |
| 정읍시 | 10 | 남산사, 내장사, 다천사, 법인사, 보림사, 석탄사, 유선사, 일광사, 정토사, 정혜사 |
| 남원시 | 15 | 관음사, 귀정사, 극락암, 대복사, 덕음암, 미륵암, 백련사, 선국사, 선원사, 승련사, 실상사, 심경 암, 연화사, 용담사, 창덕암 |
| 김제시 | 14 | 귀신사, 금산사, 망해사, 문수사, 성모암, 쌍용사, 용봉사, 원각사, 조앙사, 청룡사, 청운사, 학선 암, 혜봉사, 흥복사 |
| 완주군 | 9 | 대원사, 봉서사, 송광사, 안심사, 원등사, 위봉사, 정수사, 학림사, 화암사 |
| 진안군 | 7 | 고림사, 금당사, 보흥사, 옥천암, 은수사, 천황사, 탑사 |
| 무주군 | 5 | 백련사, 북고사, 안국사, 원통사, 향산사 |
| 장수군 | 6 | 미륵암, 성관사, 신광사, 영월암, 원흥사, 팔성사 |
| 임실군 | 4 | 상이암, 신흥사, 죽림암, 해월암 |
| 순창군 | 6 | 강천사, 구암사, 대모암, 만일사, 실상암, 일광사 |
| 고창군 | 8 | 도솔암, 문수사, 상원사, 석상암, 선운사, 소요사, 용화사, 참당암 |
| 부안군 | 7 | 개암사, 내소사, 내원암, 성황사, 실상사, 용화사, 월명암 |

출처: 전라북도(2019) 문화유산과 - 전라북도 전통사찰 등록현황(2019.10.31.기준)

## ❑ 전라북도 문화재 현황

- 전라북도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956개, 지방지정문화재 223개, 문화재자료 486개, 등록문화재 157개임
- 종교별 문화재는 불교가 322개, 천주교 13개, 천도교(동학) 9개, 기독교 3개, 원불교, 2개 순임

〈표 12〉 전라북도 문화재 현황

2020년도 기준

| 행정구역 | 국가지정문화재 | 지방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 등록문화재 |
|---|---|---|---|---|
| 합계 | 956 | 223 | 486 | 157 |
| 도 | 1 | - | 1 | - |
| 전주시 | 113 | 24 | 69 | 14 |
| 군산시 | 53 | 7 | 17 | 6 |
| 익산시 | 99 | 24 | 40 | 14 |
| 정읍시 | 96 | 17 | 50 | 19 |
| 남원시 | 123 | 39 | 55 | 29 |
| 김제시 | 76 | 19 | 42 | 7 |
| 완주군 | 54 | 11 | 36 | 3 |
| 진안군 | 39 | 9 | 18 | 9 |
| 무주군 | 34 | 7 | 22 | 4 |
| 장수군 | 39 | 4 | 15 | 13 |
| 임실군 | 42 | 5 | 22 | 11 |
| 순창군 | 39 | 6 | 23 | 10 |
| 고창군 | 86 | 27 | 41 | 16 |
| 부안군 | 62 | 24 | 35 | 2 |

출처: 통계청 - 전라북도 기본통계 교육 및 문화 (문화재)

〈표 13〉 전라북도 종교별 문화재 현황

2022년 11월 기준 / 단위 : 건

| 종교 | 합계 | 국가지정문화재 | | | | | | | | 도지정문화재 | | | | | |
|---|---|---|---|---|---|---|---|---|---|---|---|---|---|---|---|
| | | 계 | 국보 | 보물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국가민속문화재 | 등록문화재 | 계 | 유형문화재 | 기념물 | 민속문화재 | 문화재자료 | 등록문화재 |
| 합계 | 466 | 122 | 6 | 78 | 12 | - | - | 7 | 19 | 344 | 187 | 31 | 11 | 114 | 1 |
| 불 교 | 322 | 97 | 6 | 77 | 5 | | | | 9 | 225 | 165 | 13 | 2 | 45 | |
| 천주교 | 13 | 6 | | | 2 | | | | 4 | 7 | | 4 | | 3 | |
| 기독교 | 3 | 1 | | | | | | | 1 | 2 | | | | 2 | |
| 원불교 | 2 | 1 | | | | | | | 1 | 1 | | | | | 1 |
| 동 학 | 9 | 6 | | | 3 | | | | 3 | 3 | | 3 | | | |

출처: 전라북도 내부자료

## ❑ 관광산업현황

- 관광지란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곳 중에서 정책상 관광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말함. 전라북도의 관광지는 2020년 기준 21개소가 지정됨

  - 남원, 은파, 사선대, 방화동, 금마, 운일암·반일암, 석정온천, 금강호, 위도, 마이산회봉, 모악산, 내장산리조트, 김제온천, 웅포, 모항, 왕궁보석테마, 백제가요정읍사, 미륵사지, 오수의견, 벽골제, 변산해수욕장

- 관광단지는 관광산업의 진흥 촉진 및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을 말함. 2020년 말 기준 46개소이며 전북은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가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음

-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시설 밀집지역으로 야간 영업시간 재개 등의 조치를 통해 관광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2020년 말 기준 전국 33곳이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전라북도는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등 2개소가 지정됨

- 전라북도의 관광숙박시설은 2019년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내부자료에 의하면 50개소(5,275실)임. 관광호텔업이 29개소로 가장 많고, 한국전통호텔이 1개소로 가장 적음

- 기타 관광숙박시설로는 한옥체험, 관광펜션, 외국인관광도시민박, 한국관광품질인증 등이 있음

**〈표 14〉 전라북도 관광숙박시설 현황**

단위: 개소, 실

| 구분 | 합계 | 관광호텔업 | | | | | | | 한국전통호텔 | 가족호텔업 | 소형호텔 | 호스텔 | 휴양콘도미니엄 |
|---|---|---|---|---|---|---|---|---|---|---|---|---|---|
| | | 계 | 5성 | 4성 | 3성 | 2성 | 1성 | 미지정 | | | | | |
| 업체수 | 50 | 29 | - | 4 | 4 | 7 | 5 | 9 | 1 | 5 | 2 | 7 | 6 |
| 객실수 | 5,275 | 2,257 | - | 495 | 387 | 458 | 183 | 734 | 20 | 2,085 | 41 | 134 | 738 |

자료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내부자료 (2019년 기준)

**〈표 15〉 전라북도 관광숙박시설 현황(관광편의시설 등)**

단위: 개소, 실

| 구분 | 합계 | 관광편의시설 |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 한국관광품질 인증 |
|---|---|---|---|---|---|
| | | 한옥체험 | 관광펜션 | | |
| 업체수 | 470 | 248 | 34 | 142 | 46 |
| 객실수 | 2877 | 1232 | 400 | 567 | 678 |

자료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내부자료 (2019년 기준)

## ❑ 축제 및 공연

- 세계적 축제 육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통 문화 및 독특한 주제를 바탕으로 실시되는 지역축제 중 상품성이 높은 축제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지원되고 있음

-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는 35개로 전북은 이중에서 3개 축제가 선정되었음. 선정된 축제는 임실N치즈축제, 진안홍삼축제, 순창장류축제가 해당됨

  - 2020~2021년 예비문화관광 축제는 33개로 전라북도는 2개 축제가 예비로 선정되었는데, 부안마실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선정됨



임실N치즈축제




진안홍삼축제




순창장류축제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https://korean.visitkorea.or.kr/)

〈그림 36〉 2020~2021년 전라북도 문화관광축제

- 지역축제는 2019년 기준 총 57개이며 임실과 고창이 각 7개로 가장 많이 개최됨

〈표 16〉 전라북도 시군별 축제현황

단위: 개

| 계 | 전주 | 군산 | 익산 | 정읍 | 남원 | 김제 | 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 순창 | 고창 | 부안 |
|---|---|---|---|---|---|---|---|---|---|---|---|---|---|---|
| 57 | 5 | 3 | 3 | 6 | 4 | 4 | 5 | 4 | 2 | 1 | 7 | 2 | 7 | 4 |

자료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내부자료 (2019년 기준)

-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은 문화예술기반 관광 상품 개발 및 지역 내 청년예술인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자 추진된 사업임. 2016년 뮤지컬 “성춘향”과 “떴다. 심청”, 2018년 “홍도, 2019년 ”홍도1589“, 2021년 ”몽연“을 공연함

  - 매년 전라북도만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공연콘텐츠 개발을 통해 도민 문화 향유 증대와 관광객의 문화관광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

-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연으로는 새만금 상설공연이 있음. 2018년까지 새만금 상설공연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고 2019년부터는 신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로 ‘새만금 아트&버스킹 지원사업’으로 변경됨. 선유도 일원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예술가가 공연을 진행함

## 1.3 전라북도 종교 단체와 방문객 현황

### 가. 전라북도 종교단체 현황

#### ❑ 전라북도 5대 종교 단체 현황

- 전라북도 5대 종교단체에 관한 통계는 2006년에 전수 조사가 진행된 것이 가장 최근 자료임
  - 전라북도내 종교단체 교직자는 기독교가 가장 많으며 이어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순임
  - 전라북도내 종교단체 교당의 수는 인구와 달리 기독교가 가장 많고, 이어 불교, 원불교, 천주교, 천도교 순임

〈표 17〉 2006년 전라북도 5대 종교단체 현황

| 종교단체 | 교당(개) | 교직자(명) |
|---|---|---|
| 기독교 | 3,345 | 5,050 |
| 천주교 | 133 | 407 |
| 불교 | 539 | 945 |
| 천도교 | 5 | 14 |
| 원불교 | 134 | 293 |

출처: 통계청 - 전라북도 기본통계 교육 및 문화 (종교인구)

- 2006년 이후 별도의 지자체별로 5대 종교단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지역은 전주시, 부안군, 임실군 3곳이 해당함
  - 전주시는 2017년까지 종교단체 관련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17년 기준 기독교가 교당과 교직자가 가장 많으며, 뒤이어 천주교가 교당은 불교보다 적으나 교직자는 기독교에 이어 많고, 불교는 교당은 77곳으로 천주교보다 많으나 교직자는 147명으로 적었음. 전주시는 천도교와 원불교 교당 및 교직자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됨
  - 부안군은 2017년까지 종교단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17년 기준 기독교가 교당과 교직자가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불교, 원불교, 천주교, 천도교 순으로 나타남
  - 임실군은 가장 최근인 2019년까지 종교단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천도교 순으로 종교단체 규모가 확인됨

〈표 18〉 전주시 5대 종교단체 현황

| 종교 단체 | 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
| | 교당(개) | 교직자(명) | 교당(개) | 교직자(명) | 교당(개) | 교직자(명) | 교당(개) | 교직자(명) | 교당(개) | 교직자(명) |
| 기독교 | 1,184 | 2,004 | 1,185 | 2,122 | 1,164 | 2,073 | 1,365 | 2,499 | 1,191 | 1,964 |
| 천주교 | 35 | 163 | 37 | 192 | 42 | 206 | 41 | 204 | 41 | 186 |
| 불교 | 79 | 146 | 77 | 150 | 79 | 123 | 79 | 136 | 77 | 147 |
| 천도교 | - | - | - | - | - | - | - | - | - | - |
| 원불교 | - | - | - | - | - | - | - | - | - | - |

출처: 통계청 - 전주시 기본통계 교육 및 문화 (종교인구)

〈표 19〉 부안군 5대 종교단체 현황

| 종교 단체 | 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
| | 교당(개) | 교직자(명) | 교당(개) | 교직자(명) | 교당(개) | 교직자(명) | 교당(개) | 교직자(명) | 교당(개) | 교직자(명) |
| 기독교 | 125 | 152 | 127 | 173 | 127 | 173 | 125 | 152 | 125 | 150 |
| 천주교 | 7 | 9 | 7 | 39 | 7 | 39 | 7 | 12 | 7 | 12 |
| 불교 | 20 | 34 | 20 | 34 | 20 | 34 | 20 | 34 | 20 | 34 |
| 천도교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 원불교 | 8 | 11 | 8 | 9 | 8 | 9 | 8 | 12 | 8 | 12 |

출처: 통계청 - 부안군 기본통계 교육 및 문화 (종교인구)

〈표 20〉 임실군 5대 종교단체 현황

| 종교 단체 | 2015 | | 2016 | | 2017 | | 2018 | | 2019 | |
|---|---|---|---|---|---|---|---|---|---|---|
| | 교당(개) | 교직자(명) | 교당(개) | 교직자(명) | 교당(개) | 교직자(명) | 교당(개) | 교직자(명) | 교당(개) | 교직자(명) |
| 기독교 | 88 | 99 | 88 | 99 | 88 | 99 | 95 | 95 | 98 | 98 |
| 천주교 | 6 | 3 | 6 | 3 | 6 | 3 | 2 | 2 | 2 | 2 |
| 불교 | 28 | 30 | 28 | 30 | 28 | 30 | 21 | 21 | 32 | 32 |
| 천도교 | - | - | - | - | - | - | 1 | 1 | 1 | 1 |
| 원불교 | 5 | 9 | 5 | 9 | 5 | 9 | 6 | 6 | 5 | 5 |

출처: 통계청 - 부안군 기본통계 교육 및 문화 (종교인구)

## 나. 전라북도 종교 관광 자원 방문객 현황

### ❑ 전라북도 종교 관련 관광지 방문객 현황

- 전라북도내 5대 종교 관광지 2021년 방문객을 한국관광지식정보시스템[42]을 통해 조사한 바 9개 시군 13개 종교 관련 관광지가 조사됨
  - 한국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는 “본 통계는 개별 관광지에 대한 입장객집계자료로 지자체 또는 특정지역의 관광객 총량과는 상이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일부 사찰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에 편입되어 있어 해당 공원의 입장객수를 참고자료로 명시함
  - 관련 종교로는 불교가 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천도교가 2곳, 천주교 1곳이 있음

**〈표 21〉 2017~2021 전라북도 종교 관련 관광지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 행정 구역 | 관련종교 | 관광지 | 방문객 | | | | | 비고 |
|---|---|---|---|---|---|---|---|---|
| |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익산시 | 천주교 | 나바위성당 | 66,384 | 88,239 | 6113,781 | 30,699 | 34,352 | |
| | 불교 | 미륵사지 | 145,681 | 245,574 | 418,329 | 562,175 | 331,668 | |
| 정읍시 | 천도교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 17,228 | 17,019 | 20,352 | 7,518 | 8,122 | |
| | 천도교 |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 - | - | 7,392 | 3,260 | 3,958 | |
| 남원시 | 불교 | 실상사 | 52,976 | 47,467 | 55,723 | 33,722 | 38,826 | |
| | 불교 | 지리산국립공원(남원시) | 1.534.874 | 1.472.077 | 1.622.327 | 971.721 | 1,290,750 | 대원사 |
| 김제시 | 불교 | 모악산도립공원 | 178.244 | 140.738 | 139.618 | 720.039 | 301,283 | 금산사 |
| 완주군 | 불교 | 모악산도립공원(완주군) | 2.276.502 | 2.446.351 | 2.791.988 | 724.540 | 182,779 | 대원사 |
| 진안군 | 불교 | 마이산 도립공원 | 1.107.960 | 825.731 | 983.877 | 552.906 | 580,542 | 마이산 탑사 |
| 임실군 | 불교 | 소충사 | 2,338 | 1,470 | 2,643 | 645 | 414 | |
| 순창군 | 불교 | 강천산 군립공원 | 1,201,075 | 1,077,866 | 1,033,535 | 715,049 | 742,682 | 강천사 |
| 부안군 | 불교 | 변산반도국립공원(개암사) | - | - | - | - | 54,624 | |
| | 불교 | 변산반도국립공원(내소사) | 884,726 | 605,040 | 669,565 | 374,752 | 371,937 | |

출처: 한국관광지식정보시스템

42) https://know.tour.go.kr/

# 2.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 활용 및 관광정책 현황

## 2.1 전북의 종교문화유산 관련 조례

### ❑ 조례 분석

○ 종교를 키워드로 총 237건의 조례가 검색되었으며, 이 중에서 12건이 종교문화유산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 직접적으로 종교문화유산의 보호, 관리, 관광의 진흥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는 3건에 그침

〈표 22〉 전북의 종교문화유산 관련 조례

| 구분 | 조례 | 시행일 | 주요내용 |
|---|---|---|---|
| 전라북도 |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 | 2015.10.12 | • 세계종교문화축제 등 전북의 종교문화행사 활성화 및 종교문화자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세계종교평화협의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 |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9.4.5 | •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교육, 등에 관한 내용 기술<br>• 이중 종교에 따른 문화적 차별을 제한 혹은 금지 |
| 전주 |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 2016.7.15 | • 시민의 풍요로운 삶 영위를 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규정<br>• 인문학 중 종교학 포함 |
| 익산 |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 2021.9.27 | • 익산시의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 실행계획 수립, 정기적인 실태조사, 문화다양성 교육 등에 관한 내용 포함<br>• 이중 종교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내용 명시 |
| |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 2021.6.30 | • 익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로서 익산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br>• 문화권을 규정할 때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음을 명시 |
| 정읍 | 정읍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 2020.2.7 | • 시민의 풍요로운 삶 영위를 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규정<br>• 인문학 중 종교학 포함 |
| |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 2021.10.1 | • 정읍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군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br>• 이중 종교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내용 명시 |

| 구분 | 조례 | 시행일 | 주요내용 |
|---|---|---|---|
| 남원 | 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 2021.3.26 | • 시민의 풍요로운 삶 영위를 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규정<br>• 인문학 중 종교학 포함 |
| 군산 |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 2020.12.16 | • 군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군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br>• 이중 종교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내용 명시 |
| 진안 | 진안군 고원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2015.12.30 | • 진안고원길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br>• 고원길은 진안의 역사, 문화, 종교자원을 자연과 연계 활용하기 위한 도보여행길을 의미<br>• 진안 고유의 역사, 문화, 종교, 자연자원이 잘 보존된 지역을 중심으로 고원길 연결 |
| 완주 |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0.4.2 | • 지역 고유의 문화생태계 조성 및 문화적 전통의 창조적 형성과 계승을 통해 특색있는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br>• 이중 종교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내용 명시 |
| 순창 |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2021.7.7 | •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규정<br>• 종교를 음악, 민속, 설화 등과 함께 무형의 문화유산으로서 지역문화자원으로 명명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전라북도의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 진안의 〈진안군 고원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의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종교문화를 활용한 축제, 종교자원이 자연과 연계된 고원길,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명명된 종교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외에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같이 종교에 따른 문화적 차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가 대부분임. 이러한 내용은 종교문화유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전라북도에서 종교, 종교문화유산, 종교문화유산 관광에 관한 조례는 거의 제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시기적으로도 진안이 2015년에 종교자원을 포함하는 고원길 조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고, 전라북도도 2015년에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음.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종교를 지칭한 순창의 지역문화 진흥 조례는 2021년에야 시행됨

## 2.2 전북의 종교문화유산 활용 관광정책[43)]

### 가. 순창: 2026 종합발전계획(2017)

#### ❑ 면소재지 특화도서관: 철학·종교도서관 운영 계획

- 순창의 2026 종합발전계획에서는 종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면소재지에 특화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언급됨
- 철학·종교도서관은 면소재지 마을회관, 경로당, 비어있는 공공건물에 설치하며, 운영은 순창 철학자협회(가칭)가 담당할 예정으로 명시함

| 〈면소재지 특화도서관 운영〉 계획 개요 |
|---|
| • 도서관 설치 장소: 면소재지 6곳 마을회관 및 경로당<br>• 도서관 분야: 귀농귀촌, 그림책 등 분야별 특화 중 철학·종교도서관 포함<br>• 연계 협력: 순창 어린이 장난감도서관과 연계<br>• 운영주체: 설립기는 마을 주민 자원봉사자 선발, 성장기에는 주민 커뮤니티 주도, 정착기에는 자원봉사자-커뮤니티 회원-전문사서 순환 체계<br>– 철학자협회가 철학·종교도서관 운영, 불교, 기독교 등 종교 서적 비치<br>• 운영방법: 카페 형식, 군립도서관-마을도서관 네트워크, 소규모 교육활동과 문화활동 지원<br>• 사업비: 10억 원 |

- 철학·종교도서관은 종교문화유산에 대한 관광 측면의 접근보다는 지역주민의 시설편의 측면에서 계획되었음

### 나. 익산: 2035 익산시 미래발전 구상과 전략 수립(2016)

#### ❑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서 종교유적

- 종교유적은 익산의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형성하며, 미래발전 구상과 전략 수립에 있어 강점으로 인식됨

#### ❑ 종교음식을 활용한 축제 개최

- “차질없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조성”을 위해 〈푸드폴리스 세계 식문화 페스티발 개최〉 안을 제안한 보고서에서는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종교별 음식경연대회를 기획함

43)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자료를 요청, 총 11개 지자체에서 자료를 보내줌. 이 가운데 남원, 임실, 군산, 진안의 자료에는 종교에 관한 내용이 없었음

| 〈푸드폴리스 세계 식문화 페스티발 개최〉 계획 개요 |
| --- |
| • 배경 및 필요성: 식품산업 관광 중심지이자 세계식품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br>• 사업기간: 2018 ~ 2025 (8년)<br>• 사업비: 50억원 (국비 25억원, 시비 25억원)<br>• 사업내용<br>- 푸드폴리스 세계음식경연대회 중 종교별 음식경연대회 개최 포함 (이 외에도 대륙권별, 세계 음식경연대회도 계획)<br>- 푸드폴리스 세계식품박람회 개최 |

○ 사찰음식은 축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종교적 의미가 공유되기보다는 새로운 종류의 음식이라는 점이 강조됨. 이 과정에서 종교문화유산으로서 사찰음식은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가진 관광상품으로 전환됨

## 다. 김제: 김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2020)

### ❑ 관광에 강점을 가진 풍부한 종교문화자원

○ 역사, 농경, 종교 문화자원은 관광개발에 있어 강점으로 나타남. 우수한 종교 문화자원을 활용한 신규 관광시설 개발이 하나의 관광 전략으로 제안됨

○ 벽골제에 집중된 관광개발을 탈피하기 위해 4대 종교 종단을 관광자원화 하자는 주장을 담음. 이중에서도 모악산 관광권역은 금산교회, 수류성당 등 종교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이를 자연경관과 연계한 개발이 특징으로 나타남

### ❑ 모악산과 종교문화유산

○ "안심힐링 관광개발/도심관광자원화"를 위해 모악 스카이워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종교자원을 인근 자연경관이나 시설과 연계해 활성화하자는 제안이 담김

| 〈모악산 스카이워크 조성〉 계획 개요 |
| --- |
| • 목적 및 필요성: 모악의 금산사, 금산교회, 수류성당 귀신사 등의 종교자원과 자연자원을 연계한 관광활성화<br>• 사업기간: 2022 ~ 2024 (3년)<br>• 사업규모: 약 A=60㎡ / 스카이워크 예상규모: H=15~20m(수심 17.7m), B=4~4.5m<br>• 사업비: 40억원(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br>• 사업내용: 모악산 스카이워크 전망대 조성, 야간 경관 길 조성 |

○ 모악산 스카이워크 조성계획에서 종교자원은 자연경관과 함께 어우려져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짐. 종교문화유산은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주변의 자연경관과 함께 향유될 때 의미를 더할 수 있음

## 라. 부안: 부안군 관광종합계획(2020)

### ❑ 내소사 중심의 관광개발 계획 수립

- 가장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나타난 내소사 중심의 관광개발 계획이 다수 제안됨

### ❑ 내소사: 종교문화유산보다는 생태 경관으로서의 중요성 강조

- 내소사는 관광공간 중에서도 부안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략공간이자 생태자원과 경관자원을 가진 자원공간으로 구분됨. 이에 따라 내소사권역관광사업화는 종교보다는 부안의 생태정체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촉진됨
- 내소사권역관광사업화는 내소사 입구의 상권을 개발하고, 전이공간을 조성하는 등 종교문화유산으로서의 종교적 의미가 아닌 경관으로서의 중요성이 두드러짐

| 〈내소사 권역 관광산업화〉 계획 개요 |
|---|
| • 배경 및 필요성: 부안의 인기관광지인 내소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향<br>• 추진방향: 관광객 진입공간의 친화적 환경 조성, 전이공간 정비를 통해 힐링공간으로서 내소사의 정체성 유지 및 강화<br>• 사업내용: 내소사 입구 상권개발(소공원/포토존 조성, 청년창업/팝업스토어 운영, 상인 역량강화 지원), 내소사 전이공간 조성사업(내소사로 가로수 정비, 도로 주변 경관정비, 진입로 상징조형물 조성)<br>• 사업기간: 2028 ~ 2030 (3년)<br>• 사업비: 2,700백만원 |

## 마. 전주: 전주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2016)

### ❑ 종교문화 뉴딜 프로젝트

- 4대 종교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종교자원을 기반으로 아름다운 순례길 관광상품 개발이 하나의 사업으로 제시됨
- 전주뿐만 아니라 익산, 김제, 완주, 정읍 등 여러 지역의 종교문화 자원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함. 글로벌 상품으로서 순례길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드러냄

| 〈종교문화 뉴딜 프로젝트〉 계획 개요 |
| --- |
| • 배경 및 필요성<br>- 4대 종교 중심으로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는 종교자원을 바탕으로 이어진 종교화합 사업의 지속<br>- 정신적 행복 실현을 위한 종교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상품 개발<br>• 사업대상: 전주, 익산, 김제, 완주, 정읍 등<br>• 사업내용: 아름다운 순례길의 글로벌 관광상품 개발, 동학혁명에 대한 지속적인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모악산/송광사 등의 템플스테이 연계<br>• 사업비: 600백만원(지방비 600백만원)<br>• 추진방향: 기 추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시군 연계 강화를 통한 사업의 광역화 도모 |

○ 종교문화가 관광객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관광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기획되고 있음. 템플스테이와 같은 기존의 종교자원을 연계해 보다 큰 관광효과를 산출하려는 노력이 엿보임

## 바. 고창: 고창군 관광종합개발계획 2021~2030년(2020)

### ❑ 관광자원으로서 동학농민혁명

○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 일환으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며, 역사문화경관 조성, 연계 지역재생 프로젝트를 통한 동학농민혁명 유적 재생사업 등이 나타남

○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 계획에서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를 연계한 역사문화테마 거리 조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이 계획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무장기포지는 무장읍성의 한 구성 공간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됨

### ❑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광역벨트 조성 계획

○ 관련 사업으로는 동학농민혁명 역사교과서 공동제작 및 교육과정 도입, 공동아카데미 확대 운영 및 공동포럼 운영, 지역참여형 동학농민혁명 지킴이 사업과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순례길 조성 등이 제안됨

|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광역벨트 조성〉 계획 개요 |
| --- |
| • 배경 및 목적: 2019년 동학농민혁명의 국가기념일 지정과 함께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필요<br>• 대상지역: 전북 고창, 정읍, 부안, 경북 경주, 상주<br>• 사업기간: 2022 ~ 2026 (5년)<br>• 사업비: 30,000백만원(국비 15,000, 도비 5,000, 시군비 10,000)<br>• 사업주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라북도, 고창군 외<br>• 세부 실행과제<br>- 동학농민혁명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확산: 동학농민혁명 역사교과서 공동제작 및 교육과정 도입, 동학농민혁명 공동아카데미 확대 운영 및 공동포럼 운영, 지역참여형 동학농민혁명 지킴이 사업 추진, 전문 교육·체험 |

프로그램 활성화
-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경관 조성: 중점 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 동학농민혁명 연계 지역재생 프로젝트: 동학농민혁명 순례길(예시: 수은의 길, 해월의 길, 나라사랑의 길, 하늘길) 조성, 동학농민혁명 통합 콘텐츠 개발 및 관광자원화,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도시 조성, 도시근린재생사업 등

○ 동학농민혁명을 관광자원화 하는 과정에서 고창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북과 경북 지역을 함께 연계하려는 계획을 수립함. 특정 지자체의 자원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공통의 종교문화유산을 연계협력해 개발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사. 완주: 완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2017~2026년) (2017)

### ❑ 천호성지를 활용한 특화 관광명소 구성

○ 비봉면 내월리 일원에 위치한 천주교 순교 성지인 천호성지를 관광자원화하여 정신 휴양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함. 천호성지 경관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예술작업을 통해 새로운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함

**〈천호성지 특화관광명소 조성〉 계획 개요**

- 필요성 및 목적
  - 오랜 신앙의 터전인 천호성지에는 유명한 성지와 사적지가 있어 다양한 자원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
  - 기추진 사업으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천호성지를 종교인뿐만 아니라 비종교인의 정신 휴양 특화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방안 필요
- 사업기간: 2019 ~ 2023 (5년)
- 사업비: 10,000백만원(국비 5,000, 군비 5,000)
- 사업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완주군
- 사업내용
  - 천호성지 경관예술 관광자원화: Farm Art(종교 주제를 담은 메시지를 경관작물을 활용한 대지예술로 표현), Farm Garden(종교 관련 설치 미술작품을 활용해 대지 위에 예술작품 형상화, 경관자원화)
  - 천호성지 아트 전망대 설치: Farm Art, Farm Garden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 Farm Art와 Farm Garden이 어떤 사업내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천호성지를 예술과 결합함으로써 관광 자원화하려는 시도가 드러남. 종교문화유산을 다른 분야의 문화예술과 연계하는 방안은 자연경관과 종교문화유산을 함께 개발함으로써 상승효과를 산출하려는 접근과 유사함

### ❑ 사찰음식 관광상품 개발

○ 완주를 대표하는 사찰음식을 발굴하여 이를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함. 사찰음식 해설사를 양성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을 수립함

| 〈타깃 시장별 음식관광상품〉 개발 개요 |
| --- |
| • 필요성 및 목적<br>-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완주의 특화음식 투어 상품 개발<br>- 사찰음식은 외국인이 관심을 갖는 한식 중 하나이자 슬로우푸드인 로컬푸드와 유사하므로 집중적으로 개발<br>• 사업기간: 2019 ~ 2020 (2년)<br>• 사업비: 700백만원(국비 150, 군비 450, 기타 100)<br>• 사업주체: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완주군<br>• 사업내용<br>- 완주 대표 사찰음식 발굴 및 미식투어프로그램 개발·운영<br>- 사찰음식 조사,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미식투어 가능한 사찰에서 사찰음식 체험프로그램 개발, 기타 치유프로그램 연계, 사찰음식 해설사 양성 및 운영 |

## 아. 정읍: 정읍 토탈랜드 미래발전 구상과 전략(2019)

### ❑ 문화다양성을 적용한 관광상품 개발

- 종교적 다양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체험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문화다양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관광상품에 주목
- 정읍에서 무슬림의 할랄과 유대교도의 코셔에 주목하여 종교 관련 음식을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서에서 제시함
  - 관련 기관에서 인증을 받음으로써 해당 관광객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할랄과 코셔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음식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점임
- (가칭)세계금기음식미식대회(페스티벌) 개최
  - 음식다양성의 천국 정읍이라는 컨셉으로 한국음식을 코셔, 비건, 채식주의, 할랄 등의 식단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를 대회 형식으로 진행함